

법현 스님 저잣거리 포교 열린선원장
"시끄러운 시장통이
내게는 신성한 수행처"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7월 29일) · 주간

제956호 2013년 9월 4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보왕삼매론

친구를 사귈 적에는 이익을 추구말라
이익을 추구하면 의리가 상하게 된다
순수한 생각으로 오래 교우하라

화엄·법화회·무소속
VS
무량·무차회·백상도량

총무원장 선거, 경선 체제로 전환

안개 속 정국이었던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사실상 경선 체계로 굳어졌다.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불교광장과 이에 대척에 서 있는 舊 무량·무차회·백상도량(舊 보림회)의 대결구도다.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것은 舊 무량·무차회·백상도량 3개 종책모임이다. 이들은 총무원장 후보로 前 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추대했다. 보선 스님은 이를 수락하고 8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보선 스님 인터뷰 2면〉

'연임'에 걸린 불교광장

한달 여 전 상황은 전혀 달랐다. 화엄·법화회와 무량회, 무소속이 연대한 불교광장이 출범하고 추대위가 구성될 때까지만 해도 경선이 아닌 추대 형식으로 총무원장 선거가 진행될 듯 보였다. 하지만 곧 악재가 따랐다. 자승 스님의 연임을 놓고 불교광장 내부적으로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불교광장 대변인을 맡고 있던 무량회 측 장명 스님은 '자승 스님의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며 광장을 탈퇴했으며, 전국 수좌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촉구도 이어졌다. 특히 수좌회는 자승 스님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한 묵언정진을 29일부터 조계사 전통등 연구소에서 들어갔으며, 24일에는 연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량회도 8월 26일까지 불마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변이 없자 불교광장에서 탈퇴했다. 여기에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교광장 추대위원회의 교역직 참여 자제 권고도 단일 후보 추대에 암초가 됐다.

결국 불교광장 추대위는 26일 공식적으로 해산했다. 불교광장은 9월 2일 대구 동화사에서 향후 방향과 후보 추대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이를 논의했다.

자승 스님 출마 여부 관심사

불교광장이 추대하는 후보자는 현재(8월 30일)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적지 않은 불교계 인사는 자승 스님의 연임을 위한 출마에 비중을 두고 있다. 자승 스님이 지난해 백양사 도박사건부터 3차례에 걸쳐 재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답변으로 거취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실제 8월 28일 호주 시드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자승 스님은 "지난 4년간은 씨를 뿌리는 과정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향후 선거는 화엄·법화회·무소속의 불교광장과 舊 무량·무차회·백상도량의 3자 연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는 다수의 종회의원과 18곳 가량의 교구본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불교광장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자승 스님에 대해 수좌회가 대표로 나서서 반대하고 있고, 여론도 좋지 않아 선거가 본격화되면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는 미지수이다.

여법하고 공정한 선거 관건

적지 않는 종도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그 결과를 떠나 흠결

보선 스님 공식 출마 선언
3개 종책 모임 공조 추대
불교광장 연대 사실상 분열
수좌회 '연임 저지' 천명해
종도들 흠결없는 선거 염원

없는 후보가 여법하고 공정하게 선출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백척간두에 선 한국불교가 폭로와 비방으로 얼룩진 선거를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갈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대표 퇴휴 스님은 "시민사회 단체 대표가 아닌 종도로서의 바램은 조계종을 명예롭게 이끌 수 있는 분이 됐으면 한다"며 "누굴 뽑느냐가 관건인 정치공학적 선거가 아닌 국민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여법한 과정을 통해 선택되는 선거가 돼야 현재의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총무원장 선거가 사회 문제로 비화돼서는 안된다"며 "종단 행정 수반에 걸 맞는 자질과 수행력을 겸비한 인물이 조계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 수좌회 조계사서 묵언정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재임 저지를 위해 총무원 청사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묵언 정진을 예고했던 전국 선원수좌회가 8월 29일 정진에 들어갔다. 장소는 총무원과 조계사의 협조로 조계사 신도회관 옆 전통등 연구소 '가피'에서 진행한다. 메일 동참 수좌 20명은 교대로 오전 4~5시, 8~11시, 오후 1~5시, 7~9시까지 네 차례 정진하며 기한은 자승 스님의 불출마선언이 나올 때까지다. 사진은 정진에 동참한 수좌들이 조계사에서 고불식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글=신중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종헌·종법 벗어난 행위 엄중 조치"

조계종 호법부, 28일 선거관련 담화문 발표

선관위 비방 자제 권고도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 호법부가 종헌 종법의 질서를 벗어난 주장과 행동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천명했다.

호법부는 8월 28일 호법부장 정안 스님의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는 향후 종단 발전과 안정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는 물론이고 선거인단, 그리고 종도 모두가 종헌과 종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34대 총무원장선거와 관련하여 종헌종법에서 벗어난 어떠한 주장이나 행동도 종단의 안정을 저해하고 화합을 깨뜨리는 것으로 보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종도 모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종단 지침을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호법부는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제보해 줄 것을 담화문에서 공지했으며,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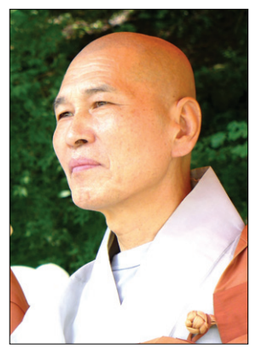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범여, 이하 중앙선관위)는 8월 27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최근 종단 내에서는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표명되고 교계언론을 비롯한 일반 언론에도 기사화 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관한 공고 및 후보 등록'을 하기 전으로 현 시점에서 종단 내 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인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 출마 여부에 대해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과거 왜곡된 선거문화로 인해 각 종 선거 전후로 많은 내홍과 후유증을 겪은 바 있다"며 "금번 제34대 총무원장 선거가 과거의 답습이 아닌 미래를 위한 변화의 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종도들은 차분하고 지혜롭게 선거 절차를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 추대

백양사 8월 30일 산중총회서 만장일치로



백양사 수좌 지선 스님〈사진〉이 고불총림 방장에 추대됐다. 이에 따라 백양사는 전 방장 수산 스님의 열반 이후 1년 6개월 만에 신임 방장을 모시게 됐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진우)는 8월 30일 산중총회를 열고 지선 스님을 만장일치로 방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산중총회는 총 구성원 158명 가운데 93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에 따라 지선 스님은 11월에 열릴 조계종 중앙종회의 인준을 받으면 정식으로 방장 소임을 맡는다.

백양사의 큰 어른인 지선 스님은 1946년 전남 장성에서 출생했으며, 1961년 16세의 나이로 석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1967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하고, 1972년 서옹 스님으로부터 '학봉'이라는 법호를 받으며 법제자가 됐다.

이후 지선 스님은 제주 관음사와 전남 백양사 주지, 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2004년부터 총림 유나 소임을 맡아 수좌들을 지도해왔다.

한편, 총림의 선, 교, 율을 겸비한 승랍 40년, 20안거 이상을 성만한 스님으로 총림을 대표하는 어른이다. 방장은 산중총회에서 추대해 조계종 중앙종회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10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양행선 광주지사장







956호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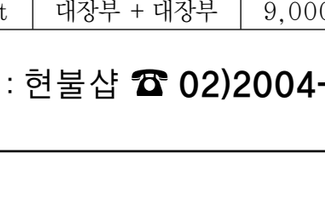
시방세계 5
대만 불광산사 승보공양 현장



종합 2·3
대장경 판각지 논쟁 '재촉발'
조계종 첫 호주 방문 행사
정전 60주년 국제 포럼 개최

마음·명상 27
'명상 붐 어떻게 볼 것인가' ㊦

문화 20
성철 스님 열반 20주년 전시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컵 종 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낱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새로운 종책모임 '백상도량' 문 연다

舊 보림회 발의… "94년 개혁 의지 재집결할 것"

새로운 종책모임인 '백상도량'(운영위원장 범해)이 9월 1일 공식 창립됐다.

舊 보림회가 발의한 백상도량은 배포한 창립선언문을 통해 "고위직 승려들과 관련된 기대 밖의 얘기들이 사회언론에 빈번히 회자되고 총무원장의 소임을 오로지 세로써 전유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단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음을 우려하고 애종심과 정법의 지혜를 모아 이 혼란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백상도량은 △승가의 화합과 지계청정에 솔선수범하고 △1994년의 개혁불사를 계승하며 △종책 제시를 통해 종단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또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의 여법한 회향에도 기여한다는 4가지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총무원장 상으로 백상도량은 "지계와 행화가 사부대중과 세속 사회에 귀감이 되고 지견과 경륜을 갖추되 공심에 철저함이 검증된 분"을 꼽았다.

운영위원장인 범해 스님은 "지금 상황은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분명한 수습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늘 해오던 쇄신운동 같은 캠페인이 아니라 총무원장의 권한 축소, 교구본사의 자율성 확대, 직할 교구의 분구, 사법기관의 쇄신 등과 같은 제도개혁 제시가 수습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서 범해 스님은 "지난 중앙종회에서 후보에 대한 공개청문회 도입을 발의했지만 무산됐다"면서 "백상도량은 특히 지계와 행화의 검증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2, 3급 승가고시 접수

조계종이 올해 2, 3급 승가고시 원서를 접수받는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 3급 승가고시 원서를 접수한다.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되는 조계종 2,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하는 스님들은 승가고시 응시원서와 수행이력서, 그리고 수행이력에 따른 증빙서류를 재적교구본사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고시위원회는 승가고시에 응시하는 스님들의 논술고사 준비가 용이할 수 있도록 논술작성법도 제공한다. 승가고시 논술작성법은 8월 26일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 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불교폄훼 댓글 진상 조사 촉구

조계종, 23일 관련 공문 송부…"불교단체 직원이 종단 대표 비하"

조계종이 종단과 불교를 폄훼하고 특정 스님을 비방한 댓글과 관련해 불교단체에 진상 조사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조계종 호법부는 8월 27일 기자 브리핑에서 "최근 불교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악성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그 중 한 명이 'ㄷ' 불교단체 실무 책임자인 A씨로 밝혀졌다"며 "본인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댓글 내용은 개인 신상이 관련돼 공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조계종은 관련단체에 철저한 진상 조사와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8월 23일자로 송부했다.

조계종은 총무부장 명의의 공문에서 "불교단체의 구성원이 익명을 악용해 종단 대표자에 대해 허위 사실과 악의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강력한 유감을 전한다"며 "이는 불교 단체의 구성원으로 용납해서는 안될 행동이며, 불교인으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9월 4일까지 상응하는 조치와 답변을 촉구했다.

공승관 호법부 팀장은 "그간 악성적인 비하와 모독이 담긴 댓글 10건 정도를 수사 의뢰에 신원을 파악했다. 대부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할 경우 소를 취하해 왔다"며 "하지만 불교를 대표하는 단체의 실무 책임자급 직원이 종단 대표자를 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익명성에 기대어 개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계 언론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댓글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며 댓글 작성자도 건전한 의견 개진으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책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팔만대장경 판각지 학계 논쟁 '재촉발'

박상국 원장, 남해군 주최 세미나서 '전량 제작' 주장

1236년부터 10년 넘게 걸린 대장경 불사. 하지만 정작 어디에서 '팔만대장경'이 제작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경 판본이 남해에서 전량 제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판각 장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8월 27일 남해군과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 남해유배문학관에서 개최한 '남해, 고려대장경 탄생의 비밀을 풀다' 학술심포지엄에서는 대장경 조판 장소를 둔 논쟁이 다시 촉발 됐다.

학계에서는 강화도와 진주, 남해, 경주 등에서 고려대장경이 제작돼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해서 경판 전량 판각됐나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원장은 "팔만대장경은 모두 남해에서 제작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그동안 고려대장경 '종경록' 27권에서 '분사남해대장도감개판(分司南海大藏都監開板)' 기록이 발견됨에 따라 강화와 남해 공동 제작설이 힘을 얻어 왔다. 현재 문헌상 '대장도감'의 위치는 불확실하지만 '분사 대장도감'은 남해에 있었던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박 원장은 "고려대장경 간기(刊記) 조사에서 대장도감판과 분사대장도감판이 동일한 장소에서 판각됐음이 드러났으며 각수(刻手) 조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이 됐다"며 "그 장소는 남해였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대장경 간행 기록을 전수 조사(1496종 6570권)해 '분사대장도감'이라고 판각된 500권 중 473권이 원래 '대장도감'이란 부분을 상감(象嵌) 기법으로 파내고 끼워넣은 것으로 확인했다.

박 원장은 "〈불설의족경〉의 경우 앞권은 '분사 대장도감', 뒷권은 '대장도감'에서 만들었다고 표기하고 있다. 이는 판각 장소가 동일한 곳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1243년 이후 제작에 참여한 정안의 공로를 강조하기 위해 '대장도감'을 '분사 대장도감'이란 이름으로 새로 불렀고, 이 때

강화 등 각지 제작이 일반적

최근 지자체 '남해설' 조명

지역별 학자마다 주장 달라

문에 대장경을 만든 직후 해당 시기의 목판에서 '대장도감' 부분을 '분사 대장도감'으로 고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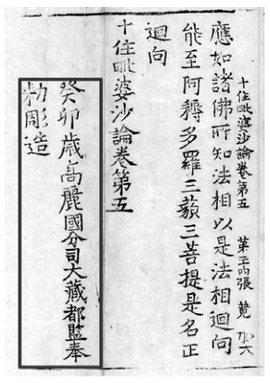
남부지역 일대서 판각 주장

하지만 학계에서는 남해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대장경이 판각됐을 것이란 입장이 많았다.

최연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남해 분사대장도감에서 중점적으로 팠지만 전량 판각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 교수는 "강화 대장도감 설치 시 분사





대장도감이 새겨진 '섭대승론석(攝大乘論釋) 권 제9'(좌)와 분사대장도감이 새겨진 '십주비파사론(十住毘婆沙論) 권5'(우). 분사대장도감의 간기 중 '分司大藏都監奉' 부분의 크기가 작다. 박상국 원장은 이 부분이 원래있던 '大藏都監奉' 부분을 파내고 '分司'를 추가해 새겨 끼워넣는 상감기법으로 처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장도감을 설치해 실질적인 판각이 분사대장도감에서 이뤄졌다고 하는데 기록상으로는 1243년 이후 분사대장도감이 확인된다"며 "강화도에서 본래 판각 하려고 했으나 대몽항쟁으로 못하였기에 남해에서 새롭게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최영호 팔만대장경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대장경 조성이 시작된 1236년 이전 이미 경주지역에 대장경판 조성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토대를 갖추었으며 1251년 4월 〈불설아미타경〉과 같은 경판이 경주에서 판각됐다"고 주장했다.

최연주 동의대 사학과 교수도 "분사 대장도감은 남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설치돼 있었다"고 말했으며 윤경진 경상대 사학과 교수는 "남해의 분사 대장도감은 대장경의 일부만 제작했다"고 말했다.

현대 지역발전에 대장경 활용

학계에서는 강화에서 대장도감이 위치해 지휘를 맡고 여러 사원의 협력으로 분담 조판해 대장경 조성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송일기 중앙대 교수는 "대장경 조성 당시 고려정부는 임시수도를 강화로 천도했기 때문에 총괄기구인 대장도감이 상당기간 존치돼있었다"고 말했다.

동국대 박물관장 재직 당시 강화 선원사지 발굴조사를 진행한 홍윤식 동국대 역사교육과 명예교수는 "대장경 종경록에는 분사대장교감이 남해에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기에 남해에서 일정부분 판각이 됐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며 "학술적 연구와 함께 남해군과 강화군 등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초발심 원력으로 정법 당간 세울 것"

前 종회의장 보선 스님, 30일 공식 출마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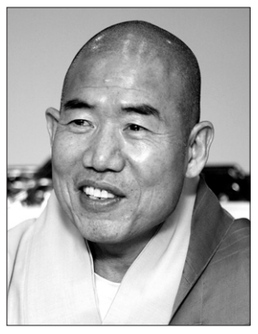
前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사진〉이 8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밝혔다.

舊 무량·무차회·백상도량 3개 종책 모임이 추대로 이뤄진 만큼 기자회견 자리에는 각 모임의 수장인 법등 스님(前 호계원장), 영담 스님(중앙종회의원)이 함께 배석했다.

이날 보선 스님은 출마의 변을 통해 "우리 불교계는 위기의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많은 종도와 재가자가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불교 대중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의 법의 정신을 시대와 이웃 대중에게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화엄경〉의 한 구절인 '어둠 속의 보물을 등불이 아니면 밝힐 수 없듯이 불법을 설하지 않으면 비록 지혜가 있더라도 깨달을 수 없다'를 인용한 보선 스님은 "초발심의 원력으로 천수천안의 관음보살의 길을 실천한다면 불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소납은 불자와 국민이 내려 주신 죽비와 화두를 들고 정법의 당간을 세우려 한다. 비록 수행력과 지혜가 부족하지만 사부대중의 원력을 받들어 34대 총무원장 소임을 짊어지려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자신의 종책 주요 과제로 △청정과 자비의 수행종풍 구현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정한 종무행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승불교정신의 시대적 구현 △승가상 정립과 교육의 혁신 △수도권 포교와 교구의 활성화 △시대에 부응하는 종단 기구의 개편 등을 제시했다.



또한 스님은 "시대적 책무를 피하지 않겠다. 세속적 이해관계가 아닌 종헌 종법에 입각해 종도가 공감하는 종단 운영을 할 것"이라며 "교구본사, 중앙 종회, 현장 활동가 스님과 재가불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 공감을 이뤄 구체적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배석한 스님들의 지지발언도 이어졌다. 법등 스님은 "보선 스님은 시골 고찰의 노 스님 같이 가장 스님 같은 분이다. 그래서 원력을 세워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영담 스님은 "제왕적 총무원장을 이제는 지양해야 될 때가 됐다"며 "보선 스님도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소임을 보신 분으로 개혁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보선 스님은 자신의 그간의 소신에 대해서 답했다, 연합 집행부 구성과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계파와 문중을 떠나 종헌 종법에 입각해 모든 행정과 인사를 처리하겠다"며 "지지·비지지 세력을 모두 안을 것이다. 불교 발전에 좋은 정책 방안들이 있다면 집단 지도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엄·법화회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모든 문은 열려 있다. 뜻만 맞다면 그들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초기불교 전문교육기관

대한불교대학 2013학년도 후반기 등록생 모집

초기불교의 학문을 연구하고 전파하기 위한 전법사와 수행자의 진로 개척을 위한 목적으로 개강한 초기불교 전문교육기관인 대한불교대학은 2013학년도에 개강하여 경남진주학습관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경남과 부산지역의 출석과정생 40명, 호주, 베트남, 중국 등 해외교민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등 경향각처의 사이버과정생 40명, 합계 80명으로 출석강의와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대학의 학생회 구성은 일반 재가자 70명, 수행자 10명으로 구성되어 년 간 42주 84강좌로 2년 4학기의 과정을 1년 전반기, 후반기로 학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등록 및 모집 안내

◈모집인원 : 출석과정 - 50명
사이버과정 - 50명 (합계 100명)
◈모집기간 : **2013년 8월 15일 ~ 9월 14일까지 (1개월)**
◈수강기간 : **2013년 9월 7일 ~ 2014년 7월 24일** (년 42주 84강)
◈졸업일자 : 2014년 8월 9일(예정)
◈교육장소 : 경남 진주학습관
경남 진주시 상봉동 1018-3번지
(사)감로심장회관 3층 진주거사림회관
◈강의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3시 30분~18시까지** (4시간30분)
◈교과과목 : 초기불교기본교설, 초기불교교단사, 인도철학사, 초기불교사회사상사, 경장, 율장, 논장, 불교사, 상좌불교의례, 위빳사나 명상, 응용불교
◈교 수 진 : 마성스님, 냐냐로까스님, 이철헌, 임승택, 김재성, 김재영교수

※ 2013학년도 후반기 교과목 및 교수진

과목명	담당교수
經藏(Sutta-pitaka)	냐냐로까스님,마하보디선원장
律藏(Vinaya-pitaka)	이수창(마성)교수
論藏(Abhidhamma-p.)	김재성 교수
佛敎史(History of Buddhism)	이철헌 교수
上座佛敎儀禮(Rites of Theravaada)	이수창(마성)교수

◈2013학년도 등록금 : 년 48만원 (년납 44만원, 2회납 24만원)
(2013학년도에 한정함)
◈등록원서 : 대한불교대학 홈페이지 커뮤니티 학사자료실 탑재
◈등록원서 접수처 : 팩 스 : 055)854-3067
이메일 : asrhkdqnftk@daum.net
◈등록금 납입계좌 : (농협) 351-0113-9532-13 (대한불교대학 광불사)
◈문 의 : **대학본부 055)854-8424 / 경남학습관 055)759-6989**
휴 대 폰 010-6796-0106 (학장)
016-585-3114 (교무처장)
◈주 소 : 대 학 본 부 : 경남 사천시 사남면 가천리 산113-4번지
경남진주학습관 : 경남 진주시 상봉동 1018-3
◈홈페이지 주소 : **www.dbckorea.kr**

대한불교대학 교무처 www.dbckorea.kr

한국불교, 호주서 法輪을 굴리다

조계종, 23~30일 호주 시드니서 첫 방문 행사

최근 급속도로 불교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호주에 한국불교와 전통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시드니 일원에서 한국 불교 세계화를 위한 호주 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그 시작은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전통등 점등식이 알렸다. 8월 24일 시드니 현대미술박물관 광장(MCA)에서 펼쳐진 불교문화마당 전통등 점등식에는 코알라, 오페라하우스 등(燈) 등 이색적인 등도 함께 불을 밝혀 현지민들을 매료시켰다.

이날 점등식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사회부장 법광 스님, 문화사업단장 정산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대행 미산 스님,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과 시드니 정법사 회주 기후 스님, 조문형 정법사 신도회장 등 참가했다.

시드니의 랜드마크인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펼쳐진 문화마당에는 첫날에만 200여 명의 현지인들이 인경체험, 단청그리기, 연꽃등 만들기 등 한국불교전통문화를 체험했다. 또한 총 6개 프로그램 중 4개 이상을 참여하는 경우 천으로 된 차받침 또는 일주문 앞에서 즉석촬영사진을 상품으로 전달해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에 앞서 중앙승가대 총장대행 미산 스님은 100여 명의 시드니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쳤다.

1시간 동안의 강의를 통해 미산 스님은 한국 불교와 다양한 불교수행 방법, 한국 불교 특성에 대해 사진을 곁들여 간결하고 재미있게 소개해 청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30분 동안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호주인들의 불교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실제 한 20대 현지 여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동양의 희생정신과 괴리되는 것이 아니냐. 이는 최근 나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산스님은 "자기사랑과 상대에 대한 희생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애를 충만히 하는 가운데서 상대에 대한 자비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답했다.

24일 전통등 점등식 시작으로
사찰음식 · 템플스테이 등 소개
호주 종교계 · 정관계 인사 교류
세계화 위한 현지 법회 · 강연도

현지인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지역 신문을 보고 강의에 참석한 불가리아 출신의 필리포라(여·30)씨는 "한국에 불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다양하고 긍정적인 강의내용이 인상적이였다"며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사찰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꼭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조계종의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한 현지 방문 사업은 뉴욕, 파리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이번 호주 행사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강연회, 사찰음식 등을 현지 시드니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내용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호주방문 행사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방문단이 26일 호주불교연합회 회장 수뜨아모 스님, 부회장 빤야와로 스님 등 호주불교계 대표단과 만나 상호 교류에 대한 환담을 진행했으며 28일에는 세인트메리대성당을 방문 대표자인 지오바니파커 신부를 만나 종교평화 및 종교간 교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NSW(New South Wales) 호주연방 환경부장관, 다문화장관, 호주의회 의원 등을 초대 사찰음식만찬을 나누고 한국전통문화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도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UN참전용사 미망인 및 자녀들도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현지 주민들을 위한 포교도 이어졌다. 조계종 방문단은 시드니 정법사에서 현지 법회를 봉행했으며, 정법사를 오세아니아 주 대표 사무소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호주 방문단이 현지 스님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시드니 현대미술박물관 앞 한국불교문화마당에서 현지인들이 인경체험을 하고 있다.


대안 스님의 사찰음식 강연회는 서구적 식습관에 길들여진 호주인들에게 신선한 경험이었다.

"남북 상생 위해 자비희사 실천해야"

조계종, 8월 28일 프레스센터서 한반도 평화 국제 포럼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한반도평화대회 국제포럼'이 조계종 주최로 8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불교의 평화사상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가늠해 보고자 마련된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에서 한국전쟁: 정전체제에서 지역 평화체제로'란 주제로 열렸으며 국내외 대학 석학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원산 스님(통도사 주지)은 축사를 통해 "한민족의 고통을 치유하고 역사의 멍에를 벗는 일에 함께 노력하자"며 "이번 포럼에서 평화의 역사를 새로이 펼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의 불을 네팔에서 채화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은 "제가 원력으로 평화의 길을 열고 있다면 학자 여러분들은 학문과 지성으로 그 길을 펼쳐 주셔야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평화를 향한 마음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송묵 스님(조계종 포교원 부장)도 "남북이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안에서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민족이 생존하는 길"이라며 "불자들이 함께한다면 부처님의 지혜광명도 한반도에 가득해 평화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수불 스님(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상임운영위원장?범어사 주지)은 "불교는 전쟁의 근원적 원인을 인간의 욕망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전쟁은 전쟁으로써 통일을 완수하겠다는 무지와 탐욕의 산물"이라며 "평화지향성이 강한 불교가 평화를 위한 관계 맺기의 실천윤리로써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비희사에 있다"며 "증오는 자(慈)로써, 남을 해치는 욕구는 비(悲)로써 제거하고 더불어 기뻐(喜)하고 탐심을 버림(捨)으로써 남북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은 1부 불교 평화론과 동아시아 평화체제와 2부 한국전쟁의 성찰과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배현진 기자



정전 60년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불교계가 나섰다. 조계종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는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금강산관광재개본부 '서명운동' 돌입

10월 3일 '다시 가자 금강산' 행사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이 펼쳐진다. 금강산관광재개범국민운동본부가(공동 상임대표 자승 스님)는 8월 29일 서대문구 본부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10월 3일 강원도 고성에서 '다시가자 금강산 행사'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도 시작한다고 결의했다.

금강산관광재개범국민운동본부 이승환 운영위원장은 "다시가자 금강산 행사는 작년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서명 운동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9월 10일 회의를 거쳐 세부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10년 대작 불사 천태종중앙박물관 개관 천태종(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충북 단양군 구인사 입구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불교천태중앙박물관 낙성법요식 및 개관식을 봉행했다. 박물관은 1만730㎡(3,246평)의 부지에 연면적 9,468㎡(2,864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소장 문화재는 1만 5000여 점이며, 이 중 151점이 상설 전시된다. 법요식에서 도용 종정 스님은 "실상의 참 세계는 한 모양도 없으나 가지가지 형상을 자제하게 나타내는구나. 모습 없는 모습을 보고 소리없는 소리를 들어라"고 법어를 내렸다.

단양 구인사=김주일 기자

조계종, 45기 사미 · 사미니 수계교육 입재

23일부터 16일간 직지사서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응)은 8월 23일 제8교구 직지사에서 제45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 고불식을 봉행하고 1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수계교육에는 남행자 99명, 여행자 37명 등 총 136명이 인천의 사표가 되고자 발원을 굳건히 했다.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혜명 스님은 입재사에서 "수계교육에서 배우고, 출가자의 살멤서 늘 새롭게 배우고, 실천해야 할 과제는 발심과 원력"이라며 "부처님 생애에서, 다양한 수행에서,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들으며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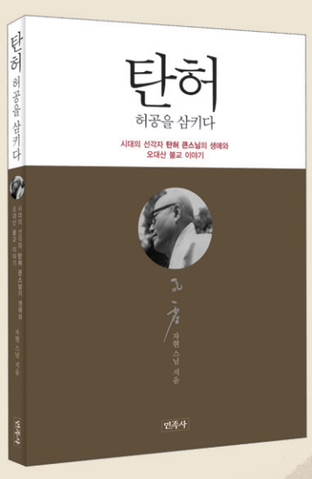
직지사 주지 흥성 스님은 느리지만 우직한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는 마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출가의 길은 쉽지 않다. 긴호흡으로 꾸준히 가야 한다"며 "우보천리(牛步千里)라 했다. 첫 마음으로 꾸준히 출가의 길을 간다면 세월 흘러 지금보다 나은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계교육에 참가한 남녀행자들은 수계교육 유나 덕문 스님의 고불문을 마음에 새겼다. 덕문 스님은 "모든 중생들을 선지식으로 생각하고, 깨달음과 번뇌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지극하고 용맹한 정진을 하겠다"고 고불문을 낭독했다.

이번 수계교육 고불식은 이제까지 한문중심 고불문과 서원문을 우리말 중심으로 바꿨다. 또 9월7일 열리는 수계식에 가족과 친지, 지인 등을 초청해 행자들의 사미?사미니계 수계를 축하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씻기지 않는 이름 탄허,
그리고 탄허 스님을 품은 오대산 불교 이야기



"대한민국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 "21세기에는 여성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
"법당 100채를 짓는 것보다 스님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탄허 큰스님의 가르침!



《탄허, 허공을 삼키다》는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 업적을 되살려 미래의 꿈과 좌표로서 한국불교 발전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나침반과도 같은 책이다. 이 책은 스님의 생애와 시대정신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고,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도 소개하고 있어 탄허 스님이라는 큰 그릇을 품을 수 있었던 오대산의 문화적인 배경과 그 깊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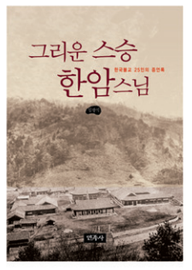
탄허, 허공을 삼키다 –시대의 선각자 탄허 큰스님의 생애와 오대산 불교 이야기
자현 스님 지음 / 264쪽 / 13,500원 / 무선(신국판)

5월 17일 오전 11시 부처님 오신날 특집 다큐
〈탄허, 화엄의 길〉 KBS1 TV 방영 예정

구입 문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한국불교의 자존심
한암 큰스님

한암 스님은 27년간 동구불출하면서 수행에 임했으며, 계율에 철저하고 승가화합과 대중화합에 투철한 올곧은 수행자였다. 자신의 몸을 던져 상원사를 수호하였으며, 좌탈입망으로 수행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 주었던 한국불교의 자존심이다.



이 책은 한암 스님의 정신과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여 실천하고자 만들어진 일화집이다. 생전에 주석하셨던 오대산 월정사를 중심으로 수집한 스님의 행적과 자료, 한암 스님 회상에서 수행했던 스님과 재가자 25명의 인터뷰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한암 스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한국불교 25인의 증언록
김광식 지음 / 412쪽 / 15,000원 / 양장(신국판)

일 주 문



지구촌공생회에 1천만원 기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8월 30일 지구촌공생회 사무국에서 제17회 만해대상 상금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지구촌공생회에 기부했다.



군종교구 호국연무사 법회

조계종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9월 8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수계법회를 개최한다.



불교TV에 토지 기증

하동 칠불사 회주 통광 스님은 8월 28일 영상포교발전을 위해 세종시 소재 토지 약 500평을 불교TV에 조건없이 기증했다.



평화 메시지 전달

前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여여선원 선원장)은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8월 25일 반 사무총장 생가에서 '世界를 平和롭게' 라고 쓴 휘호를 전달했다.



경북 문화재위원 위촉

동국대 불교미술학부 교수 청원 스님은 8월 23일 경북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제25회 백고좌대설법회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제25회 백고좌대설법회를 봉행한다. (053)766-3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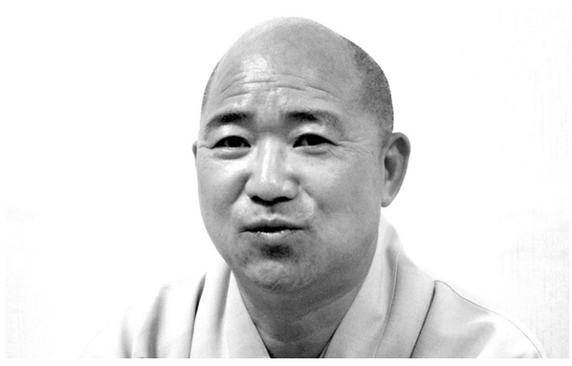
한국종교연합 제68차 평화포럼



한국종교연합(공동대표 무원)은 8월 27일 오후 2시 삼광사에서 '종교와 음식문화'를 주제로 제68차 평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 박남수 천도교 교령, 공동대표 겸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KCRP 전 대표회장 백도웅 목사, 천주교 글라넷 선교수도회 원장 주낙길 수사, 원불교 평양교구장 김대선 교무, 부산종교인 평화회의 고문 정영문 목사, 공동대표 김길철 천도교 부산시교구장, 이병두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만순 삼광사 약선사찰요리 연구원장은 발표에서 "불교음식문화는 불살생의 생명존중사상과 탐욕의 절제를 통한 정신이 음식에 고스란히 녹아 있어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이 시대의 대안음식"이라고 주장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종단 內 노동환경 개선에도 힘쓸 것"

1주년 맞은 조계종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

1년간 현장 다니며 분투
사회적으로 긍정적 평가
종단 노동환경 바뀌어야
현장 활동가 부족 아쉬움

"이웃종교보다 늦게 출범한 만큼 열심히 현장을 뛰었습니다. 여러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끄럽습니다."

8월 27일로 꼭 1주년을 맞은 조계종 노동위원회의 위원장 종호 스님은 1년간의 소회를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부끄럽다는 말을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창립만으로도 노동운동에 대한 인프라가 전무했던 불교계에 큰 이슈가 됐다.

실제 노동위원회는 1년 간 쌍용차, 현대차, 한진중공업, 학습지 노동자 등 전국 노동현장을 다니며 그들의 아픔을 위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자의 아픈 상처를 불교적으로 보듬기 위한 작업들도 이뤄졌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및 가족 초청 템플스테이는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올해 초 개원한 노동자 심리상담센터 '도반'은 상처받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민을 듣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격주 이어진 동사섭 법회도 노동현장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매개체가 됐다.

하지만 노동위가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이는 스님도 아는 문제였다. 현재 불교 철학과 사상적 측면에서 현대사회의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개념을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종단과 불교계 안에서의 노동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논의된 바 없다. 실제 불교계 사찰,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중 4대보험 혜택을 못 받거나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인 등 열약한 조건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가 적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조계종 노동위가 출범한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불교계 노동인식은 미약합니다. 특히 종단이나 사찰 등 불교계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님은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단의 안정과 내부적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현장으로 달려갈 활동가 스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식있는 젊은 스님들의 참여도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고은 시인, 수원에서 문학 3기 활동

안성시대 30년 〈만인보〉 등 130여권 저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돼 온 고은 시인〈사진 · 전 본지 고문〉이 수원의 고은문학관으로 거처를 옮겨 3기 문학인생을 펼친다. 수원시는 8월 29일 고은 시인이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으로 전입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고은 시인을 모셔오기 위해 생태박물관 용도로 매입한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65㎡ 규모의 개인 주택을 리모델링해 제공했다. 수원시는 앞으로 고은문학관으로 건립해 인문학 육성에 나설 방침이다.

고은 시인은 그동안 안성에서 30여 년간 거주해왔다. 일명 안성시대로 대표작인 〈만인보〉를 비롯해 본지 창간 연재소설 〈수미산〉 등 130여권의 저술을을 펴냈다.

고은 시인은 "안성에서 살며 저술한 것들이 서울 시대의 것들을 능가한다. 이제 수원 시대의 문학활동이 절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 시인은 향후 〈처녀〉, 〈운명〉 등과 함께 〈수원시편〉을 집필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점자불경 공부… "종교 갈등 해소 글 쓸터"

〈불교문예〉 가을호 당선 시각장애인 조재훈 씨

"모기보시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자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사상이죠. 그런 면에 불교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은 점자책으로 〈부처님의 생애〉 〈법화경〉 등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불교문예〉 가을호에 동화 '옻샘'으로 당선된 조재훈 씨(72)는 시각장애인이다. 고희를 넘긴 나이지만 그는 여전히 점자책으로 글을 읽고 시각장애인용 특수 컴퓨터로 글을 쓰는 성실한 작가다. '옻샘'은 아토피를 앓는 도시 아이가 시골 할머니댁에 머물며 옻샘물로 병을 이겨낸다는 이야기다. "지난 3월 불교문학창작교육원에서 불교적 글쓰기 공부를 했어요. 수업전 기도문을 읽는 것이 무척 마음이 편하고 좋았어요. 이렇게 등단까지 하게 되니 무척이나 기쁩니다."

그는 2005년 〈모기보시〉라는 사찰 배경의 동화로 책을 낸 바 있을 정도로 불교에 관심이 많다. 글을 쓰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결심을 하며 글쓰기에 매진하게 되었다. 조 씨는 "앞으로 종교간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써보고 싶습니다." 정혜숙 기자



"학생들 위한 도서관 기금으로 써달라"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 5000만원 동국대에 기부

일운 스님은 8월 28일 오전 11시 김희옥 동국대 총장을 찾아 5000만원을 전달하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구입에 사용해달라고 밝혔다.

김희옥 총장과 정창근 경영부총장, 중앙도서관장 계환 스님, 이창학 대외협력실장, 박세훈 학술정보관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일운 스님은 "동국대는 불교계가 세운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라며 "학생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일운 스님은 1969년 경북 청도 운문사에서 출가했으며 1991년부터 울진 불영사 주지로 부임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전국 비구니선원 선문회 부회장, 울진사암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일붕선원 법해 스님 주지 진산식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8월 27일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신임주지 법해 스님 진산식을 봉행했다. 일붕선원은 종단 창종주인 일붕 서경보 스님이 1987년에 창건한 사찰로 이번에 새롭게 복원됐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지공 스님, 원로의장 혜천 스님, 총무원장 경원 스님, 원로위원 원각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종도 200여 명이 동참했다.

종정 지공 스님은 법어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넘어 종단화합과 평화사상 발현을 위해 일붕선원이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주지 법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일붕존자님의 역사이며 종단의 상징인 일붕선원의 법등을 밝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원로의장 혜천 스님, 총무원장 경원 스님, 원로위원 원각 스님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제1회 원주 전통판화 공모전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이 "제 1회 원주 전통판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의 미와 정서를 주제로 한 전통판화와 창작판화, 생활판화 분야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다.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참가비도 무료다. 수상자에게는 문화재청장상(상금 일백만원)과 원주시장상(상금 오십만원), 고판화박물관장상(상금 이십만원)이 주어지며, 선정된 작품들은 원주 고판화박물관 특별 전시실에서 한 달간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판화박물관 홈페이지(www.goapnhwa.or.kr)와 전화(033-761-788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현진 기자

참회의 눈물로

승단의 생명은 청정과 화합에 있습니다.
무슨 염치로 참회의 눈물을 보여야 합니까

씻을 수 없는
속 보이고 냄새나는 추한 짓들에
숨 막히고 숨 쉴 수 없는 종단 현실
눈뜨고는 말 할 수 없는 절망의 한숨 소리가
보이지가 않는단 말 입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까

인연법과 인과를 믿고 봉사하여야 할
출가 수행자들이여
정직 겸손 정의로워야 할 수행자들이여
자기 자신을 속이고 대중을 기만하는
것일까요

눈 감아 주고 침묵을 하는 것입니까
내 몸의 썩은 부위도
아픔의 고통이 있어도 수술하여야 합니다.
치료의 고통이 두려워서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똥은 비단으로 싸도
그 냄새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타버린 씨앗을 심어서는
싹이나 열매를 구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정의는
위선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거울이 되고 역사의 등불이 되어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 역사 사회 속에
신뢰와 사랑받는 불교 본연의 승단을
만들어야 할 출가 수행자들이여
보고도 눈감아 주고 침묵하시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참회의 눈물로 발원 드립니다.

대우 합장
02)3210-0108. 010-2625-3307



대만 불광산사는 8월 28일 운제루에서 공승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법회가 끝난뒤 휠체어를 탄 성운대사가 사부대중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


공승법회에 참가한 스님들에게 공양 선물을 올리는 장면. 이 자리에는 26개국에서 참가한 사부대중 7천 명이 참여했다.


화려하면서도 품위가 있고 단조로운 듯하면서도 세련미가 묻어나는 보살무 축하공연.

공양은 곧 수행… 평등정신 깃들어

대만 불광산사 공승법회

"출가는 인생 행로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출가는 일시고 신앙은 일생의 일입니다. 오늘 출가의 발심을 일으킨 여러분들은 중생제도를 위해 몸 바치겠습니까?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겠습니까?"

8월 28일 대만 불광산사 공승법회에 앞서 여래전에서 15명의 출가 삭발수계식과 69명의 임제종 법맥 전수식을 함께 개최했다. 출가한 가족들과 2,000여 대중들의 진심 어린 축하와 기쁨은 한국의 분위기와 사뭇 달랐다. 출가의 기쁨인 것이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타이페이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타이페이에서 불광산사 본산이 있는 카오슝까지는 버스로 4시간 가량이 소요됐다. 불광산사 옆에 티베트에서 기증받은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시기 위해 건립된 불타기념관을 들어 선 첫 느낌은 그야말로 불국토(佛國土)였다.

부처님께서 상주하시고, 평화와 즐거움이 가득한 불교적 이상세계. 불자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세상. 사람 몸 받아 꼭 한 번만이라도 살아있는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는 사바세상의 꿈. 그 불국토가 지금 눈 앞에 펼쳐진 듯 그 장엄함과 웅장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한 쪽에서 한 노스님이 훌쩍인다. 너무 감동한 나머지 내비친 환희심이 눈물로 흘러 내린 것이다. 감정을 수습하기도 전에 공승법회가 개최되는 불광산사로 발길을 향했다.

공승법회를 앞 둔 탓인지 그 웅장한 사찰이 비좁은 듯 참배객으로 가득했다. 갖가지 화려한 복식을 차려 입은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 세계 각지에서 방문한 스님 · 불자들의 행렬도 분주하다.

안내하는 지객스님을 따라 먼저 도착한 곳은 여래전이다. 공승법회 행사의 일환으로 '2013공승법회기체도전법대전(삭발수계식과 임제종 49대 법맥전수법회)' 등이 먼저 진행됐다.

불광산사의 성운대사, 前주지인 심정 스님, 심배 스님, 현 주지인 심보 스님, 부주지 혜개 스님 등을 증명으로 법회가 진행됐다. 이날 출가한 15명의 출가자들의 국적도 다양했다. 호주, 영국, 브라질, 필리핀, 싱가폴, 대만 등이다. 불광산사의 법의 폭이 가히 세계적 규모임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임제종 49대 법맥 전수식에는 영축산불교교단 창건주인 심도 스님을 비롯 69명이 법을 이어 받는 행사를 끝으로 공승법회 장소로 발길을 옮겼다.

2013공승법회는 운제루에서 개최됐다. 공승법회는 말 그대로 신도들이 스님께 공양물을 올리는 법회다. 국내의 대중공양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대만은 이것을 법회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제루는 한 번에 3,000명이 동시에 공양할 수 있는 식당이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실내 공간은 놀라울 정도의 규모였다.

이날 공승법회에는 세계 26개국, 스님 800여 명, 7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특히, 한국 스님들도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양 올리는 신도들 중 한복을 입은 행렬도 눈에 띄었다.

공양법회의 형식은 간단했지만 장엄했다. 성운대사의 입장으로 공양법회는 시작됐다. 갖가지 화려한 복식을 차려입은 신도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스님들 앞으로 다가서서 정성스레 음식 공양을 올렸다.

공양 중 성운대사는 "공양 역시 중요한 수행이다. 지금 우리가 공양을 하지만, 쥐도, 벌레들도, 새들도 함께 공양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양에는 평등의 정신이 있다"며 대중의 웃음을 자아낸 후 "공승법회를 잘 전승하기 위해 향후 유네스코에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계획이며, 인간불교, 생활 불법이 전세계에 펼쳐져 세상사람들이 더욱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스님께 공양물 올리는 법회 의식
세계 26개국 사부대중 7천명 동참
수계법회 · 임제종 법맥 전수식도

법문에 이어 오백웅 명예신도회장은 인사말에서 "작은 불광회가 전세계에 꽃을 피우고 있어서 기쁘다"며 "전 세계인이 공승법회를 통해 서로 친해지고 선연을 맺고 불법을 실천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오 회장은 "성운대사의 생월이 음력 7월이다. 생일법회를 한사코 마다해서 생일인 7일 후에 공승법회를 오랜 기간 개최해 왔다. 대만에서 음력 7월은 귀신의 달로 좋지 않은 달이지만, 성운대사로 인해 효도의 달이 되고 세계의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승법회가 개최되는 행복한 달, 7월이 됐다"며 공승법회의 유래에 대해 설명했다.

화려하면서도 품위가 있고 단조로운 듯하면서도 세련미가 묻어나는 보살의 형상과 수인을 연상케 하는 보살무는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해학적인 내용을 담은 듯 중국전통놀이를 끝으로 축하공연이 끝나자 재차 신도들이 줄을 지어 스님들께 공양물을 올리는 것으로 공승법회는 막을 내렸다.

부산에서 공승법회에 참석한 무명 스님은 "대만 불자들의 신심과 대만 스님들의 원력을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대중공양법회였다"며 "한국불교의 기도와 수행도 중요하지만 생노병사 등 모든 순간에 신도들과 함께하는 생활불교의 실천과 중생구제의 원력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경주에서 온 심란선 보살은 "불자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며 "몸소 행동하고 실천하는 행이 중심이 되는 대만의 생동감 있는 불교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고, 웅장하고 장엄한 법회에 참가하는 내내 환희심이 가득했다"고 말했다.

부산 기장에서 온 대한 스님은 "성운대사의 큰 원력에 감복했다"며 "인간의 몸으로 이토록 장엄한 불사를 성취해 큰 감명과 신심을 얻게 해 줘서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정순 씨는 "전세계 수백 명의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공양법회를 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며 "공승법회에서 받은 감명과 감동을 잘 간직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4박 5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광산사, 자재공덕회, 중대선사의 면모를 들여다 보면 대만불교가 이룩한 업적이야말로 바로 사바의 꿈, 불국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바로 그 불국토에서 부처님과 함께 하는 불사에 동참하기 위한 출가가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대만 불광산사=박경수 부산지사장


공습법회에 앞서 열린 임제종 49대 법맥 전수식(사진 오른쪽)과 수계식 장면(사진 왼쪽).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 · Ⅱ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춘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추천 도서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다면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찬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과를 이룬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감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포교 · 신행 소식

풍경소리 2학기 명상특강 개강

명상과 심신치유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한 강좌가 열린다. 지하철 풍경소리(대표 혜자)는 9월부터 명상문화 보급을 위한 2학기 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스스로 하는 몸 치유법을 배우는 '조현의 몸치유 교실'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풍경소리 화가인 박준수 화백의 '마음그리기 교실' '미술 쌩초보교실' (매주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 △나와 당신을 이해하는 동양의 지혜 '명상 에니어그램' (9월 4일개강,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등으로 꾸준하게 인기를 얻는 강좌들이다.

이밖에 풍경소리는 3개 강좌를 신설했다. '송탁 스님의 담마 이야기' (8월 28일 개강)는 아비담마와 일상에서의 의식 작용을 심도있게 다루며, '임수연의 영어 & 인생 자신감 프로젝트' (9월 9일 개강)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강좌다.

또한 월 3회 무료특강을 진행하는 풍경소리는 9월 24일 · 10월 1 · 8일 '명상 마사지' 라는 주제로 물리치료 및 중국 무술 전문가와 함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02)736-5583

이나은 기자

조계사, 관음전 준공 · 관세음보살 점안

9월 5일 100주년기념관 2층 조성

신도들의 안정적인 기도 공간 확보를 위해 조성된 조계사(주지 도문) 관음전이 오는 9월 5일 오전 8시 30분 준공된다. 주불로 봉안된 관세음보살상 점안식도 함께 봉행된다.

조계사 측은 지난 2011년 인수한 삼오모텔을 전면 리모델링해 탄생한 도심 포교 100주년 기념관 2층에 관음전을 조성했다. 약 200㎡(60여 평) 규모에 최대 150여 명이 동시에 법회를 봉안할 수 있는 관음전에는 주불인 관세음보살상과 99존 관세음보살상이 봉안됐다. 99존 관세음보살상은 과거, 현재, 미래에 상주하는 33관세음보살을 각각 상징한다. 또한 천수천안을 상징하는 1000개의 인등을 밝혀 신도들의 소원성취와 기도정진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맞은편 건물 2층에 위치한 관음전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름다리를 설치해 신도들의 편리를 최대한 배려했다.

이날 주불로 점안되는 관세음보살상을 비롯해 100기의 관세음보살상에는 모두 주지 도문 스님이 직접 사경한 100편의 반야심경과 5500여 신도들이 동참한 발원문이 복장물로 봉안됐다. 99존 관세음보살상 점안식은 오는 9월 7일 봉행된다.

신중일 기자

서울메트로법우회 9월 10일 음악회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에서 근무하는 불자모임 '서울메트로법우회(회장 이종성)' 는 9월 10일 오후 7시 서울메트로 교육문화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제1회 시민 · 고객과 함께하는 행복바라미 음악회' 를 개최한다.

음악회는 무명초악단(남효석), 색소폰(이종섭), 벨리댄스(전소라), 사물놀이(현정석), 대금연주(이완영), 락가수(최정훈), 보컬그룹(홍승록), 관문사금강불교합창단 등 메트로법우회 회원과 일반 직원, 불교합창단 등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치게 된다.

서울메트로법우회는 "이번 음악회는 서울메트로의 안전을 기원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고객들과 하나 되고 법우회 회원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동국대 국제선센터 불교 영어강좌 진행

동국대 국제선센터(선원장 수불)는 '9월 불교영어강좌' 를 진행한다.

9월 5일부터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불림 스님이 틱낫한 스님 〈The heart of the Buddha's Teaching〉을 교재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알기 쉽게 영어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부터 강의한다.

일반인 · 학생 모두 신청가능하며 이메일(ysoo@dgu.edu)로 신청가능하다. (02)2260-3891

조계사, 지역주민과 '상생동력' 가동

마을공동체·협동조합 사업 시작

마을공동체가 최근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삭막한 현실에 지친 사람들이 다시금 이웃 간 연대와 협동정신을 복원하기 위해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도문)는 이런 추세에 맞춰 불교계 최초로 마을공동체사업과 협동조합을 운영해 지역주민과 상생을 도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조계사가 운영하는 마인드 케어 평생교육원은 2012년 5월, '행복한 마을 만들기' 를 주제로 도시마을공동체 실무과정을 운영했다. 이 곳 수료생들과 종로 지역법회, 대한불교청년회 회원들 가운데 마을공동체 활동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행복마을센터(센터장 서양희)' 를 발족하고 서울시 종로구와 2012년 7월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마을공동체를 꾸려나가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 첫 사업이 '수송공원 마을공동체-빌딩숲속 이웃사촌' 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조계사 인근 수송공원에서 주민, 직장인, 상인을 대상으로 △마을 민속놀이 △나눔장터 △작은음악회 등을 정기적으로 열어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높지만 방치되고 있는 수송공원을 지속 관리해 테마가 있는 장소로 만들고, 더불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행복마을센터와 조계사 청년회는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정오에 '마을 민속놀이' 를 열어 윷놀이와 제기차기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참가자들 가운데 우승팀에게는 상품을 증정해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생필품, 옷, 사무용품, 도서 등을 물물교환하거나 판매하는 '나눔 장터' 도 운영한다. 이 밖에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1~2시에는 개인 · 단체로 신청을 받아 소규모 연주회 및 장기자랑을 개최한다.



직장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수송공원에 하나 둘 씩 모여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상상밴드' 의 공연을 구경하고 있다. 이같이 조계사 행복마을센터는 인근 수송공원에서 주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민속놀이, 작은음악회, 장터 등을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조계사 '행복마을센터' 설립
2012년 7월 종로구와 업무협약
수송공원서 장터 · 음악회 열어
봉제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서양희 센터장은 "수송길은 현재 많은 빌딩 속에 직장인들과 식당, 상가 등 지역주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제 수송공원은 이웃사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휴식처이자 나눔처가 되기 위해 조계사에서 작은 노력을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행복마을센터는 '행복마을 협동조합(이사장 도문)' 을 설립하고 종로구 창신동 봉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양희 센터장은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교류 하던 중 아이들 엄마가 대부분 봉제업에 종사한다는 걸 알게 됐다. 현재 중국 및 동남아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이전돼 창신동 일대가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전락한 상태였고, 영세봉제업 종사자들은 일정하지 않은 주문과 저가격 수주로 생활고를 겪는 상황"이라며 "장시간 노동으로 가정을 돌볼 시간이 부족해 육아시간은 턱없이 모자라고 청소년 탈선도 우려되며 부모의 건강상태가 위협받아 가정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잠재적인 문제가 보였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행복마을 협동조합은 봉제업에 종사하는 창신동 주민들의 자활을 위해 종로구 이화동 벽화마을에 종로구로부터 전세금을 지원 받아 9월 말경 봉제작업소를 개소한다.

행복마을 협동조합은 초기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계사 승복과 버선 등을 제작해 물량을 소화하는 등 봉제의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유아나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디자이너가 리터칭해 인형으로 구현하는 '맞춤형 인형사업' 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 판매상품' 을 개발해 조계사 및 조계종 산하 사찰에 유통 · 판매할 예정이다. 이밖에 친환경 소재로 고급 여성속옷 상품을 만들고 브랜드를 개발해 사업을 추진한다.

서양희 센터장은 "이번 사업들을 계기로 불교계가 지역 어르신과 청장년 · 여성 · 어린이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길 바란다"며 "협동조합의 수익금은 향후 비구니 스님이 아이들에게 '숲 교육' 을 할 수 있도록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한 '숲 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에 쓰고 싶다"고 말했다. (02)732-2183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무봉 스님 반야심경 강의 CD 발매

춘천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서 진행된 내용 모아

춘천불교방송에서 인기리에 진행된 '무봉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 가 CD 〈연잎 위의 청개구리〉로 발매됐다.

〈연잎 위의 청개구리〉는 무봉 스님(홍천 무봉사 주지)이 춘천불교방송에서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강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홍천 무봉사라는 토굴에서 연 밭을 일구며 정진 중인 성묵 무봉 스님은 1987년 화엄사에서 출가했다. 이후 해인정사 등 여러 선원에서 정진한 뒤 무봉사에서 수행 중에 있다.

스님은 춘천불교방송(영서지역 100.1Mhz/영동지역 93.5Mhz)에서 진행하는 '무명을 밝히고'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수행한 내용을 강의했다.

춘천불교방송 김충현 PD는 "강의 당시 강원지역 불자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CD 제작 요청이 빗발쳐 음반으로 제작하게 됐다"며 "스님의 강의는 기존 반야심경 강의와는 완전히 맥을 달리하는 새로운 강의로, 스님의 수행 내용이 오롯이 반영돼 스님만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내고 있다. 추후 반야심경 강의는 책으로도 제작해 불자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봉 스님은 현재 춘천불교방송에서 매주 수 · 목 · 금 오후 4시 40분부터 20분간 '금강경 강의' 를 진행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평화재단 2030 리더십 아카데미 모집

10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법륜 스님, 윤여준 등 강연

2030세대의 가치를 재발견해 새로운 청년리더십을 이끌어 내는 강좌가 열린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제6기 청년리더십아카데미' 를 10월 1일~12월 3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에서 진행한다.

방황하는 청춘들을 위해 법륜 스님, 윤여준, 김제동, 박경철, 홍세화, 김진혁 등 10명의 멘토가 강의를 펼친다.

강좌가 열리는 첫째 날 김대규 변호사의 '청춘의 재발견, 시대와의 동행' 을 시작으로 △법륜 스님의 '통일신라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리더십' △박원순 서울시장의 '나는 시장이다_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윤여준 평화재단 교육원장의 '2012년 그 후, 다시 정치를 말하다'



△김제동 방송인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법' △박경철 경제평론가의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 △심상정 정당인의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 등이 진행된다. 모집은 20세부터 만 35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9월 1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02)6925-0522

이나은 기자

금강경요해 金剛經了解 화제의 신간

반야, 깨달음의 지혜로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 요해
금강반야, 깨달음의 지혜와 경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을 향한 소중한 지침서
♣ 깨달음의 경계와 자기 점검
♣ 깨달음 세계가 이 책 안에 있다.
♣ 반야지혜로 밝힌 금강경의 지혜세계
♣ 법인지(法印智)로 깨달음을 여는 길
♣ 아뇩다라삼먁삼보리는 수행 성취의 지혜가 아니다.
♣ 무엇이 깨달음이며, 깨달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 깨달음의 지혜 여래의 뜻을 밝힌 금강반야바라밀경의 실체
♣ 일각요의(一覺了義)로 꿰뚫은 금강경요해
♣ 금강 실상과 부사의 공덕세계를 드러낸 지혜의 가르침
♣ 불지혜 최고최상의 깨달음,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 경계는 어떠한가?
♣ 무위실상 일성원융 본심과 본각과 본성의 세계



신국판 / 456쪽 / 정가 25,000원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이해하기 어려운 무위실상 불법과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의 실체와 본심, 본성, 본각의 일성원융 법계를 금강경요해 강의의 인연으로 누구나 깊은 불법대해를 이해하고, 아뇩다라삼먁삼보리 깨달음에 들도록 금강반야바라밀 지혜와 깨달음의 세계에 대한 수행 경계와 자증의 세계를 정성으로 세심히 살피어 깨달음과 불지혜를 향한 누구에게나 소중한 지혜의 가르침, 금강경요해 인연 공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상각 불지혜 청정한 믿음과 불법 실상과 청정본심을 깨달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누구나 빠짐없이 성취하시기를 바라옵고, 자성불을 원만히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염원하며 발원합니다. – 대구시 불국정토 세웅스님 –

※ 법보시 주문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한글 법화경



一大事 因緣

이 세상(三界)이 편한함이 없는 것은 마치 불난집과 같으며, 많은 괴로움이 가득차서 가히 힘이 겁나고 두려우니라... 그 가운데 중생은 모두 바로 나의 아들이거늘 ...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구원하고 보호 하느니라!

한글 법화경은 구마라집 한역 묘법연화경을 한글로 풀이한 경전이다. **법화경은 불성(佛性)인 참 생명의 영원실상을 명쾌하게 들어내어 인간의 상상을 뛰어 넘는 경전으로 대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힘 그 자체라 하겠다.**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여의케한다. 우주와 같은 마음을 직시하고 법화경을 되풀이하여 읽고 쓰면 더욱 참 맛이 우러나오는데 영원한 생명의 노래가 된다. 매일 읽고 쓰게된 공덕은 불가사한 현상의 기적으로 실제 일어나 신비의 체험은 다반사(茶飯事)며 삼세제불 부처님의 축복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은 실천적인 생활불교의 이정표이며 신앙적이라 영험실화가 가장 많음을 알게 될것이다.

중생이 본래 부처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라. 큰 법을 온세상에 널리펴라. 법화 행자여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송월스님옮김 / 신국변형판 / 584쪽 / 정가 2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서울노인영화제 본선 발표…총 36편 진출

2008년 시작한 영화제 매년마다 응모편수 늘어나



서울노인영화제 본선작 '할아버지의 호루라기'의 한 장면(좌). 감독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실제 주연배우로 등장시킨 영화 '123㎞'의 촬영장면(우).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대표적 노인문화축제인 서울노인영화제가 개막 20여 일을 앞두고 본선 상영작과 프로그램 일정을 공개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희유)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노인 감독에게는 꾸준한 작품 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젊은 감독에게는 노인문화에 대한 다양한 고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08년 11월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영화제는 2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7월 31일까지 출품작을 공모했다. 만60세 이상의 감독이 연출한 자유주제 부문, 만 60세 미만 감독이 노인세대 및 문화를 주제로 연출한 노인주제 부문 영상공모전을 통해 140편의 영화가 접수됐다.

지난 제 4회 91편, 제 5회 124편 등 해를 거듭할수록 영화제에 대한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는 예선을 거쳐 총 36편(노인주제 21편, 자유주제 15편)의 영화가 본선에 진출했으며, 장르도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뮤직드라마 등 다양하다.

노인의 고민과 삶 담아내

제 6회 서울노인영화제는 노인세대와 함께 그들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이자 자리가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노인, Knowing!'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36편의 본선작들은 슬로건에 맞게 노인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하는 작품들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노인을 주제로 한 '할아버지의 호루라기(감독 김병열)' '123㎞(감독 김미경)', 자유주제로 '손길(감독 김문자)' 등이 눈여겨 볼만하다.

'할아버지의 호루라기'는 2013년 제3회 충무로단편영화제 개막작으로 아동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주변에 만연한 '4대 사회악'의 불감증을 한 노인의 시각과 죽음을 통해 고발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123㎞'는 10여 년을 돈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던 모녀가 고물트럭을 타고 엄마 집으로 향하는 123㎞의 여정을 담았다. 독실한 불자인 김미경(25) 감독은 전문배우가 아닌 실제 어머니와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출연시켜 리얼리티를 최대한 살려 눈길을 끈다.

'손길'은 안마나 침술봉사를 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진솔한 접근을 통해 그들을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고자 시도한 작품이다. 감독인 김문자(67) 어르신은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한 '내일행복학교 2기 창의직업아카데미 영상제작 교육' 수료 후, 서울노인영화제에 출품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김 어르신은 처음 영화 촬영을 배우고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제 예심 심사회의 때 시나리오 작성 및 연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9월 30일 개막…탑골미술관서 특별전도

제 6회 서울노인영화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열린다. 본선 진출작 36편은 6개 섹션에서 3일간 총 3회에 걸쳐 무료상영 된다.

행사 첫 날인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개막식을 비롯, 개막초청작을 상영한다. 또한 본선 상영작 감독에게 서울시 표창장 시상식이 진행된다. 개막초청작으로는 대만 영화 '달려라, 그랜드 라이더스'가 상영돼 향후 아시아를 넘는 국제 영화제로서 시발점을 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같은 날에는 영화제 참여 감독들과 내빈, 관계자가 함께하는 '개막 리셉션' 시간도 갖는다.

둘째 날에는 노인 감독과 청년 감독이 서로 토론하는 '열혈대담', 영화를 본 관객들과 감독들간 대화를 나누는 'GV: 감독과의 대화' 등이 열린다.

마지막 날인 10월 2일에는 특별상영작 '아버지의 이메일(한국)' 상영 후 폐막식과 시상식으로 마무리 된다.

'부러진 화살' '남부군'의 정지영 영화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아 신인감독, 영화평론가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서울노인복지센터는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관내 탑골미술관에서 서울노인영화제 특별전시전도 마련한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희유 스님은 "제6회 서울노인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노년세대는 삶을 되돌아보고, 청년세대는 노인의 삶에 한 걸음 다가가 서로 알아가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2)6911-9500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성북장애복, 스페셜올림픽서 '金' 4개


성북장애인복지관 배드민턴 선수단 4명이 배드민턴 종목 전 부문에서 총 8개의 메달을 땄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이 '제10회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 하계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8월 21~23일 수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세계 3대 올림픽 중 하나인 스페셜 올림픽으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대회이다.

올해 처음 한국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한 성북장애인복지관 6명의 선수단(선수 4명, 코치 2명)은 배드민턴 종목의 혼합복식, 남자복식, 남자단식, 여자단식 경기에 출전해 전 부문에서 메달을 땄다. 서울시 대표 선수로 활동 중인 김한성 학생을 비롯해 4명의 선수들은 각각 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총 8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올해부터 생활체육사업을 도입해 배드민턴, 탁구, 볼링 등 여러 종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배드민턴의 경우 전문반을 운영해 다양한 대회 참여를 통한 자존감 향상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배드민턴 전문반은 이번 대회 참가가 외부 대회를 통틀어 세 번째일 정도로 신생 팀이지만 매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스페셜올림픽에서 다른 선수단 코치 및 감독들로부터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인정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 김병수 생활체육교사는 "대회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경기 능력이나 집중력이 향상되고 목표의식을 가지는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대보다 좋은 성적을 얻어 기쁘다"며 "학생들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제대회에서의 활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운동을 통해 성장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장애 학생들의 모습을 앞으로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대나무교실, 다문화어린이 추석예절 강의

차례지내기, 한복입어보기 등 체험


한복입어보기, 삼색송편 만들기 등 다양한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

(사)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 대나무교실은 이주여성과 다문화어린이들을 위한 추석맞이 예절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4월 7일부터 다문화아동교실 '날개 달아주기' 사업을 실시한 대나무교실은 9월 1일 야은 예절학교에서 지역 다문화어린이를 대상으로 추석 차례지내기, 한복입어보기, 삼색송편 만들기 등 다양한 한국의 전통을 소개했다.

'대나무 교실'은 2013년 여성가족부 지역다문화프로그램에 선정돼 다문화 아동교실 '날개 달아주기'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아동들에게 심리치료검사,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나은 기자

송산실버문화센터,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8월 23·26일 진행, 70여 어르신 지원받아


홀몸어르신에게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송산실버문화센터(관장 최재혁)는 8월 23·26일 2회에 걸쳐 지역 홀몸어르신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A+그룹의 지원 및 MBC뷰티아카데미와 의정부 한국프로사진협회(지부장 신용창)의 재능기부로 마련됐으며, 70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이날 사진촬영을 위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온 한 어르신은 "영정사진을 찍으려면 촬영비와 앨범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무료로 영정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불암사(회주 일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산실버문화센터는 매년 후원업체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무료로 영정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 사회 내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교실, 건강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031)852-2595

이나은 기자

동자승 같은 우리 스님 도와주세요

생명나눔, 9월 선정환자 시연 스님(34세·급성 골수성 백혈병)


시연 스님(남·급성 골수성 백혈병)

어릴 때부터 영특해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자란 아이가 있다. 아이는 아픈 사람을 돕는 약을 연구하기 위해 약대에 진학했다. 대학시절 삶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한 학생은 출가해 스님이 됐다. 열심히 수행 정진하던 시연 스님은 올해 1월 사형사제지간인 시공 스님과 쌍봉사에서 수행 중 갑작스러운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평소 건강했던 스님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 시연 스님은 조용히 병마와 싸우려 했으나, 상황이 악화돼 속세 가족들에게 위탁하기 위해 사정을 알아봤다. 하지만 하루하루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부모님과 갑상선암으로 투병중인 형의 사연을 듣고는 희망마저 접어야 했다. 사보험도 없었던 스님은 지난 4월 1차 고용량 항암치료를 받았고, 치료비 4백만원은 고스란히 빚이 됐다. 시연 스님은 향후 6개월간 고용량 항암치료를 병행하면서 조혈모세포이식술도 해야 하는데 전체 치료비만 2천 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생명나눔) (02)734-8050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불교조계종의 종풍은 계율청정한 율종의 가풍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여 세계인들의 마음에 안심을 구현하고 세계질서의 평화로운 세계와 불국정토의 세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역사적 사명을 띄고 정법 구현의 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 종단에서는 승려전문 노인 병원, 종단사업(건설, 출판, 홍삼, 기타사업 등)과 복지타운을 건립해 다양한 승려노후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해 나갈 것입니다.

총무원장 혜인 합장

입종및사찰등록안내

◆ 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 승적원부 (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 승적증빙서류 (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 사찰 전경, 내 외부 사진 각 1부
· 반 명함 사진 5매 (대가사를 수한 사진)

◆ 참고사항 ◆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 총 무 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 135-887
● 총 무 국 : (02)511-2026~7 팩스 : (02)511-2028
● 종단사업부 : 02)549-1918
●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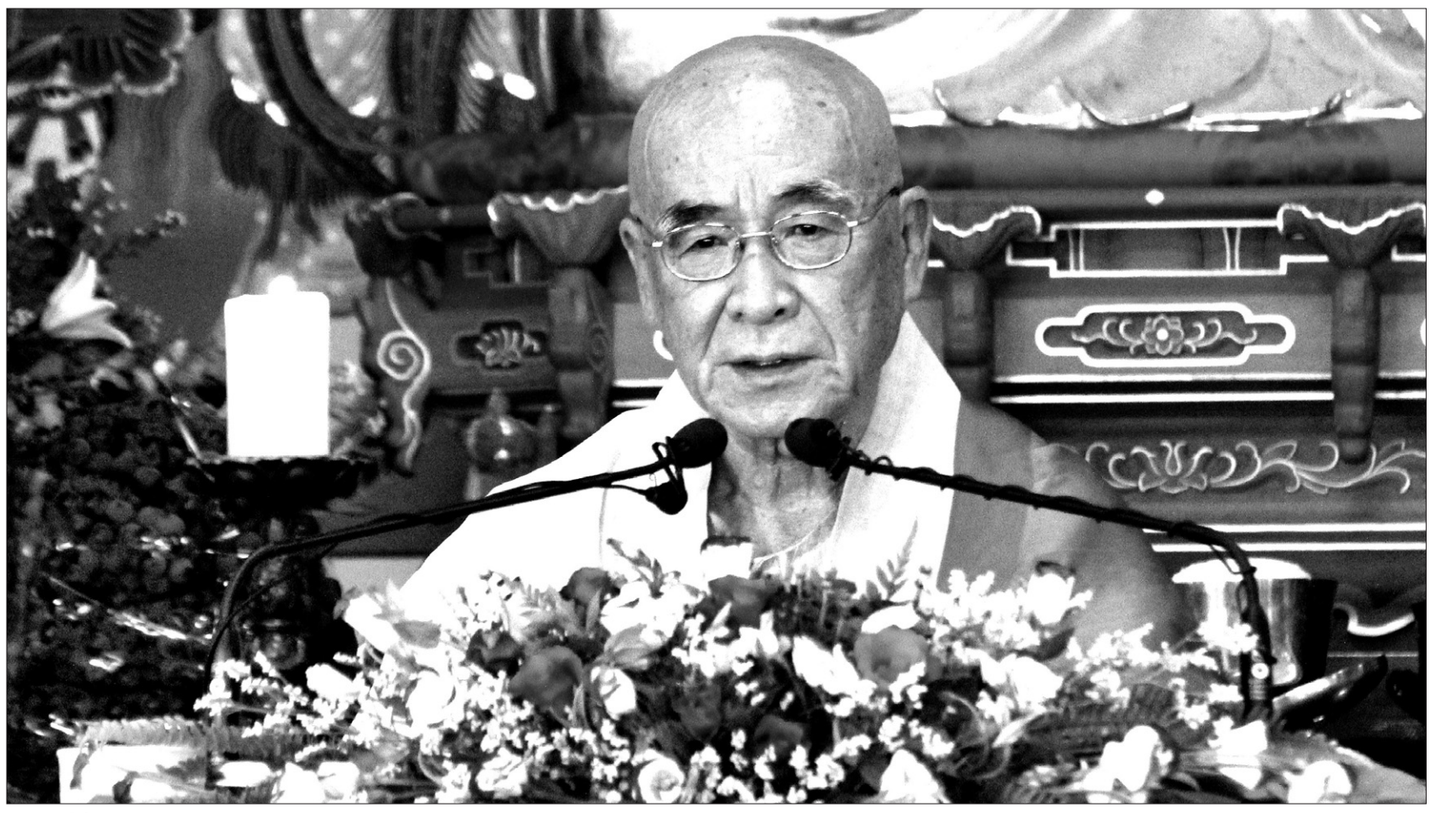
“不二品 삶 실천하면 번뇌 딱지 떼어져”

범어사 지장재일 법회

홍선 스님(범어사 교수사)

스님은 번뇌를 두껍고 질긴 딱지라고 표현했다. 번뇌의 딱지를 한 꺼풀 벗기러 법당을 찾은 불자를 위해 8월 24일, 범어사 교수사 홍선스님은 유마경을 주제로 번뇌의 사바세계를 벗어나 정토에 나는 법을 설했다. 스님이 법문에서 강조한 건 중생과 보살의 구분을 두지 않는, 차별없는 일심이었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홍선 스님은 … 1953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사미계를, 1965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7년 범어사승가대학 수료 후 일본 화원대학에 유학했다. 일본 경도불교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및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일본 동경대학교와 경도대학교 인도철학과도 수료했다. 미국으로 건너가 LA 유니온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시카고 KAECE대학과 중앙승가대 교수를 역임했다. 2002년 중앙승가대학교 초대 대학원장을 지냈다. 현재 금정총림 범어사에 주석하고 있으며 범어사 교수사를 역임하고 있다.

번뇌는 검은 구름과 같아

마음이란 건 번뇌로 꽉 차있기 마련입니다. 번뇌라는 건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기에 없애기도 힘들죠. 흡사 검은 구름처럼 마음을 덮고 있으니까 쓸어내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바닥에 번뇌가 깔려있기에 좋은 생각을 하려해도 할 수가 없어 온갖 업을 짓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흥분하거나 화날 일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당에 와서 지장보살을 염하고 있으면 그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지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업이 씻어지고 번뇌가 서서히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법당에 앉아 있을 때는 마음이 맑다가도 나가는 순간부터 온갖 번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발을 챙겨 신을 때부터 누가 자기 신발을 밀어놨나 하며 투덜거리고, 공양하러 갈 때도 무슨 줄이 이렇게 기냐며 혹여 누가 자기 앞에 서려고 하면 새치기 하지 말라고 쏘아댑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번뇌를 일으키고 번뇌에 힘을 줍니다. 번뇌의 딱지가 두껍고 질기다 보니까 쉬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이러한 번뇌, 즉 탐진치를 걷어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종교나 가르침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불교에만 있습니다. 지장보살을 정근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장보살을 염하며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 번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을 생각하며 마음을 좌정한다면 번뇌가 범접하지 못하고 이를 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가 맥을 못 쓰게 하고 싶다면 지장보살을 부르십시오.

어디서나 자비향이 나는 곳

불교에서는 부처님 전에 향을 꽂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처럼 예경의 뜻을 담아 향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5천년도 더 된 아주 옛날, 신과 소통 하고 싶은데 아주 옛날에 살던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자기 맘대로 되는 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인생사가 즐겁다가도 힘들기도 하니까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신의 영역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좋은 향기가 나는 나무를 태워 연기를 피워올리면 이게 하늘에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도, 도량을 맑고 깨끗하게 하고자 할 때도 향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향은 부처님의 세계와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두 손 모아 공경하는 한 마음으로 향을 올리는 것이죠.

오늘 법문 주제도 〈유마경〉의 ‘향적불품’ 입니다. 향을 아주 많이 쌓아놓은 부처라는 뜻입니다. 향적불이 계시는 곳은 어느 곳에서나 좋은 향기가 나고 말하는 사람 입에서도 향기가 나는 세계라고 합니다.

어느 날 유마거사가 몸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부처님이 위문차 제자들을 유마거사께 보냅니다. 많은 스님들이 앉아계신 가운데 유마거사는 깊은 삼매에 들게 되죠. 그리고 그 신통력으로 대중에게 어떤 부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이렇듯 삼매능력이 크면 모든 제자들을 함께 삼매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수행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상방의 세계를 지나 중향이라는 나라에 당도했는데 거기 계신 부처님이 바로 향적부처님입니다. 이 세계의 향이라는 건 바로 자비의 향을 말합니다.

손자들이 할머니를 좋아하는 건 할머니가 손자를 아끼고 실수해도 어루만져주고 다듬어 주시고 하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비의 표현들 때문에 손자들이 할머니 곁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유마경〉으로 돌아가, 공양을 걱정하는 사리불의 마음을 알아챈 유마거사가 신통력으로 향적부처님께 보살을 보내 공양물을 얻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것이 발우 한 그릇이었습니다. 사리불이 다시 걱정하길, 발우 하나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대중들을 다 먹일 수가 있을까 하고 염려하는데 유마거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죠. 발우에 담긴 음식을 떠내면 떠낼수록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말과 생각으로만 행하는게 아니라 자비는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결코 베풀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을 주더라도, 안쓰러운 마음과 도와주려는 마음을 먹을수록 그 공덕은 더 커지고 자비심은 더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비심이 커질 때 자신의 모든 행동과 말에서 마치 향적부처님처럼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향기가 감돌게 되죠.

그리고 유마거사가 이르기를, 분별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비향으로 가득한 음식이 소화가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역시 밥을 먹으며 간이 짜네 싱겁네 하고 투덜거리곤 합니다. 실컷 힘들여서 밥상을 차렸는데 먹는 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화가 나겠죠. 그러나 반찬가지고 투정한다면 그럴만한 여유가 있다는 얘기니까 성내지 말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으면 하는 자비심을 가지고 상대에게 부드러운 말로 얘기하십시오. 같이 화를 내면 그 음식이 소화가 될 것이며 또는 몸에 영양으로 가겠습니까.

자비심은 베풀수록 더욱 더 커져
유마거사 설한 8법 행동에 옮겨도
불국정토에 태어날 수 있어

차별없이 행하라

한편 향적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보살들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경과 공양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향적불이나 석가모니나, 중향에 살고 있는 보살들이나 사바세계의 보살들이나 보살의 지위에 오르신 분들은 차별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부처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동등한 분입니다. 교화하는 세계가 다르지만 같은 부처님인거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이나 자비나 동등하다는 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에 향적부처님은 보살들에게 이르기를, 사바세계에서 아직 보살이 되지 못한 이들이 부끄러워하거나 비굴해하지 않도록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비굴함과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대하라고 하신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즘에야 외국으로 선교활동을 하러 가는 선교사들에게 지역민들이 차별을 느끼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생존 당시에도 도움받는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가르침이 있었죠. 이게 바로 바른 자비 정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후진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을 보며 배고픈 아이들에게 과자를 던져주곤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우리나라에 주둔하던 미국인들이 꼬마들에게 비스킷과 초콜릿을 주곤 했지요. 그때 저도 어린 아이였는데 정말 먹고 싶었지만 차마 미군들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리더라도 참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어려운 나라가서 차별두지 아니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미얀마나 태국 들어가신 주위 스님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봅니다. 불교만이 옳은 길이라며 구호품으로 차별하는 거죠.

일심으로 공덕 이루는 삶

마지막으로 중향 세계의 보살들이 유마거사에게 “어떤 일을 해야 부처님 정토에 태어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유마거사는 8가지 법을 성취하면 사바세계를 벗어난다고 답합니다. 첫째, 요익중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생들을 이롭게 하되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뭔가 행하면 기대하기 마련이죠. 상대에게 뭔가를 줬을 때 아무런 감사의 인사를 못 받으면 섭섭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게 바로 보답이라고 생각하며 어떤 기대도 짓지 마십시오.

둘째, 일체중생의 고난을 대신 받고 그 공덕을 중생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회향정신입니다. 대승불교로서의 정체성과 보살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결정적으로 마지막 회향에 달려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떠올려보십시오. 평생 벌어놓은 것을 물려주고도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요즘은 부모 자식 관계가 거칠게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는 건 본질적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보답만 바라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는 건 즐겁기 마련입니다.

셋째,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가져 겸허하고 걸림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모든 보살을 부처님 대하듯 해야 합니다. 이 스님, 저 스님 차별두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다섯째, 아직 듣지 못했던 경을 들었을 때 마음을 모아서 들어보십시오.

여섯째, 남의 단점을 찾아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조복해 항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합니다.

일곱째, 다른 이들이 공양받는 걸 보고 질투하지 말고 자신이 얻은 이익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덟째, 항상 일심으로 갖가지 공덕을 구합니다.

일심이란 차별, 구별, 계산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염불을 일심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고 구별하는 마음을 접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염불하는 내가 지장보살과 마주보며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나와 지장보살이 다르지 아니하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마음을 지우고 난 그 빈 마음이 지장보살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이품(不二品)이죠. 중생과 부처의 불성이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추하다, 깨끗하다 이러한 분별을 넘어선 세계를 일컫는 말이며 불성의 세계이고 부처님의 세계며 우리 본성의 세계죠.

그리고 일심에서 한 걸음 더 걸어가 무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일체 모든 생각이 지워져서 오롯한 그것이 바로 무심입니다.

일심으로 기도를 하며 모든 공덕을 이루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담 화 문

종헌 종법의 질서를 벗어난 주장과 행동은 파(破)승가 행위로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승가는 그 자체로 화합승가입니다. 종단이 안팎의 신뢰를 회복하고 존경받는 승단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화합이 절대적 요소입니다. 그 화합은 위로는 부처님 법, 그대로를 준수하는 것이며 가깝게는 종헌 종법으로 함께 약속한 종단 운영의 틀을 지키는 것입니다.

종단은 그동안 종헌과 종법에 근거하여 각종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제는 공명선거 문화가 안착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는 향후 종단 발전과 안정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34대 총무원장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는 물론이고 선거인단, 그리고 종도 모두가 종헌과 종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종단 운영과 유지는 종헌과 종법에 근거합니다. 종헌과 종법을 준수하지 않는 주장이나 행동은 종단을 위해하는 해종행위일 뿐이며 대중의 공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종단을 위한 비판이나 지적도 종헌과 종법 내에서 이루어져야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지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단 구성원이라면 종헌과 종법 준수에 그 어떠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종단 집행부는 제34대 총무원장선거와 관련하여 종헌종법에서 벗어난 어떠한 주장이나 행동도 종단의 안정을 저해하고 화합을 깨뜨리는 것으로 보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종도 모두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종단의 지침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제34대 총무원장선거를 1,700년 쌓아 온 한국불교의 지혜로 슬기롭게 잘 치러내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4대 총무원장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하여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735-1834 팩스 : 02-735-0613

불기2557년 8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정 안

제주불자의 정신적 귀의처
제주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 매각의 즉각 철회를 요구합니다

보현사는 원래 23교구본사인 관음사가 제주의 큰 아픔인 4.3사건으로 소실되자 도남동 현 부지에 신 관음사를 신축하고 지금까지 제주불교 포교의 거점 도량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유서깊은 도량입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도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인 관음사(주지 성효스님)가 신도들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보현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보현사 매각을 즉시 철회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신도들의 뜻을 전합니다.

1.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의 정체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4.3의 광풍으로 불타버린 한라산관음사를 재건하기 위하여 신관음사로 창건된 제주시 중심인 도남동 보현사는 역사와 전통을 갖춘 유서깊은 도량이기에 매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 실현성 없는 재원 계획으로 불자를 호도 하지 마십시오.

발표자료에 의한 불사재원 100억원을 마련하는 계획을 보면 보현사 매각 40억, 정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30억 지원, 그리고 삼천불전 건립에 따른 신도 모연금 30억원으로 추진한답니다. 확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현실성이 없이 불자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3.소통과 화합 없는 밀실행정, 즉시 철회해 주십시오.

사찰운영위원회법에 의거 사찰부동산의 처분 시 신도회장등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신도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자료미공개, 투명성 없는 밀실 종무행정은 지탄 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신도일동은 보현사 매각이 중지될 때까지 온 힘을 모아 정진할 것을 밝힙니다.

제주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 매각 반대 신도대책위원회
관음사 신도회장 양방규외 신도일동

불교무형유산 집대성, 시급한 과제

8월 30일 조계종 정책세미나에서 한 목소리

"불교 유적을 비롯한 유형문화재 뿐만 아니라 무형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불교계가 앞장서야 합니다. 종령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안을 만들어 다양한 조사가 진행돼야 합니다."

조계종이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종령을 마련한 가운데 불교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가 8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 전승 정책세미나'에서 나경수 전남대 교수, 구미래 동국대 외래교수, 이채원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를 비롯한 관련 학자들은 불교무형문화유산 보존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나경수 전남대 교수는 "불교무형문화유산을 조사하고 등록하는 사업은 10년 이내 완성될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디지털아카이브, 웹서비스, 전승인력 교육프로그램 등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밀했다.

나 교수는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 및 등록에 대해 "단기, 중기,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연차별, 지역별 조사대상에 대한 단계별 진행시스템 마련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방안 수립 △사업진행및 전승, 보존,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산출및 확보 방안 강구 등을 제안했다. 또 △디지털아카이브, 디지털문화지도, 웹서비스 등에 대한 기반과 계획 준비 △전

인력 확보 및 교육방안 마련

전승 보존 관리 예산 확보

디지털화 기반 준비 요청도

사하촌 등 신앙양상 조사 제시

승인력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준비 △현대적 활용방안과 창의적 개발의지 필요성도 제시했다.

나 교수는 또 △불교미술, 음악, 무용 등에 대한 전통 기예 △불교와 관련된 전통지식 및 관습 △불교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대중 공동체에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의 보완을 요청했다.


나경수 전남대 교수


구미래 동국대 외래교수


이채원 학예연구사

이와 함께 구미래 동국대 외래교수는 "불교문화는 일찌감치 문화콘텐츠의 중심으로 등장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작 이루어졌어야 할 기초 조사와 연구가 공백으로 남아있다"며 "현재 실태조사와 다른 관점으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불교무형문화유산 조사에 대해 △대표 불교무형 전승사찰 선정 및 조명 △사하촌과 사찰간 신앙관계 및 문화관계 조사 △구술사 연구 방법을 통한 근현대 무형문화 전승 정리 △신앙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제안했다.

구 교수는 "해당종목에 대한 일괄조사와 사찰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가 완료되면 별도의 기구에서 전승주체를 선정해 이후 종목별 관리 및 등록 · 지정 문화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원 학예연구사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살펴보면 관광증대를 목적으로 한 문화자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우선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화유산이 공동체 구성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학예연구사는 "여러 문제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의 조사 이후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며 "조사 시에는 동의서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문화재청 '공인복제품' 방침 두고 논란

국립중앙박물관 이의제기, 학계 일부서도 비판나와

문화재청이 최근 발표한 '국가 공인 복제품' 방침을 두고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은 최근 "예술가의 영혼이 스며든 걸작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며 "교육적 목적에서 일부 유물을 복제할 수 있겠지만, 전시에 복제품을 내놓는 것은

중앙박물관 "전시 효과 없을 것"

강우방 "공인 복제품은 조롱거리"

'진품'을 보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 대한 기만"이라고 문화재청의 방침을 비판했다.

한국정부가 문화재 복제를 '공인'하는 데에 대한 반대목소리도 제기됐다.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원장은 "해외 전시에 국가 공인의 복제 문화재를 내놓는 것은 조롱거리가 될 만한 일"이라며 "일찍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금동백제대향로'를 복제해 전시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관람객이 없었다. 다른 선진국처럼 가장 중요한 작품들을 엄선해 해외 전시를 금하는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측도 "대부분 국외 전시가 교환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복제품을 대여하면 상대 박물관도 진품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교환 전시에서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조각 등에 복제가 활발한 반면, 프랑스 루브르 · 오르셰 박물관,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세계 유수 박물관들은 '진품 전시' 원칙을 갖고 있다. 올해 초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바티칸박물관전에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복제품이 전시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이에 대해 "외국 기관들이 실제로 전시용 복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외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조상순 유형문화재과 학예연구사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복제품 제작 기준과 품질에 대한 검증 방안 마련, 관련법규 정비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전쟁 때 유실된 문정왕후 어보 환수된다

美LA정부, 반환 의사 밝혀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반출된 문정왕후 어보가 60여 년 만에 모국으로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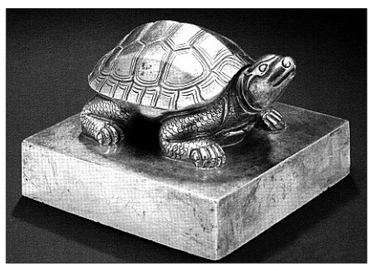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는 8월 28일 LA카운티 정부가 LA주립박물관(LACMA)에 소장된 문정왕후 어보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LA카운티 최고 책임자인 제브 야로슬라브스키 수퍼바이저는 서한을 통해 "문정왕후 어보가 도난품이 확실하고 한국정부가 반환 요청을 한다면 기꺼이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혜문 스님, 안민석 민주당 의원, 김정광 미주한국불교문화원장 등이 서명한 반환요청서와 함께 LA주립박물관이 요청한 어보의 종묘 보관 사실기록과 미군에 의한 도난여부, 한국정부의 반환요청 사실 등을 제출한 바 있다.

LA카운티 정부는 9월 18일 혜문 스님 등과 2차 면담을 갖고 후속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혜문 스님은 "9월 18일 2차 면담에서 반환여부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광 미주한국불교문화원장은 "환수를 위한 마지막 고개를 넘었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밝혔다.


LA주립박물관이 소장중인 문정왕후 어보

문화재제자리찾기는 2010년 문정왕후 어보 반환 문제를 놓고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 해왔다. 지난 8월 중순에는 어보환수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 백악관 청원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9월 3일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을 성 김 주한 미대사로부터 전달받기로 했다. 호조태환권 원판은 검찰의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불법 반출로 확인돼 환수되는 첫 사례다.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은 1892년 고종이 화폐개혁을 실시하면서 구화폐의 신권환폐 교환을 위해 만든 청동원판으로 1951년 미국으로 반출됐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보조 지눌 스님 수행저술서 보물 지정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수행자의 길을 제시한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8월 26일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는 보조국사 지눌 스님(1158~1210)이 당나라 종밀 스님(780~841)의 〈법집별행록(法集別行錄)〉에서 중요한 것을 간추린 〈절요(節要)〉와 자신의 견해인 〈사기(私記)〉를 삽입해 펴낸 저술서다. 조선 성종 17년(1486) 여름 광주 규봉암(圭峯庵)에서 펴낸 목판본이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불교 강원에서 필수교재의 하나로 채택돼왔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조선시대에는 20여 종이 넘는 판종이 유통 됐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 수렴된 각계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東大 우제선 교수팀, 한국학 선도연구 선정

동국대 우제선 교수팀이 국내 대학 최초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학 선도연구지원 사업에 선정돼 5년간 총 15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연구를 시작한다.

우 교수의 한국학 세계화 랩에는 외국인 교수를 포함한 동국대 교수 2명과 독일 라이프치히대, 미국 하버드대, 대만 정치대 등 6개국 9명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여중이다. 먼저 우제선 교수팀은 한국학 중 한국사상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우제선 교수는 "통일신라시대는 한국사상의 세계화가 잘 이루어진 시대"라며 "특히 원효 스님의 경우 저술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읽혀질 정도였다"고 말했다.

한국학 세계화 랩은 향후 워크숍을 열고 연구 방향과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우 교수팀이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 5년동안 참여 연구원 개별 당 국제 저명 학술지에 2.5편의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 더불어 북미, 영미권에서 영어로 책을 내야한다.

우제선 교수는 "예전부터 세계학계에서는 아시아 학문하면 일본학을 떠올렸다. 한국학의 경우 인지도 면에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며 "한국학 황금시대를 이끈 분들을 발굴해내고 이들의 사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선리연구원, '선문화연구' 제14집 발간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은 최근 '선문화연구' 제14집을 펴냈다. 이번 논문집에는 학술상 수상논문으로 △조준호 박사의 '선과 염불의 관계-염불선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황정일 보조사상연구원 기획실장의 '법구의 삼세실유설에 대한 비판과 그 의미-아비달마디빠의 수면품을 중심으로'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만암의 불교정화관' △월호 스님의 '능엄경에서 쉼의 의미와 휴식형 템플스테이' 등이 실렸다.

일반논문으로는 △이필원 동국대 연구교수의 '초기불교의 임종관' △정성준 동국대 교수의 '중국화엄과 밀교 교섭의 양상에 대한 고찰-다라니와 수용을 중심으로' 등이 수록됐다.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불교문화' 제14집 출간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최근 '동아시아불교문화' 제14집을 펴냈다. 14집에는 △김현구 호남불교연구소 전임연구원의 '실재론과 반실재론 논쟁-월칭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박창환 금강대 교수의 '구사론주 세친의 현상주의적 언어철학' △안환기 서울대 박사의 '식(識)의 분화에 의한 언어작용' 등이 실렸다.

이와 함께 △도업 스님의 '십이분교의 수사기법과 붓다의 교화방법' △원철 스님의 '유가사지론의 섭결택분에서의 전의사상' △도웅 스님의 '함허당 기화의 호불론과 유교인식' 등 논문이 게재됐다. **노덕현 기자**

'나'를 돌보고
'세상'을 치유하는
인문 실용 융합형
인재 육성!

동명대 불교문화학과는 인문적 가치의 실용적 구현을 통해 내면적 성숙을 갖춘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부터 산학협력까지"



동명대학교 이유진

맞춤형 교육과정, 풍부한 장학금 혜택! – 불교문화학과

- 2014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생 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 문화콘텐츠 트랙, 불교학 심화 트랙, 복수학위 트랙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동명대학교 TONGMYONG UNIVERSITY
불교문화학과
608-711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28

• 수시 1차 모집 접수기간 : 2013. 9. 9(월) ~ 9. 13(금) • 입학 상담 : 동명대학교 불교문화학과 051)629-2511 • 입학 홈페이지 http://dharma.tu.ac.kr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자세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선운사 도솔암 교육·복지 전담 사찰로

자장기도 도량 및 수행 지원 사찰로 육성 밝혀

지장기도 도량으로 전국에서 많은 불자들이 찾고 있는 선운사 도솔암이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도량으로 거듭난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최근 산내암자인 도솔암을 교구본사 직영도량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도솔암의 기도 수익금을 교육과 복지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운사는 도솔암을 지장기도 수행전문도량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신도들에게는 평생 기도도량으로 원찰을 삼을 수 있도록 기도와 수행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솔암에서 발생하는 기도 수익금은 선운사 본사 및 말사의 승려노후수행마을(석상마을), 고창종합사회복지관, 고창어린이집 등 복지시설과 초기불전승가대학원 교육과 복지 등 목적불사에 사용된다.

선운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려노후복지 사업과 초기불전승가대학원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운사는 도솔암을 찾는 불자들이나 참배객들이 편안하게 기도 수행할 수 있도록 종무원들의 교육을 더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교역직을 비롯해 종무원을 공개 모집하고 삼보정재가 불교의 미래를 위해 사용될

기도수익금 복지·교육사업 투입

재정 공개·종무원 공개모집

보은염 판매, 승려노후 활용

수 있도록 수익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안정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생산한 보은염(구운 소금, 황토소금, 천일염)을 선운사가 품질을 보증하며 보은염선운사복지재단을 통해 판매해 수익금을 노후수행마을 등 복지기금에 활용하기로 했다.



선운사 도솔암의 내원궁 전경과 보물 280호 내원궁 지장보살좌상(좌), 보물 1200호 도솔암 마애불(우)

한편 선운사 도솔암은 선운사와 함께 백제시대 창건되었다고 전하며 선운사 산내 암자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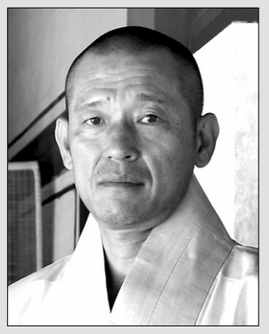
도솔암은 도솔암 서편의 마애불좌상(보물1200호)과 함께 세계 유일의 미륵·지장성지로 많은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솔암 도솔천내원궁에 봉안된 지장보살은 천장 지장보살로 상계교주(上界教主)로서 천상의 교주로 신앙되어 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심포교 활성화에 진력할 것"

구례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



"다른 교구에 비해 열악한 포교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해 도심포교 활성화에 임기동안 집중하겠습니다."

구례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이 취임 4개월을 맞아 화엄사와 조계종 제19교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영관 스님은 "순천, 광양 등 신도시에 포교공간을 개설하고, 각 단위 사찰별로 신도교육과 지역사회복지활동에 앞장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구본사 차원에서 제시하며, 사찰 간에 서로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화엄사는 본사 차원에서 도심포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말사 포교현황과 지원책 등을 협의하고 있다.

먼저 화엄사 본사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어린이법회를 창립하고, 가족단위의 법회 참여유도를 위한 일요법회를 개설했다. 또 향후 청소년법회를 비롯한 계층별 법회를 다양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구례군장애인복지관과 구례군노인요양원 등도 운영하고 있다.

영관 스님은 여기에 화엄사의 문화적 가치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영관 스님은 "화엄사는 지리산에 위치한 화엄종찰로 사적기에 따르면 8원 81암자가 있었던 대가람"이라며 "현재 각화전, 석등, 사사자삼층석탑, 영산회괘불탱 등 국보 4점과 보물 8점, 천연기념물 2점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한 한국전통문화의 보고"라고 강조했다.

영관 스님은 이어 "이런 풍부한 문화적, 지리적 배경과 말사를 연계해 템플스테이와 문화포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화엄사 괘불재, 화엄석경 복원, 산내암자 간의 명상체험길 구성, 구층암 다도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화엄사는 기존 템플스테이도 본사뿐만 아니라 천은사, 연곡사, 사성암, 도림사, 향일암, 흥국사 등 말사들과 연계해 진행한다. 또 사사자삼층석탑과 연기조사의 효 사상을 알리는 효 명상, 효행교육 등도 진행한다.

하지만 화엄사는 작은 고민을 앓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이다. 지리산 천은사의 경우 7월 19일 대법원에서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등산객과 통행차량에 대해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태다.

천은사는 영관 스님이 2006년부터 주지소임을 맡았던 곳. 당시 소송을 진행했던 영관 스님은 "대법원 판결은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인정 등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통행자 편의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라며 "천은사만의 문제가 아닌 종단과 정부, 지자체가 해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스님은 "먼저 본사가 안정돼야 말사들이 전법과 포교에 매진할 수 있다"며 "화엄사는 어른스님들의 덕화와 선후배 스님들 간의 원융화합으로 다른 사찰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경술국치 아픔 불심으로 알린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8월 23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전시유물을 둘러보고 있다.

동국사 일제 강점기 유물, 군산에서 대규모 전시

일제 강점기 수송창 역할을 한 군산 지역의 한 사찰 주지 스님이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독립운동 자료를 전시해 눈길을 끈다.

경술국치 103주년을 맞아 8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개최하는 '이 날을 목 놓아 통곡하노라展'에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동국사 소장 일제 관련 유물 100여 점을 내놨다.

이번 기획전은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과정을 담은 '제국의 멸망', '폭력과 저항의 기억', '조선은 병참기지', '광기의 종말', '수탈과 저항의 도시 군산' 등 5개 주제로 전시된다.

전시품 중에는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긴다는 내용의 순종황제 칙유, 위안부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본육군 성병예방약, 독립선언서, 일본 군도와 총, 을사오적 이완용이 자신의 친일행각을 미화하는 유묵까지 일본의 만행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선조들이 펼친 저항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종걸 스님은 "동국사에 소장하고 있는 일제 강점기 유물은 3000여 점에 달한다. 그 중 독립과 관련된 자료 등 유물 100점을 전시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가 경술국치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무등산풍경소리 갤러리 '아하' 개관식



광주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이 개관전에서 박하선 사진작가의 카일라스 산을 보고 있다.

매월 한차례씩 산사에서 음악회를 열고 있는 무등산풍경소리가 100회를 맞아 도심 속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갤러리를 열었다.

무등산풍경소리(공동대표 연광. 증심사 주지)는 8월 27일 광주 중심지인 금남로에 갤러리 '아하_AHHA' 개관전을 개최했다.

갤러리 이름인 '아하'는 누구든지 잘 듣고 '아하' 하는 깨달음의 첫 성을 내고자 붙여진 이름이다.

이날 전시전에는 18인의 작가들이 참여해 도예, 팝아트, 조각보, 사진, 서양화, 한국화, 조각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장구한 세월을 우리의 얼과 함께 살아온 '산(山)'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선보였다.

개관식에는 연광 스님, 최명진 목사, 노희용 동구청장 등 100여 명의 광주지역 문화인사 등이 참여했다.

연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관되어 감사하다. 앞으로 작지만 알찬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등산풍경소리는 2002년 증심사 주지였던 故일철 스님의 노력으로 '생명과 환경을 사랑하는 종교인의 모임'이 만들어 진데 이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성직자와 환경단체,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힘을 모으며 탄생했다.

그동안 증심사 문화광장을 기본 공연장으로 성당, 교회, 원불교당을 비롯해 사회문제 발생하는 곳곳에서 103회 이상의 음악회를 진행해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미얀마 어린이 초청 한국문화 체험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과 대화를 나누는 미얀마 아이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마산 광명암(주지 정인)은 8월 20~25일 미얀마 아난다미따 광명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 17명을 초청해 한국불교문화체험 및 역사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아난다미따 광명초등학교 일행은 경주 불국사와 통도사, 금산사를 참배하고 울산 현대자동차 자동 생산라인과 광안대교, 해저터널 등 한국의 발전상을 살펴봤다. 월주 스님은 "친구들에게 배려하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짜투스(남, 11세) 학생은 "미얀마로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해 미얀마를 한국처럼 더욱 잘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현대자동차 공장을 둘러본 후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장래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정인 스님은 전교생들에게 문구세트를 선물했고 월주 스님은 방문단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4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9월 중

◆ 개강일시 : 2013년 9월 9일 월요일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新製品

"YD-675 마이크" 100개 주문 한정 판매!!

스님들께서 보다 좋은 소리의 마이크를 원하심을 알면서도 단 100개만 판매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 고음질 YD-675
가격 : 115,000원

20년전,
"유코음향연구소" 김문화 소장이 개발 판매했던 신제품 마이크인
「DX-707 스탠드 마이크 (2000대판매)」를 기억하십니까?

여러 스님들의 요구에 의해, 또다시 맑고 깨끗한 소리의 고품질의 「스님 육성전용 YD-675 마이크」 The New Edition으로 1차분 100개 한정해 주문 제작 판매 합니다. 본 마이크를 소장하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걸이용 장식도 드립니다)

▶ YD-675 고음질 마이크란?

音響研究家 김문화소장이 직접 개발 제작하는 스님 법문전용 手製品마이크로 고순도 니켈코아와 정밀 코일을 채택한 음성전용드랜스를 사용해 불필요한 소리의 초저역 저주파는 억제하면서 맑고 깨끗한, 귀로 듣기 좋은 주파수 대역만을 보다 잘 표현하도록 독자 개발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Stuart 브랜드"의 특수마이크입니다.

Stuart 상표는?
유코음향연구소 김문화 소장이 특허청으로부터 1986년 12월 27일자로 상표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에 이르도록 제조하는 모든 마이크에 사용하고있는 고유 브랜드로서 대표적인 마이크로 "DX-707" "V-606LC" "V-620" 신제품 "YD-675"등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마이크는 사찰 외에 일반 시중에는 단 1개도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 주문방법 :
- 은행 계좌로 입금후 주소를 Fax나 전화 문자로 넣어주십시오.
- 입금확인 순서에 의해 3일 이내에 발송해 드립니다.
- 마이크 코드가 필요하시면 프러그의 종류와 길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2-610-963886 예금주 : 김문화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남북평화·불법중흥의 '염원'

해운정사, 평화의 탑 제막식
룸비니 평화의 불 봉안대법회



부산 해운정사는 8월 26일 '평화의 탑 제막식 및 평화의 불 봉안 대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진제 대종사, 선묵혜자 스님, 법산 스님.

선묵혜자 스님이 네팔 석가모니 탄생지인 룸비니 공원에서 채화한 평화의 불이 부산 해운정사에 봉안됐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주석하는 부산 해운정사는 '평화의 탑 제막식 및 평화의 불 봉안 대법회'를 8월 26일 경내에서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진제 대종사, 도선사 주지 선묵혜자 스님, 법산 스님, 박대성 해운정사 신도회장을 비롯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 한반도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 참배객 800여명도 함께 했다. 원통보전에서 봉행된 평화의 불 봉안대법회에서 종정 진제대종사는 "이 평화의 불이 마음의 참 나를 찾고 갈등이 없는 중도의 실상이 실현되도록 화두를 참구하여 부모미생전의 참 소식을 찾아 정진하자"고 법어를 내렸다.

도선사 주지 선묵혜자 스님은 인사말에서 "정전60주년을 맞아 남북평화정착과 불법중흥의 염원을 담아 불을 이운하게 됐다"며 "평화의 불 봉안을 계기로 종정예하께서 주석하시는 해운정사가 한국불교중흥의 발원지, 남북평화정책의 기원지, 한국 선 세계화의 중심지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해운정사 박대성 신도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부처님의 혜명이 혜초 스님의 구법의 길을 통해 평화의 불로 오게 됨에 큰 감동과 환희심으로 벅차다"며 "종정예하와 선묵혜자 스님 및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부대중 1500여명 참석
"중도의 실상이 실현되길"
진제 대종사 법어 내려

前 동국대학교 선학원교수 법산 스님은 축사에서 "이 평화의 불은 부처님의 반야지혜의 등불로 마음의 자유, 가족의 행복, 사회의 평화를 성취하며 남북이 평화통일을 이루고 세계의 모든 인류가 전쟁의 공포가 소멸되는 평화의 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평화의 불 원불 이운봉안대법회, 박대성신도회장 환영사, 선묵혜자 스님 경과보고 및 인사말, 법산 스님의 축사, 진제대종사 법어, 평화의 탑 제막식 및 평화의 불 봉안점화식,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진행됐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응공조계종 '구족계 및 포살 보살수계 법회' 열어

8월 25일 대구 엑스코 3층서… 500여명 동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무원은 8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구족계 및 포살 보살수계 산림대법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을 이어가는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법전)은 8월 25일 대구 엑스코 3층에서 '구족계 및 포살 보살수계 산림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종정 석법운 대종사와 종단 원로의장 보운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비구니원장 법화 스님의 발원으로 육법공양과 권공, 시식, 여래심보살 3인의 나비작법이 식전행사로 펼쳐졌다.

이후 반야심경 봉독-묵념-고유문-낭독-총무원장 법정 스님의 봉행사가 이어졌다. 종단 중앙신도회 조태흠 회장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께서 자비의 문을 열고 구원의 실상을 밝혀 어두운 중생의 길을 밝혀 넓은 바다를 건너는 지혜의 배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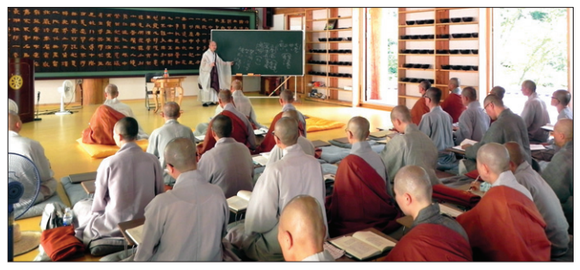
행사는 구족계를 설하며 수계식이 진행되었고 합창단의 청법가 후 법운 종정 스님 법문이 이어졌다. 법운 종정 스님은 계율은 스승임을 강조하면서 "복을 받길 바라지 말고 탐진치 삼독을 버려야 한다. 이를 통해 병든 자에게는 약이 되고 어둠속 밝은 등불이 되어 세상을 환히 밝히는 계를 받는 것"이니 "반야의 지혜 등불을 밝혀 고해의 바다를 건너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참회진언과 함께 수계자들은 호계합장하여 연비의식을 치른 뒤 대중스님들께 삼배를 올리고 수계자 대표가 계첩수여를 받았다. 이후 합창단의 축가와 축하무, 사홍서운 산회가로 구족계 및 대승보살계 수계식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한마음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각성 스님 〈원각경〉 특강

8월 26일~30일 고운사 체험관서


각성 스님이 고운사서 '원각경보안보살장' 특강을 하고있다.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각성 스님의 '원각경보안보살장' 특강을 8월 26일~30일 고운사 체험관에서 진행했다.

스님은 이날 강연에서 "환을 여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을 알고자 한다면 〈원각경(보안장)〉을 보라. 몸과 마음이 환이라 의보와 정보의 관이 멸하면 청정하고도 뚜렷이 밝은 부처님의 경계가 드러날 것이다. 이 보안보살은 환을 여의고 행을 닦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무루인연공덕으로 선근을 심으시길 발원한다"며 법문했다.

이날 특강에는 고운사 회주 송암혜승 스님 등을 비롯해 130여명이 참석했다. 4박 5일 간 진행된 각성 스님의 '원각경보안보살장' 강좌는 안거 해제 때마다 하고 있으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인증 받아 교육을 수료한 후 30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이에 해마다 전국에 많은 스님들이 특강에 참여한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시주 목록 1위 '기와' 제대로 사용돼야

전통사찰의 경우 경내의 건물이 대부분 토종기와를 얹은 전통한옥이고 보면 사찰에서 기와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다. 기와는 이제 많은 사찰에서 시주목록 제1위가 된지 오래이다.

예전에는 절 들어가는 길목이나 강당 전면 공간 등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설좌판을 설치하고 소극적으로 기와시주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와시주를 받기위해서 임시건물까지 지어놓고 적극적으로 기와시주를 권유한다. 심지어 법당 앞마당에서도 기와시주를 받는 것을 보면 기와불사가 사찰경제에 유익한 면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사찰에서 특별한 물건을 시주받는 것은 용처가 있기 때문일 것이고 시주를 올리는 불자들도 공양물이 제대로 쓰이는 것을 전제로 시주를 하게 된다. 이를테면 대들보용 목재를 시주하는 이는 그 목재가 대들보로 쓰이는 것을 전제로 시주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아니면 방치될 경우 아예 시주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찰에 기와를 시주하는 이는 오래된 기와를 새 것으로 갈아 잇거나 아니면 새로 건물을 짓게 될 때 지붕에 그것을 올려 부처님 궁전에 물이 새지 않고, 바람을 막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주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소원을 비는 갖가지 문구를 기와에 적고 시주를 하는 이의 이름까지 적어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불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정성스럽게 시주한 기와를 시주한 이의 원대로 부처님 궁전을 보전하는데 쓰고 있다. 기와라는 것이 작은 물건이기는 하지만 웬만한 규모의 법당지붕을 잇기 위해서는 많은 물량이 들어간다. 따라서 살림살이가 풍부한 사찰이라고 하더라도 기와를 사서 건물에 올린다는 것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불자들이 시주한 기와는 사찰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간혹 일부사찰에서 불자들이 정성스럽게 시주한 기와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럴 때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소원을 적은 기와가 제대로 용도를 찾지 못하고 홀대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불자들이 시주를 하는 것은 복을 짓기 위함이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자비스러운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어 시주한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포교보다도 더 큰 포교가 아닐까 생각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정성스럽게 시주한 기와가 다른 용도로 쓰여서는 안된다. 복을 짓기 위해 시주한 아름다운 마음이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 사진은 불사에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경남 ㄱ사찰의 기와더미들.



전국
서울. 의정부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98-10 명화빌딩 (의정부역 1번 출구 2분거리) ☎전화 010-7415-0803 / 031)928-5030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佛影과 계곡에 마음의 홍진 씻겨내는 천년고찰

계곡이 아름다운 사찰 - 울진 불영사

천축산 바위에 새겨진 불영(부처님 그림자)이 연못에 비치는 불영사는 천년 고찰이자 마음 속에 찌들었던 홍진을 털어내는 도량이다. 이 도량 옆에는 한국관광공사가 9월의 가볼만한 관광지로 추천한 불영계곡이 길게 뻗어 있다.

일주문을 지나 본 도량으로 들어가는 길에서만이 불영계곡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 넓고 깊은 불영계곡은 발품을 팔아 제대로 걸어봐야 '한국의 그랜드캐년' 이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 '대동여지도' 서비단 금 자를 써서 '금계천(錦溪川)' 이라 왜 명명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불영사계곡 휴게소부터 서면 하원리의 불영사까지의 경치는 수려하다. 울진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불영사계곡은 맑은 물과 울창한 숲이 조화를 이뤄 천혜의 자연경관을 제공한다. 지난 1985년 불영사계곡을 지나는 36번 국도가 개통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전까지는 오지 중의 오지였다. 지금은 자연을 벗 삼아 드라이브하기에 좋은 곳이다. 불영계곡에는 유려한 곡선도, 아찔한 폭포도 없다. 굵은 필치로 힘차게 그려나간 듯 담백하고 절제있는 직선이 바로 불영계곡이다. 원래 계곡은 근남면 행곡리에서 서면 하원리까지 약 15㎞에 걸쳐 이어진다. 계곡 주변에는 신라시대 고찰 불영사를 중심으로 광대코바위, 주절이바위, 창옥벽, 명경대, 의상대, 산태극, 수태극 등 30여 곳의 명소들이 펼쳐진다. 계곡 바닥과 주위 암반은 모두 화강암으로 오랫동안 풍화 침식되며 만들어졌다. 불영계곡은 '불영사' 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신라 진덕여왕 5년(651)에 의상대사에 의해 세워진 불영사의 본래 이름은 '구룡사' 였다. 부처 형상을 한 뒷산 바위가 절 마당 연못에 비쳐 '불영사(佛影寺)' 로 이름이 바뀌었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이 광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정말 외경심이 들 정도로 장엄하다.

국도변 주차장의 일주문에서 불영사 대웅전 앞마당까지 약 500m의 진입로가 특히 인상적이다. 일주문에 들어설 때면, 거창하게 해탈까지는 이르지 못해도 쓸데없는 아집은 미련 없이 실어 보낼 수 있다. 구룡교를 건너면서부터 나타나는 고목 숲길은 불영사의 텃밭까지 이어진다. 천축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불영사는 비구니 스님들의 참선 도량이라 정갈하다는 느낌이 가득하다. 아니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것처럼 담백하다. 고즈넉하면서도 정갈해서 찾는 이의 마음조차 차분하게 만든다.

일주문서 20여 분을 걸어 들어오면 비교적 큰 연못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다. 부처님 그림자가 비치는 연못이다. 이 곳을 지나면 팔작다포집으로 18세기 건물로 추정되는 대웅보전(보물 제1201호)에 시선이 꽂힌다. 현재는 외부 공사중이라 가림막 그물을 쳐놓았다.

대웅보전 내에는 석가모니 부처가 인도의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화려한 색채와 세밀한 묘사로 표현한 영산회상도(보물 제1272호)와 불영사의 600년 된 은행나무 일부로 2002년에 봉안한 삼존불이 있다. 대웅보전은 특이하게도 돌거북 조각 한 쌍이 기단을 받치고 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불영사가 있는 자리가 화산(火山)이어서 그 불기운을 누르기 위해서라고 한다. 머리와 몸통 일부를 드러낸 채 대웅전을 업고 있는 돌거북의 모습이 독특하지만 너무 힘들어 보인다. 대웅보전 지붕 끝에 풍경이 걸려 있고 물고기 한 마리가 하늘을 유영한다. 바람결에 퍼지는 풍경소리가 온 산에 은은히 퍼진다.

경내 여러 건물 중 가장 오래된 응진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아담한 다포계 홑처마 맞배집으로 조선 중기 초엽의 건물로 추정되는데, 그 역사성과 건축미 덕분에 보물 제730호로 지정되어 있다. 오른쪽 옆에는 1995년 신축한 천축선원이 있다. 근원을 굳이 따지자면 현 주지 일운 스님이 1978년부터 조그만 선방을 운영해오다 개축한 것이다. 일년 내내 운수납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전국 비구니 선원 중 규모가 큰 대표적인 선원이다. 불영사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1년에 두 차례씩 안거 해제일 3일 전에 재가불자 1백여 명에 문호를 개방해 안거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3일 동안 스님들과 똑같이 오후불식과 묵언수행 해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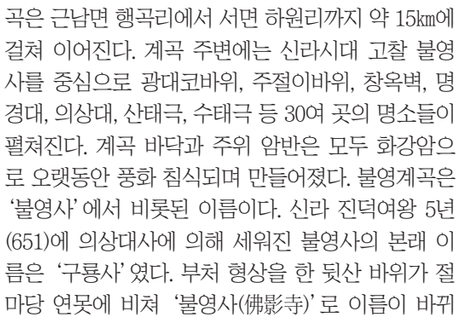
울진 불영사에서 볼거리가 또 있다. 절 마당 한 쪽 언덕에 군락으로 펼쳐진 금강 소나무다. 하늘을 뚫을 듯한 기세로 서 있는 금강 소나무는 한 겨울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기상을 자랑한다. 종무소에 비치된 팸플릿에 '마음 닦기 좋은 곳, 佛影寺' 라고 쓰여 있듯이 이 도량은 산사의 평온함과 설명할 수 없는 여유로움, 천년 고찰의 숨결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불국토이다.

울진 불영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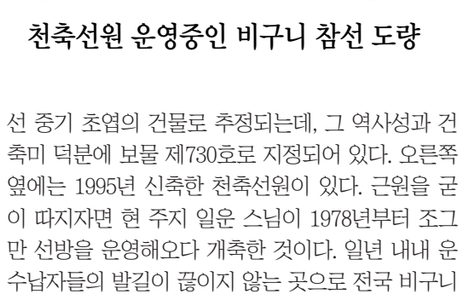
'한국의 그랜드 캐년' 불영계곡 품어
천축선원 운영중인 비구니 참선 도량



부처 형상을 한 뒷산 바위가 맑은 날이면 선명히 비치는 불영사 대웅전 앞 연못의 풍경은 한 폭의 맑은 수묵화가 연상될 정도로 풍광이 뛰어나다.



금강송이 양쪽으로 뻗어있는 사찰 진입로.



연못가에 조성된 하얀색 야외 불상.



'한국의 그랜드 캐년' 으로 불리는 불영사 옆에 위치한 '불영계곡'

주변보기

▲주변 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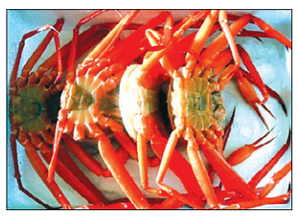
덕구온천 〈사진 오른쪽〉은 백암온천과 함께 울진을 대표하는 온천지다. 국내에서 유일한 자연 용출온천으로 유명한데 응봉산 중턱에서 약 42도 정도의 온천수가 솟구쳐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 온천수를 사용해 조성한 곳이 바로 덕구온천이다. 갖가지 미네랄이 풍부해 신경통과 근육통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온천 원탕에 이르는 약 8㎞의 트레킹 코스도 인기다. 길이 완만해 초보자들도 무리 없이 걸을 수 있다.



▲묵을곳

금강송이 많은 울진에는 숲이 짙은 만큼 휴양림이 좋다. 구수곡자연휴양림(054-783-2241)과 통고산자연휴양림(054-782-9007) 등이 첫손으로 꼽히는 숙소다. 신선계곡을 가겠다면 한화리조트 백암이 좋겠고, 금강송 숲길을 찾아간다면 덕구온천관광호텔(054-782-0677)이 맞춤이다. 금강송 숲길의 출발지와 종착지인 두천리와 소광리 주민들이 민박을 친다. 1인 기준 1박 1만원. 미리 주문을 하면 숲길을 걸을 때 먹을 도시락도 싸준다.

▲맛집



맛집을 찾아가려면 바닷가 쪽으로 가는 편이 낫다. 후포항의 왕돌수산(054-788-4959)은 홍게찜〈사진 위〉도 좋지만, 우럭지리탕을 특히 잘한다. 근남면 노음리의 성류식당(054-783-5358)의 홍게탕도 이름이 났다. 읍내의 별난복집(054-782-3142)은 시원한 복국이 좋고 남양숯불갈비(054-782-3637)의 불고기도 추천할 만하다.

(주)에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직항 "초특가"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출발일 : 2013년 9월 21일, 9월 28일 (단, 2회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 5일
출발일 : 2013년 9월 25일

■ 인천 / 김해공항 출발 - 실속 (타이항공 초특가)
* 국내선 항공 이용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7일 1,590,000원

양곤 / 바간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 6일 요금문의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태국 파타야 - 7일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마하연 강력 추천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 지장도량 / 관음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7일	139만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4일	109만원
• 관음도량 (보타산 / 낙가산)	4일	109만원
• 문수도량 (오대산 / 석가장)	5일	129만원
• 보현도량 (아미산 / 낙산)	5일	129만원
• 대만	5일	129만원
• 라오스 (직항)	6일	139만원
• 스리랑카 (직항)	6일	199만원

세계속의 성지순례

• 스리랑카 핵심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와 몰디브 해변 휴양	8일	요금문의
• 베트남 / 캄보디아	6일	요금문의
• 민족의 백두산	5일	요금문의
• 용문석굴과 중국불교의 중심 소림사	5일	요금문의
• 몽고 테를지 울란바토르	5일	요금문의

(주) 마하연 투어 ☎02)365-7747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해외지사 : 양곤 사무실 (가바이파고다 앞) / 전화 951-667170. HP 95943048476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혜능 열반 1300주년 기념 특집 순례기

중국 광동성 광효사 · 남화선사를 가다

민족 초월한 불교정신 구현 현재도 전해져



남화선사 조전에 모셔진 혜능 등신불



혜능 대사의 삭발 수계처인 광효사의 철제탑

9월 7일(음력 8월 3일)은 동아시아 불교와 한국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혜능 대사의 원적 13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서력 638년에 태어나 75세의 일기로 713년에 입적한 혜능 대사는 한국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불교 대표종단인 조계종(曹溪宗)과 한국불교 1번지로 꼽히는 조계사(曹溪寺)의 명칭은 혜능 대사가 주석했던 조계(曹溪)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한 그의 법어(法語)인 〈육조단경(六祖壇經)〉은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과 함께 조계종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몇 해 전 필자는 제2조 혜가 대사에서 제5조 홍인 대사까지의 유적지를 모두 답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남부 지방에 위치해 있는 제6조 혜능 대사의 유적지는 보지 못했다. 인도불교가 전공이지만 오래 전부터 혜능 대사의 유적지를 답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왜냐하면 한국의 불자로서 나에게 〈육조단경〉의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이다.

인연이란 참 묘하다. 몇 년 전 서울시내의 한 불교대학에서 나의 강의를 들었던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였다. 마카오에서 불교미술전람회에 초청받았다는 것이었다. 함께 가자는 요청에 필자는 마카오 인근 광동성(廣東城)에 위치한 혜능 대사의 유적들이 생각났다. 특히 올해가 혜능대사 원적 1300주년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큰 의미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카오 일정을 마치고 국경을 넘어 버스를 타고 광동성 수도인 광주(廣州에 도착하였다. 도착 후 바로 광주 시내에 있는 광효사(光孝寺)와 육용사를 참배하였다.

현재의 광효사는 〈육조단경〉의 법성사(法性寺)다. 혜능 대사가 오조 홍인 대사로부터 법을 받은 뒤 16년간 은둔하며 지내다가 767년에 대중에게 그 진면목을 발휘한 곳이다. 혜능 대사의 진면목은 유명한 풍번문답(風幡問答)으로 드러난다. 풍번문답이란 '바람이 움직인 것인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인가로 설왕설래하는 대중들 사이에서 혜능 대사가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고, 오직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는 사자후를 토한 것이다.

이후 혜능 대사는 구족계를 받고 삭발한 머리카락을 철제탑에 봉안했는데 이 철제탑은 광효사에서 가장 고풍스럽게 느껴지는 유적물이다.

혜능 대사의 탄생지와 활동무대는 무더운 지역이었다. 현지인의 말에 의하면 광동성의 수도는 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조계(曹溪)가 있는 소관의 산간지역에는 가끔 눈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소관은 혜능 대사가 오래 머물렀던 남화선사가 있는 지역으로 광주에서 약 233km 정도의 거리이다. 대략 혜능 대사의 활동무대는 광주를 중심으로 소관과 그리고 탄생과 입적지인 신흥에 걸친 지역으로 대략 400km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혜능 대사가 30년 간 법을 펼친 남화선사를 들어가는 4km 전의 도로에는 거대한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간판에는 '혜능 대사 원적 1300주년'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남화선사에 이르기까지 양 길가는 〈단경〉 구절과 불기(佛旗)로 장엄됐다.

원적일인 9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 동안에는 1300주년 기념법회와 다양한 문화 축제 등을 진행한다고 한다. 또 혜능 대사를 기념하는 우표도 발행한다고 한다.

이를 보면서 중국이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드높이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반가웠다. 남화선사에 도착하여 함께 했던 불광연구원의 서재영 박사와 함께 1300년 전의 혜능 대사의 흔적을 찾아보려 여기저기 탐색을 하였다.

안타깝게도 혜능 대사의 진신상을 모셔놓은 조전(祖殿)은 공사 중이어서 볼 수 없었다. 대신 혜능 대사가 법의를 세탁하기 위해 주장자로 내리 친 땅에서 샘이 생겼다는 〈단경〉의 이야기는 지금도 '탁석천(卓錫泉)'이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물을 떠 마시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혜능 대사는 〈단경〉에 '조실(祖室)'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이미 당대에 광동성에서는 크게 법력을 펼쳤던 것이 확실하다. 원적한지 5~6년 뒤에 누가 와서 자신의 머리를 훔칠 것이라는 예견은 흥미롭게도 신라출신이 그 역할을 맡았다. 신라 말엽 김대비라는 스님이다.

조전의 혜능 등신불은 김대비의 실패를 이야기하지만 쌍계사의 '육조정상탑(六祖頂相塔)은 한반도로 성공적인 이운을 의미한다. 이는 혜능의 원적 이후 동아시아에서 혜능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남화선사 경내의 '조계불학원'에는 100여 명 이상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선방이 잘 꾸며져 있었다. 들어가 보니 휴식 시간인지 한 노스님과 재가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우리는 좌복에 앉아 좌선의 자세를 취해 보았다. 중국의 선방은 우리처럼 마루에 방석이 아니라 길다란 단 위에 좌복이 설치되어 있어 졸면 바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었다. 노스님은 선방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차를 한 잔씩 대접해 주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는 한 참이나 혜능과 〈단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필자는 조계(曹溪)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고 싶었다. 아직 우리나라는 〈단경〉의 번역 시에 조계산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조계는 산이 아니라 남화선사 앞의 개울이다. 개울을 중심으로 조(曺)씨들이 많이 살았기에 조계라는 것이다. 1300년이 지난 지금도 개울물은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 조계종과 조계사 등등, 그토록 오랫동안 상상력을 펼쳤던 조계를 직접 보니 만감이 교차했다. 1300년 전 혜능 대사도 바라보고 건넜을 조계, 그리고 1300년 뒤 중국본토를 넘어 조계라는 이름이 바다 건너 한반도에 계승되고 있으리라고 혜능 대사는 예견했을까. 그러면서 혜능 대사의 가르침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곳은 현재의 남화선사도 중국도 아닌 바로 조계종의 한국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한국불교 대표종단 조계종 명칭에서부터 혜능의 영향력 드러나

돈교 가르침, 동아시아 매료 … '신회' 이르러 선불교 주류 부상

이번 답사를 통해 혜능 대사와 관련한 궁금점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것은 왜 혜능 대사가 오조 홍인 대사와의 만남을 끝으로 결국 자신의 고향인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가에 대한 것이었다. 〈단경〉에 의하면, 그는 영남(嶺南) 오랑캐 출신이다. 이는 오조 홍인 대사와의 대화에서도 이야기된다. 방앗간 앞을 지나는 동자도 혜능대사를 오랑캐 취급했다.

정확히는 〈단경〉은 혜능 대사를 '갈료'라고 한다. 갈료는 한족 중심으로 볼 때 중국의 광동성과 같은 남서지방의 오랑캐 사람을 말한다. 때문에 어린 아이도 혜능을 보았을 때 자신들과 다른 모습이었기에 바로 갈료라 불렀다. 처음 〈단경〉을 공부할 때 영남의 오랑캐라는 오조 홍인 대사의 차별적 발언에 의아심을 품었다. 그저 이해하는 측면에서 혜능 대사의 공부를 가늠해 보기 위해 던지는 문답 정도로 받아들였다. 여기서 혜능 대사는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은 남북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은 스승님과 같지 않사오나 부처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답변을 하게 됐다.

혜능 대사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강호의 한족과는 다른 외모를 지녔을 가능성이 높다. 예로부터 광동성은 지금의 베트남 민족과 가까운 월족(越族)이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베트남을 '월(越)의 남쪽'이라는 뜻으로 월남(越南)이라 하기도 한다. 즉 태평양 연안과 동남아 등지에 흩어져 사는 '호주-아시아계' 혈통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현재의 광동성 사람들을 통해 1300년 전의 혜능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무리일 수도 있다.

그 동안 끊임 없이 한족이나 만주족 등의 민족간 이민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민족은 어느 정도 뒤섞임이 있었다하더라도 월족의 언어적인 면모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즉 광동성은 현재 한자를 쓰지만 '중국어와 광동어'나 '북경어와 광동어'로 구분될 정도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심지어 광동어는 다른 지역의 중국인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서 중국의 7대 방언중의 하나로 포함된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혜능이 살았던 광동성은 그 정도가 더욱 심했을 것이다. 이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한자를 지식인의 문자로 사용했던 과거의 한반도 상황과 비슷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시 말하면, 〈단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혜능대사가 문맹이었던 것보다는 한족의 강호 사람들과는 의사소통 상에 있어 장벽을 그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단경〉을 보면 그가 다른 사람의 경 읽는 소리만을 듣고 법을 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단경〉의 가르침에는 〈유마경〉 등의 많은 대승경전을 오랫동안 보고서 경전의 정수를 종횡으로 압축한 심오한 융합성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를 〈단경〉에서는 '조계돈교(曹溪頓教)'라는 말로 표현한다. 달리 말하면, 불교 설명의 출발점은 돈오의 깨달음 지점부터라는 것이다. 이러한 돈교는 이전의 점수문(漸修門)과는 크게 비교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르침이 현격하여 듣는 사람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는 〈단경〉에서도 혜능 대사와의 문답에서 어떤 이는 가르침을 들으면 점점 의혹을 더하게 된다는 구절도 바로 이러한 경우를 나타낸다. 하지만 돈교는 혜능 이후 마조(馬祖)에게도 더욱 강조적으로 잘 계승되고 있다. 즉 혜능 대사 이후 간명직절한 돈교는 다른 불교권과 달리 중국인과 동아시아 사람을 매료시킨 힘이 된다. 이것은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과 성격으로 현재까지도 세계의 다른 불교권과 구분짓는 큰 경계가 된다.

마지막으로 혜능 대사가 오조 홍인 대사와의 만남을 고향인 광동성을 법을 펴는 무대로 선택한 이유는 민족과 언어라는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던 그를 결정적으로 제6조라는 선불교 주류로 부상시킨 공로는 바로 '신회'에 있다고 현대불교학은 이야기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혜능 대사의 법력도 위대하지만 변두리 오랑캐를 제6조로 받아들인 강호의 법력도 위대하다. 갈료인 오랑캐 혜능 대사를 오조의 후계자로 적극 수용하고 이후 모든 선맥(禪脈)을 그로부터 구한다는 점은 놀랍다. 이는 민족을 초월하여 불성은 남북이 없다는 불교 정신을 잘 구현한 역사적인 사례일 것이다.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남화선사 앞 혜능 열반 1300년 광고판



남화선사의 조계 현판이 길손을 맞이한다.

since1973
2014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 12절(소)달력
3,000부 이상 @ 800 원
2,000부 이상 @ 900 원
• 200부이상 @1,000원
• 규격 : 25.8cm × 26.5cm

•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30cm × 63cm ★국판3절
• 매수 : 13장
• 전통 인견한지 달력입니다.

• 탁상달력
200부 이상 @ 1,500 원
• 100부 180,000원
• 규격 : 26cm × 19cm
• 탁상용 달력중 가장 큰사이즈

•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50 원
• 100부 @800원 • 매수:18장
• 규격 : 9.5cm × 13.4cm

•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600원 • 매수:16장
• 규격 : 8.9cm × 9.5cm

“남편부처도 못 섬기면서 부처님 마지 올려 무엇해”



方山老의 無影樹 〈28〉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활안 스님



활안(한정섭)스님
송광사 입산, 상락향 수도원 설립 및 운영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스님의 〈보조법어〉 읽고 발심
장자가 살아와도 스님 못 당할 것
물 흘러가듯 써내려 가시고
폭포수처럼 읽고 장강수처럼 해설
유불선 달통한 종합적인 도인

–스님의 책 〈내가 만난 선지식〉에 보면 탄허 스님과의 인연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인연을 갖게 되었는지 이번 기회에 알려주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적에 우연한 기회에 송광사에 구경갔다가 출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만난 스님이 추강 스님이라고 송광사 주지까지 지낸 아주 훌륭한 스님입니다. 추강 스님을 만나고 나서 절에 들어왔는데, 효봉 스님이 그때 사미 신분으로 있었어요. 그때가 1957년 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송광사에서 추강 스님의 큰상좌인 벌교상고 교장선생님(조용순)의 상좌가 되어서 승적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때에는 비구, 대처 싸움의 후유증이 있을 때여서 거기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스님들이 싸우는 것을 보니 불교가 좀 이상 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래도 효봉 스님을 만나니 싸우는 일반 스님들과는 부류가 다르다고 보이고, 도를 닦는 스님도 있구나 그렇게 여겼지요. 그런데 추강스님이 통도사, 해인사로 편지를 내서 저를 강원에 보내려고 하였더니, 송광사는 대처승 절이라 받아줄 수가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송광사가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추강 스님이 탄허 스님에게 사정을 말해서 내가 오대산으로 오게 되었고, 그래서 탄허 스님에게 배우게 된 것이지요.

–그랬군요. 오대산으로 들어오게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추강 스님이 나보다 먼저 오대산에 가서 탄허 스님을 만나서 동의를 받아 놓고서, 나에게 편지로 통지를 했어요. 동의를 받아놨으니 오대산으로 오라고. 그래 나는 서울로 가서 마장동에서 평창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거기에서부터는 걸어서 오대산으로 들어왔지요. 그때가 1957년 10월인가 가을이었어요. 월정사에 와서 탄허 스님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하시면서 뒷방에 가서 다른 스님들과 같이 있으라고 그러셨지요. 그때에는 강원이라고 하질 않고 오대산 수도원이라고 그랬어요. 수도원 간판이 인법당에 걸려 있었어요.

–오대산 수도원의 정황과 탄허 스님에게 배운 것을 들려주세요.

그때 탄허 스님에게 배우던 사람들과 함석집에 있는 대처승 계열의 스님들을 모두 합치면 60여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탄허 스님에게 배우던 사람이 30명 가까이 되었어요. 그때에 보니 인법당에 있는 사람들과 함석집에 있던 사람들은 견원지간(犬猿之間)처럼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랬어요. 나는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니 일체 말도 않고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않았죠. 그때에 희찬 스님도 먼 발치에서 보았는데 날카롭고 지혜로운 인상이었는데 나야 저 밑에 있으니 그냥 보는 것뿐이었지요. 나는 인법당에서 지냈는데 배운 것은 대중들과 함께 배운 노자 도덕경입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상급반 스님들은 600부 반야경을 탄허 스님에게 따로 배웠는데, 나는 거기에도 가서 들었지요. 38권, 39권을 배웠어요. 그때 같이 배우던 스님들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고 우담 스님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스님의 출신은 알지 못하는데, 몇 년 전에도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저는 지금 그 스님을 찾고 있는데, 만나면 제가 머무는 절인 구기동 문수원에서 같이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성 스님도 기억이 나고, 이북 출신, 문인 출신과 문필가가 두세 명이 있었던 것은 어렴풋하게 생각납니다. 그 후에 내가 각성 스님을 금강선원에 모셔서 강의를 시켰는데, 그때 자기도 수도원에 있었다고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하고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때 어렵게 공부하였다고 그럽니다만.

발우공양을 하였는데, 저는 늦게 온 막내이니깐 맨 뒤에서 두 번째로 공양을 하였어요. 그런데 찬상을 두 개 정도로 준비하여 돌리는데, 그 반찬이 우리 옆에 오기도 전에 다 끝나 버렸어요. 밥은 쌀에다가 보리, 감자, 옥수수를 섞은 꽁보리밥인데 반찬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름에 소금을 볶아서 찬 대용으로 먹었어요. 밥은 물에 말아서 먹고요. 사람이 정말 지내기가 어려웠지요. 어떤 수도생은 빈혈로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월정사의 개울인 금강연에 흐르는 물을 떠다 먹으면 조금 멀어서 절의 구석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30여 명의 물을 살살 떠서 주전자에 길어와서 먹고 그랬는데 흙냄새가 나던 것이 생각나네요.

–그때에 본 탄허 스님의 인상을 말씀해 주세요.

스님은 얼굴이 잘 생겼지요. 상호가 탱화 속의 아난 존자와 같았어요. 찡그리는 상호가 아녜요. 스님이 칠판에서 강의하는 것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는 탄허 스님 강의에 놀랬지요. 스님은 강의를 책을 보지 않고 외워서 쫙 하시는데, 물 흘러가듯 써내려 가시고 폭포수처럼 읽고 장강수처럼 해설하셨지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학자는 저래야 된다고 생각하였어요. 나는 입산 전에 우리 아버지에게 한문을 좀 배우고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탄허스님에 댈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장자의 한 구절, “천하에 털끝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태산보다 작은 것이 없다. 옛이 옛이 아니고 지금이 지금이 아니다. 천지와 만물이 일체가 되면 시간도 공간도 인간도 그 시종(始終)을 말할 수 없고, 그 광협(廣狹)을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요. 그러시면서 스님은 언어 이전, 생각 이전의 도를 연상할 수 있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수도원이 해산되었다고요?

그것이 내가 가서 두 달이 되었는데, 월정사 위에 있던 마을의 처녀 아버지가 절에 와서 똥바가지를 던지면서 “똥보다 더러운 중놈들아, 다 나가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냐 하면 수도생 중에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마을 처녀와 사귀다가 처녀가 애를 배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 처녀 아버지가 와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 처녀는 동네 가게집 딸인데 이종욱 스님 친척의 조카딸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르지요. 그러니깐 탄허 스님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도원이 해산된 것입니다. 나는 딴 생각이 없이 공부만 해서, 공부를 조금 익혀가다가 그만 깨진 것이지요. 어쨌든, 그때에 밤이 되면 상급생들은 서너 명이 짝을 지어 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고 모르니깐 초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고 그랬지만.

–수도원이 해산이 되어서 어디로 가셨는가요?

수도원이 해산이 되어서 상원사로 추강 스님을 찾아갔죠. 가서는 스님에게 “절이 시끄럽고 어수선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으로 가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러면 여기서 나하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상원사에 머물게 되었지요.

–동국대에 다닐 적에 탄허 스님과의 인연은 없었는가요?

제가 동국대 다니던 1960년대 초반은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에는 불교 책이 아주 귀했어요. 학교 다닐 적에 석주 스님은 어떤 개인이 불교책을 낸 것을 보면 50권, 100권을 모아다 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나누어 주었어요. 그때에 탄허 스님의 〈육조단경〉과 〈보조법어〉가 나왔어요. 선학원에 계신 석주 스님은 우리를 부르시고는 탄허 스님의 책을 그냥 주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너무 미안해서 적은 돈이지만 모아서 그것을 석주 스님에게 갖다 드렸지요. 그때 제가 그런 모금 활동을 주관하면서 탄허 스님의 책을 환희심으로 읽고 그랬어요. 석주 스님은 필요한 사람에게 책을 늘 주셨지요. 스님께서 늘 그렇게 하셨기에 저는 석주 스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주 찾아뵙고, 인연을 갖고 모셨지요. 난 탄허 스님의 책은 달달 외웠어요. 우리들의 신심, 불심은 보조 스님의 수심결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보조법어〉에 있었지요. 나는 스님 책에서 발심이 된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탄허 스님을 어디에서 다시 만났는가요?

저는 동국대 불교과를 1962년에 들어가서 1965년에 졸업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1966년부터는 가평에 상락향수도원을 만들어서 포교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탄허 스님은 1966년부터 동국대 대학선원장으로 오셨지만, 저는 졸업을 해서 학교에서는 뵙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제가 1970년 경 미아리에 정혜고등공민학교를 창설했어요. 그리고 미아리 영미암에서는 야학을 열었어요. 왜 그렇게 하였는가 하면 서울 시내의 필동 이런 곳의 판자집에 있었던 사람들을 강제로 미아리 근처로 이주를 시켜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아리에서 버스를 타려면 6~7km를 걸어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알고 공민학교와 야학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제 스승인 황성기 교수님이 하시던 불교사상연구회 활동에도 참여했어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서울 시내에 자주 오게 되었지요. 그때에 스님께서 청룡사에서 계시면서 강의를 열었다는 소문이 서울 시내에 다 퍼졌어요. 나는 영미암의 법사로 있었는데, 동국대 박선영도 나와 같이 법사로 있었지요.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청룡사에 가서 스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사람이 많이 왔어요. 150여 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 무렵인가 스님의 제자가 청룡사지를 펴냈지요. 나는 그때에 나온 그 사지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강의를 들은 인연으로 청룡사 법회를 근래까지 10여 년간이나 봐 줬어요. 윤호스님은 탄허 스님을 잘 모셨는데, 청룡사 스님들은 우리 같은 스님이지만 계통이 양반 출신이에요.

–대원암에서는 만나지 않았는가요?

대원사에도 두세 번 찾아갔지요. 화엄경을 읽다 보니 신중(神衆)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찾아가 여쭈어 봤지요. 화엄경에 왜 그렇게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고 하니까 그것은 수행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니 그리 보지 말라고 바로 일러 주시더군요. 그때 스님은 19신장이 옹호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8부신장이 옹호하면 전륜성왕이 될 수 있고, 12천신이 도와주면 삼계도사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지금도 하는 화엄경 강의에 스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스님의 장자 강의가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국대 국문과 교수로 유명한 양주동 박사가 학생들과 함께 탄허 스님에게 가서 1주일간 장자를 배웠다고 하지요. 그런데 양주동 박사가 “만약 장자가 다시 살아와도 탄허스님을 능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다고 해요. 나는 이 말을 양주동 박사를 따라 같이 간 학생들에게서 들었어요. 그 학생들은 그 후에 교수가 되었는데,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탄허 스님과의 다른 추억은 없을까요?

그게 월정사에서 국수 공양을 엄청 받아먹은 이야기이지요. 원주에 사는 어떤 거사가 자기 부인이 매년 막내아들 생일 불공을 위해 쌀 한 가마니에 월급 한 달 치를 쓰는 것이 미워서, 그 보살을 욕을 해댔는가봐요. 이를 안 탄허 스님은 그 보살에게 “남편부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부처님께 마지를 올려서 무슨 덕을 보겠느냐”면서 야단을 쳤대요. 이 말을 전해들은 막내아들이 보살에게 자기를 위해 8년간이나 불공을 드려주었으니,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 불공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돼지저금통을 털어서 그날 저녁상을 아버지를 위해 근사하게 대접하고 절을 하였던 것이지요. 영문을 모르는 아버지는 전후사정을 듣고서는 겸연쩍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스님이 누구인가 알고 싶다면서 탄허 스님을 찾아와서 한 달 치 월급으로 대중공양을 냈는데, 절이니깐 만두와 국수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어떤 스님이 먹고 나서 일어서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왈칵 게워내서 방안이 국수 천지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 거사가 탄허 스님에게 크게 참회를 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탄허 스님은 그 거사에게 불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거사는 그 후에 원주에서 절을 짓고 불교 외호활동을 무척 하였어요. 나는 그 일화를 탄허 스님에게 간단하게 들었지요. 그런데 내가 원주에 법문하러 갔다가, 불심사라는 절에 가서 공양의 전후사정을 자세하게 들어서 알게 되었지요. 그 주인공이 알고 보니 원주시청에 다니던 공무원 불자였어요. 그 사람은 독실한 불자가 되어서, 탄허 스님에게 불심이라는 이름을 받고 시청에다가 여덟 명이 참가하는 불심회라는 거사회를 만들었고, 원주 시내에 불심사라는 절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월정사 출신인 현각 스님을 불심사 주지로 모시고 활동하였어요.

–탄허 스님의 강의는 유명하였지요?

그럼요. 나는 스님 강의를 청룡사에서도 들었지만 삼보법회에서 주관할 때에도 가서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들었지요. 스님의 강의는 종통, 설통이에요. 스님의 근본적 설명을 들으면 저절로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요. 환희심이 나고, 신바람이 나요.

–탄허 스님을 어떤 분으로 보시나요?

나는 스님을 종합적인 도인으로 봅니다. 종합적인 도인이에요. 스님은 유불선 모든 것에 달통하셨지요. 이런 스님은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스님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탄허 스님 생각이 나세요?

내가 강의를 하다 보면 스님 생각이 많이 나지요. 보통 스님들은 경전의 풀이밖에 하지 못하지만, 탄허 스님은 내용이 다 터져서 강의를 하셨어요. 다른 스님은 남의 말을 건성으로 하지만, 탄허 스님은 절대 남의 말을 설명하는 것이 아네요. 자기 체험 속에서 우러나온 것을 말씀하셨지요.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빙의 퇴마 구병시식 천도재 전문도량

(기공작법, 작계, 작지법으로 살활)

지리산 토암사 기도도량



- 빙의(귀신병) 신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 병원치료가 길고 잘 낫지 않는 분
- 집안에 우환이나 액운이 많은 분
- 사업이나 뜻과 같이 마음대로 안되는 분
- 기타 등등 전화상담만으로도 된다 안된다 속 시원히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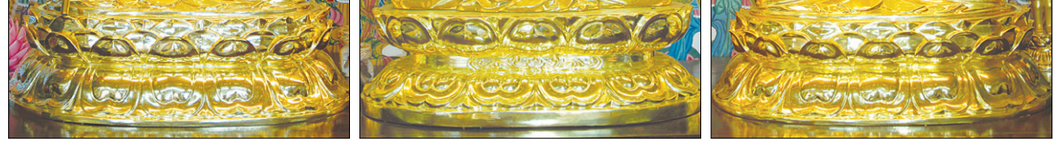
※오랜 수행 기도와 더불어서 성직자의 양심으로 발보리심 하여지이다.

인터넷 검색창 : 지리산 토암사 검색

주소_ 경남 산청군 시천면 원리 643번지 전화_ 055)974-0033. 055)973-4006
상담 및 예약_ 011-843-9295. 010-2634-2728

지리산 토암사 주지 혜산 합장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

禪은 알음알이 보다 의심을 소중히 여겨
선

수불 스님의
완릉록 선해 〈9〉


범어사 주지

다만 방편으로 허공에 비유하여 "원만하기가 태허공과 같아서 모자라거나 남음이 없다."고 하였다.

'태허공' 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양이 만들어지기 전 본래의 모습이다.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한계 그어질 수 없으므로, 할 수 없이 비유하여 겨우 '허공과 같다' 고 표현해보는 것이다. 위에서 인용된 구절은 삼조 승찬(僧璨)스님의 〈신심명〉에 나오는 말이다.

그저 한가로워 일삼을 것이 없어서, 다른 경계를 억지로 끌어들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설명하려 들면, 바로 알음알이[識]가 되고 만다.

삼승에서는 알음알이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일승에서는 그저 단도직입으로 계합해야 한다. 이 도리는 분별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명안종사는 학인이 도를 물어올 때, 눈앞에 분명히 드러난 실상을 즉각 보여준다. 이때 인연 있는 사람은 바로 계합하여 끝내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처음 가졌던 의심이 설상가상으로 더 깊어지는 것이다. 선(禪)은 언제나 알음알이가 아니라 의심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원성실성(圓成實性)은 의식의 바다에 잠겨서 나부끼는 쑥대처럼 유전(流轉)하네."라고 하였다.

원성실성(圓成實性)이란 본래자리를 말한다. 중생은 인연 따라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따라나서기 때문에, 본래 자리를 상실했다고 오해하고 부평초처럼 떠돈다. 그래서 고해(苦海)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불이(不二)의 도리를 밝히면, 망념이 일어나든 말든 그 자리는 늘 발밑에 여여하게 놓여있다. 항상 진리를 밟고 사는 사람은 고해가 그대로 피안임을 사무쳐 알기에, 어디서든 안심입명이다. 위의 말은 부대사(傅大士)가 〈금강경〉에 붙인 게송에 나온다. 이어지는 대목은 "남이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할진댄, 마음 밖의 자취에 끄달리지 말지니.(欲識無生忍 心外斷行蹤)" 이다.

그대들은 말한다. "나는 알았으며, 배워 얻었으며, 계합해 깨달았으며, 해달하였으며, 도리를 얻었노라." 하지만 자신 있는 데서야 뜻대로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약한 데서야 그 뜻이 통하지 않으니, 그따위 견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그대에게 이르노니, 한가하고 일 없도록 하여 쓸데없이 마음을 쓰지 말라.

평소 자신 있는 곳에서는 통하더라도, 사고라도 당해서는 혼비백산 한다면 그 공부는 아직 멀은 것이다. 황벽스님은 배휴에게, 자꾸 쓸데없는 질문을 늘어놓아 괜히 스스로의 마음만 엉키게 만들지 말고, 모든 알음알이를 내려놓고 일없음[無事]에 착안하라고 일러준다. 배휴는 황벽스님과의 첫 만남에서 뭔가 통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알음알이를 쌓는 공부가 아니라 모든 지견을 내려놓고 묵묵히 본래 일없고 청정한 본심으로 돌아가도록 당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됨을 구할 필요가 없나니, 오직 모든 견해를 쉴지니라."고 한 것이다.

한 번 마음을 밝혔으면, 이제는 내려놓고 쉬면서 믿음을 다져야 한다. 여기서 분별심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믿음에 의지하여 알음알이를 내려놓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이 공부를 방해하는 가장 커다란 장애가 알음알이다. 배휴는 평소 지식인인데다 불교공부를 많이 하여, 마음에서 알음알이가 자꾸 일어나 스스로 망상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조사들께선 마음을 밝히기 위해 수행에 임할 때는, 그동안 배운 것을 내려놓는 '사교입선(捨教入禪)' 을 하라고 당부했던 것이다. 위의 말은 승찬스님의 〈신심명〉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러므로 "내적인 견해와 외적인 견해가 모두 잘못이며, 부처의 도와 마구니의 도가 모두 나쁜 것이다."고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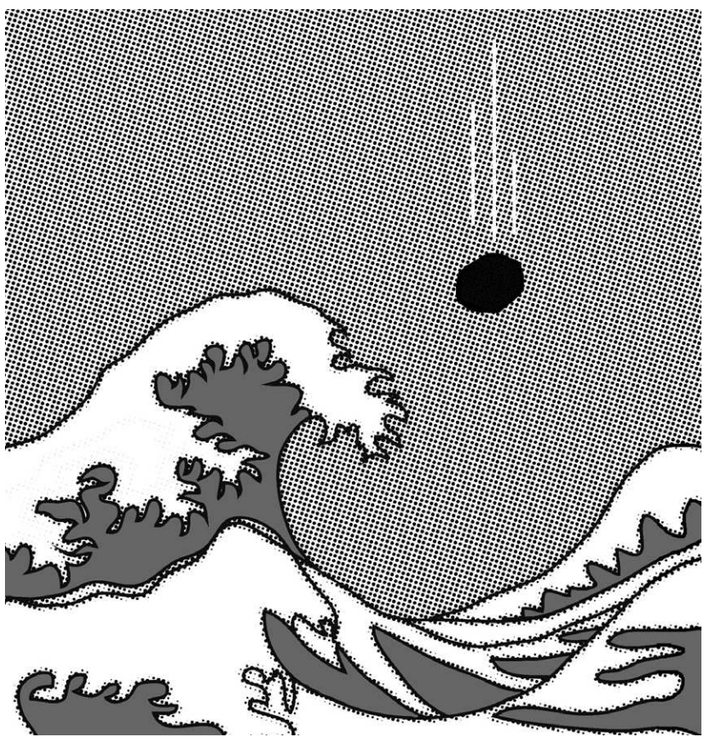
불법은 중도(中道)로서 언제나 불이법(不二法)이기에, 안팎이 따로 없다. 또한 본래 구족하여 새로이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새삼 부처의 도를 구할 바도 없고 마구니의 도라고 없앨 바도 없다. 그저 부증불감(不增不減)인 것이다. 또한 일심(一心)일 뿐이어서, 번뇌 즉 보리이며, 중생과 부처가 무차별이다. 선(善)을 세우기 위하여 악(惡)을 없애려는 순간 상대적인 이분법에 떨어지므로, 진정한 선(善)은 선악이나 시비가 끊어진 중도 자체인 것이다. 위의 인용은 보지(寶誌)화상의 〈대승찬(大乘讚)〉에 나오는 구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잠깐 상대적인 견해를 일으켰다가, 그만 두 철위산으로 떨어진 것이다.

철위산이란 세상의 끝에 있는 지옥과 같은 곳이다. 아무리 문수보살이라도 상대적인 견해를 일으키자마자, 바로 본지풍광과는 십만 팔천리로 멀어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제불요집경(諸佛要集經)〉에 나오는 대목이다.

문수보살은 참된 지혜고 보현보살은 방편의 지혜라고 한다. 하지만 서로 상대되는 참과 방편이 구경(究竟)에 이르러 참도 방편도 사라지면, 오로지 한 마음뿐인 것이다.

부처의 또 다른 그림자가 문수 · 보현을 낳았으니까, 문수 · 보현도 부처로 귀결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구경에 이르면, 참도 방편도 다 사라진다는 것이다. 다만 여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참도 필요하고 방편도 필요해서, 팔만사천 법문을 통해 인연의 끈을 열어놓은 것이다. 구경이란 근본 실상자리인데, 방편으로야 따로 구경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겠지만, 본연의 입장에서는 직하에 구경이고 선 자리가 그대로 진실되기[立處皆眞] 때문에 따로 구경을 논하지 않는다. 범부는 다만 미혹해서 선 자리가 그대로 구경처인 줄 모르는 것일 뿐이다.


그림 · 박구원

不二 의 도리 밝히면
그 자리는 늘 여여해
고해가 피안임을 알기에
어디서든 '안심입명'

장애가 곧 '알음알이'
이것이 망상 만드니
모든 지견 내려놓고
청정한 본심으로 돌아가야

불법 안팎이 따로 없으니
구족해 새로 얻을 바 없다
일심(一心)일 뿐이어서
중생과 부처가 무차별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⑧⑤



"화를 낸다든지 해친다든지 하는 마음을 결코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승만경〉

명언(名言) 제조기

이 '에세이 경구' 를 기획하게 된 것은, 불교에는 명언이나 금언(金言)이 참 많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명언, 금언, 격언, 그리고 속담들은 말은 간략하지만 그 의미는 풍부한 말이다.

우리가 지금 '경(經)' 으로 옮기고 있는 '수트라(sūtra)' 라는 산스크리트 단어 역시 그러한 의미의 말이다. 아주 간략한 경구(警句)를 '수트라' 라고 한다. 너무나 짧아서, 도저히 그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석서가 필요해진다. 주석서가 탄생하는 배경이다.

그러한 명언들을 좀 찾아서 대중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기획의 성패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들의 평가가 있으리라 보지만, 실로 경전은 명언의 보고(寶庫)임을 나는 새삼 느끼고 있다. 경전 자체가 '명언 제조기' 에 다름 아니다.

그런 한편으로 우리 불교사의 많은 스님들 역시 명언을 남긴 분들이다. 그 중에, 내가 참으로 기이(奇異)하게 생각하는 '명언 제조기' 는 신란(親鸞)스님이다. 오늘 우리가 읽는 명언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신란 스님의 명언이 있다.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그대의 눈 앞에서 누군가가 그대의 아이를 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는 그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놀라운 말씀 아닌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만약 불교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한다"고 한다면, 그 근거로서는 이 이상 더 명확한 것이 있을 수 없다. 〈법구경〉에서도,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원한을 잊음으로써만 원한은 갚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이 부처님 말씀의 의미를, 신란 스님만큼 더 분명하게 주석한 분은, 내가 아는 한, 없다.

전쟁의 심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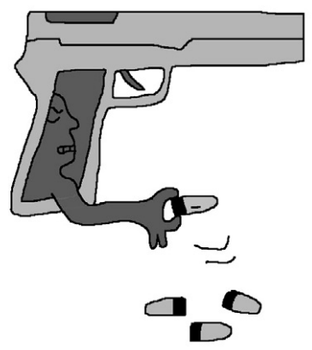
화를 내는 마음, 이를 우리 불교에서는 세 가지 독한 마음(三毒)의 하나로 일컫는다. 진심(嗔心, 瞋心)이 그것이다.

우리는 진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진심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듣고 말하곤 한다. 불교에서는 늘 그렇게 강조해 왔다.

그런데 유감인 것은, 그것을 항상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만 말해 왔다는 점이다. 진심을 포함하는 세 가지 독한 마음을 버려야 열반에 들 수 있다는 식으로만 말이다. 옳은 말씀이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은 개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서도, 세계로서도, 인류로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 그런 점에서, 승만부인의 서원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중생에 대하여 화를 낸다든지 해친다든지 하는 마음을 결코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윤리, 혹은 세계윤리의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 점은 좀더 분명히 의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테러, 그리고 학살 등은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림 · 박구원

진보하지 못해서도 아니고,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류의 지식들은 충분히 발달했지만, 우리들 마음 속에서 "화를 내는 마음"은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일어나는 폭력들은, 전쟁들은, 탐욕도 탐욕이지만, 그 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는 마음"을 어쩌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본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화를 내는 마음"을 내다버리는 것은, 바로 전쟁을 예방하는 일로 연결된다. 그럼 악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가? 화를 내는 대신,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자. 그리고 안타까워 하고, 염려하자. "화를 낸다든지, 해친다든지 하는 마음"의 포기를 우리 불교만큼 명확하게 설하는 가르침이 또 어디 있을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전쟁이나 폭력에 대하여 불자들만큼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성지순례와 함께하는 엔터테인먼트 골굴사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 변 성 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단 체 공 양(식사)** : 예약가능(유료)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11시, 오후3시 30분(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원효성사 성지 혈사(穴寺) 12처 석굴사원

골굴사에서 범종 도안(디자인) 기능 보시를 권선합니다

"굴속에 들어 기도를 하니 일만 근심이 사라지고, 마애여래불의 서광이 해마다 기적을 나툰다"라 기록된 신라 함월산 기림사사적기(1740)나 겸재 정선의 '골굴석굴도', 정시한의 '산중일기' 에 보이는 골굴사는 15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천생 석굴을 갖춘 아름다운 기도 도량입니다.

선무도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국제포교도량 골굴사에서는 원효성사의 일심 · 화쟁 사상을 담아 세계인의 평화를 기원하는 범종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종의 도안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재능 있는 불자 예술가의 기능 보시를 권선합니다.

골굴사 천년 미래의 꿈을 장인의 예술혼으로 승화시킬 범종 도안에 큰 서원을 품은, 뜻 있는 예술가의 열정과 재능을 기다립니다.

■ **도안의 내용 :**
신라 천년을 품은 골굴사의 역사, 원효사상, 선무도,
21세기 신 문화콘텐츠를 지향하는 메시지



문의 054)744-1689. 745-0246
대한불교조계종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원효성사 범종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초의 스님 신문물 접한 통로는 추사

조선 후기 남종화의 우뚝한 거인, 소치 허련(1809~1893)은 시 · 서 · 화에 능했던 인물이다. 그는 초의와의 첫 인연을 "을미년(1835) 대둔사 한산전으로 초의스님을 찾아 갔다.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방을 빌려주어 머물게"했다고 〈몽연록〉에 기록했다.

이후 소치는 초의의 문하에서 불화를 공부하는 한편 스승 초의의 소개로 해남 윤씨 가장본인 공재화첩과 〈고씨화보〉를 자유롭게 열람하는 등, 그의 예술적 안목은 날로 높아졌다. 1938년 초의는 금강산을 유람하고, 이듬해 추사에게 소치가 임모한 그림을 보여 주었다.

한 눈에 소치의 재주를 알아본 추사는 "허군의 그림 격조는 거듭 볼수록 더욱 묘해 이미 격을 이루었다고 할 만 합니다"라고 평가하고, 초의에게 "가령 (소치가) 한양에서 지낸다면 그의 향상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라 하였다. 이 편지를 받은 초의는 급히 소치의 상경을 재촉하는 편지를 보낸다.

이에 소치는 1839년 8월, 내종형을 따라 상경하던 길에 소사 근처에서 우연히 초의를 만나 함께 칠원점에서 하루를 보냈다. 이들의 벅찬 해후의 감격은 언설로 표현하기 어려웠으리라. 한편 소치가 추사 댁에 머물며 식견을 탁마한지 근 일 여년만에 추사는 제주로 유배되는 등, 혹독한 정치적 시련기를 겪는다. 하지만 소치는 유배지 제주를 왕래하며 스승 곁에서 화삼매(畵三昧)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추사의 편지에 종종 언급되었는데, 특히 〈완당전집〉〈여초의〉27신과 〈나가묵연첩〉, 〈영해타운첩〉에 수록된 이 편지는 스승 곁에서 그림 수업에 열중했던 정황은 상세한데 그 내용은 이랬다.


추사의 편지가 있는 〈나가연묵첩〉

주자 친필 '수' 표류로 분실
소치의 안목 높아짐에 자부심

지난번 한 장의 편지와 함께 주자선생이 쓴 목숨 수(壽)자 및 시헌력을 동봉해 보냈습니다만 생각지도 않게 배가 바람에 멀리 표류되어 편지와 물건이 전달되지 못한 것은 비록 애석한 일이지만 이것에 놀라서 아직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줄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배안의 사람들은 끝내 관음경 한 구절도 읽을 줄 아는 자가 없었단 말입니까. 봄날이 날로 화창한데 스님의 형편은 길하고 상서로워 서로 들려줄 만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면(河面)은 찡그림도 없는 것인가요. 이 몸은 더욱더 의욕이 없어지니 산중의 승려에게 이야기하기가 자못 부끄러워 낯이 붉어질 지경입니다. 날마다 허 소치에게 시달림을 받아 이 병든 눈과 팔을 애써 견디어 가며 쓴 병첩이 상자에 가득 차고 바구니에 가득합니다. 모두 (소치의) 그림 빚을 나에게 대신 갚게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도리어 한번 웃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이만… 나수 2월18일

(頃付一書并朱夫子書壽字及憲莫同[臧] 不料船風遠漂 書物之未達 雖可惜 未及計此驚甚尙不定船中之人竟無解讀觀音經一句者歟 春事日鬯 禪安吉羊 有何好事相聞否 河面能不皺否 此狀頹放益甚 向山中法侶說道 殊愧赤耳 日爲許痴所困強 此病眼病腕 所收屛帖盈箱溢篚 皆其畵債而使我代償如此 還覺一笑 餘姑不具 那叟)

이 편지는 대략 소치의 세 번째 방문 시기인 1847년 2월 18일경에 쓴 것이라 짐작된다. 당시 추사는 눈병과 장독이 심했음에도 "날마다 허 소치에게 시달림을 받아 이 병든 눈과 팔을 애써 견디어 가며 쓴 병첩이 상자에 가득 차고 바구니에 가득"하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소치의) 그림 빚을 나에게 대신 갚게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도리어 한번 웃을 뿐입니다"라고 한 희언이 눈에 띈다. 이는 추사가 제자 소치의 화삼매(畵三昧)의 격조가 더욱 고상해짐을 칭찬해서 그리 표현한 것은 아닐까. 언표의 깊이가 더욱 돋보인다.

한편 추사는 주자의 친필본 "수(壽)"를 초의에게 보냈건만 배가 표류되어 전달되지 못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따라서 초의가 중국의 신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통로는 추사였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시끄러운 시장통이 내게는 신성한 도량"

법현 스님 (저잣거리 포교 열린선원장)

'저잣거리.' 가게가 죽 늘어서 있는 거리를 의미하는 이곳은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향수가 그대로 묻어 있는 곳이다. 또한 역동적이면서도 그 내면에는 훈훈한 인심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 갈현동 역촌중앙시장은 대표적인 서울의 저잣거리다. 지하철 3호선으로 이어지는 베드타운(Bed Town)들이 형성돼 있어 유동인구도 높은 편이다. 주위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분주함은 살아 있다.

이곳에는 특별한 사찰이 있다. 바로 태고종 열린선원. '저잣거리 포교'를 기치로 내세운 법현 스님은 2005년 6월 5일 이곳 시장통 상가 한 가운데에 작은 사찰을 개원했다. 스님은 꼬박 8년을 시장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전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온오프라인 포교의 첫 열린 만남

스님을 찾은 날에도 시장 상인과 손님들을 위한 백중 법회 준비로 부산했다. 궁금했다. 왜 스님은 시끄러운 시장에서 전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을 던졌다. 망설임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대부분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전법의 대상은 지위고하와 연령이 나눠있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불교 인구는 약 5억 명 정도입니다. 60억 인구 중 55억 명은 불교를 모른다고 봐야지요. 그들 모두에게 불교를 알리는 것은 한계도 있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안하는 것은 부처님 제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생업 중인 시장 상인과 오가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포교해 불자로 만드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인만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호흡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곳에 선원을 열게 됐습니다."

법현 스님의 열린 선원은 '저잣거리 포교'의 시초라는 것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포교의 첫 만남'이라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지난 2001년 인터넷 카페 '열린 절'을 개설 · 운영해온 법현 스님은 600여 명의 회원들과 불교 교리와 문화, 역사, 수행법 등을 나눴지만 함께 토론하고 수행할 공간이 필요했다. 수소문 끝에 사이버 교육공간의 실습장과 저잣거리 포교 등 새로운 포교의 방편 도량인 열린 선원이 개원하게 된 것이다.

시장 식구들이 신도이자 도반

스님은 이곳에서 음력 법회를 지양하고 토 · 일요일 정기법회와 17차례의 열린불교아카데미와 명상문화아카데미를 개최해 불교의 생활화와 현대화를 도모했다. 일찍 세상을 뜬 시장 상인들과 가족에 대한 천도재도 지내줬다.

이제는 신도 700명이 있는 도량으로 성장했지만 그 과정은 가시밭길이었다. 개원 당시 같은 층에는 기도원과 3층에는 교회가 있었다. 3층 교회의 경우 문을 닫았지만 처음부터 견제가 만만치 않았다. 심지어는 개원 인사를 하러 간 스님에게 3층 교회 목사는 교회 주보에 나온 예배시간을 보여주며 "시간을 피해서 기도하라"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시장에 웬 절이냐, 손님이 끊긴다", "재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상인들이 적지 않았다. 스님은 스스로 낮아져 그들의 눈높이에서 생활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웃으며 그들의 대소사를 챙겼다. 살가운 스님의 인심은 그들의 마음을 녹였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안면을 트고, 물건도 사주고 했지요. 우리 선원은 영세해서 공양주가 없거든요. 반찬가게 가서 내가 먹을 반찬도 사고, 떡집이나 과일가게에 가서 부처님에게 올릴 공양물도 샀습니다. 그들이 선원에 오든 안 오든 그것은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 선원에 와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열린' 도량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와 시장 구성원들은 한 식구나 다름없지요."

스님에게 시장 상인과 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신도이자 도반이고 식구이다. 천도재 소리가 시끄럽다며 화를 내던 시장 상가의 사장은 이제는 "사찰이 잘돼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떠는 신실한 신도가 됐다. 부처님오신날 연등 달기에도 시장 상인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상인과 손님들에게 개원 8년차의 열린선원은 원래부터 자리하고 있던 뿌리 깊은 고목이 된 것이다.

'불법 홍포'… 평생의 원력

사실 법현 스님은 지금까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불교 포교에 매진하며 살아왔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평택 명법사 학생회 활동을 하며 처음 불교를 접한 이후부터 수행자가 된 지금까지 그랬다. 중앙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이후 시작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는 서울지부장까지 역임하기도 했다.

대학생 때에는 평택에서 학교를 통학하며 버스와 지하철에서 매일 불교를 알리려고 노력했다. 불교 관련 자료를 정리해 차 안의 승객들에게 나눠주고 팔정도와 육바라밀 등 불교 교리에 대해 설명했다. 어떻게

2005년부터 갈현동 시장에
사찰 개원… 불법 홍포 앞장
"시장에 웬 절이냐"던 상인들
이제 신실한 버팀목 자리매김

복지두레위원, 공동체추진위원
지역공동체 위한 활동도 '열심'

'불교식 차례 운동'의 첫 효시
탈핵 운동 선구… SNS 포교도
"불법은 생활 속에 있다" 강조

하든 유익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싶었던 20대 청년의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그래서였던지 화를 내거나 반발하는 승객은 거의 없었다.

"승객들에게 당연히 양해를 구했지요. 그리고 불교 관련 자료를 나눠줄 때에도 관심이 없는 분들은 버리지 말고 다시 돌려달고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것이였고, 대부분 돈을 주고 산 것들이어서 아껴야 했습니다. 실제로 대불련 활동을 할 때도 돈이 없어서 밤에는 은행에서 숙직 대행을, 낮에는 도서관에서 장서 정리를 돕는 아르바이트를 해야할 정도였으니까요."

태고종으로 출가하고 수행자가 돼서도 스님의 관심은 당연히 '포교'였다. 당시에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관심이 많았다. 그들에게 쉽게 불교를 전하고 싶었던 스님은 YMCA까지 찾아가 레크리에이션을 배웠다.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쉽게 불교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런 인연으로 지금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직을 1990년부터 1998년까지 8년간 맡으며 협회 발전에 기여했다.

"레크리에이션 하면 춤, 노래, 게임 같은 걸 연상하지만 본질은 말 그대로 '재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여가 선용인 거죠. 그런 의미라면 참선만한 레크리에이션이 없습니다."

더욱더 사회와 생활 속으로

법현 스님이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수식어가 있다. 바로 '불교식 차례 올리기 운동'이다. 올해에도 9월 8일 열린선원에서 추석 차례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현스님은 차례 올릴 때 차를 올리지 않고 술을 쓰


2011년 대한불교진흥원 법당에서 열린 법현 스님 초청 추석 시연 다례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발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VIP형 ~~49,000원~~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94년도 보이차茶

본초강목습우(本草綱目拾遺)
"보이차고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보이차는 장을 원활하게 하여 그 움직임에 걸림이 없게 한다. 보이차는 까만 옷 빛깔과 같은데 술을 깨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보이차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을 풀어주며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그 즙을 잘 생기게 하는 바, 그 효능은 참으로 크다. 입안에 목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차고를 5분정도 머금으면 다음날이면 낫는다. 데었을 때도 상처에 바르면 치료된다."

사모채방(思茅採訪)
"소화를 도와주며 한랭한 기운을 몰아내고 해독작용을 한다."

백초경(白草經)
"풍이 생기거나 음식이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화기가 일때.....보이차 두잔을 끓여서 복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운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청나라 오대운(吳大勳)의 전남견문록
"보이차의 효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다스린다. 막힌 것을 뚫고, 풍한(風漢)을 치료한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물건이다." 라고 극찬.

물리소지식(物理蘇知識)
"보이차는 쪄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서번에서 사 갔으며, 모든 물건을 잘 소화한다."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飮食譜)
"차는 약하게 쓰고 달며, 찬기운이 있다. 보이차는 맛과 기운이 강하고 세며 구토, 풍, 가래에 좋고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장염이나 이질, 콜레라도 치료한다.

94년도 산차 120g



94년도 산차 120g
차통(자사) 크기 : 높이 9㎝ × 지름 7㎝
◆ 가액 : 11만원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법현 스님은 … 운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서봉 스님을 계사로 1985년 사미계를, 덕암 스님을 계사로 1991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중앙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을 마치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수료했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활동을 하며 불법 홍포의 원력을 세웠으며, 높은 신심으로 대불련 서울지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 교무부장, 사회부장, 교무부원장 등 종단 중책을 두루 역임했으며, 현재는 열린선원장으로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운동을 90년대 초부터 전개해 왔다. 1997년도에는 천중사에서 제1회 불교식 차례시연회를 개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는 각 종단의 의식집과 의식관련 논문, 다도서적에 인용되고 있다. 2005년도에는 학술적으로 고찰해 보조사상연구원 정례세미나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충담 스님의 미륵부처님께 차올리기'가 바로 차례의 시초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종교와 사상인 불교와 유교가 모두 차례를 중시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초의선사보다 먼저 차와 관련된 시를 지었던 한재공 이목(李穆) 선생이 조상님께 지낸 제사 흘기(笏記)에서도 '국을 내리고 차를 올렸다(撤羹奉茶)'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종교와 사상에 관계없이 우리 조상들은 제사와 차례에 차를 올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례 없이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림으로서 부부의 인연을 맺는 '불교식 화혼' 운동을 펼친 것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중의 일상생활에 녹아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들이다.

지역 사회 현안을 살피는 데에도 열심이다. 스님은 갈현2동 복지두레위원, 공동체복원추진위원 등을 맡으면서 마을 대소사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탈핵운동으로 활동 지평을 넓혔다. 불교생명윤리협회 집행위원으로서 탈핵 관련 단체 연대 운동과 서울·경남 탈핵학교에서 강연을 진행 중이다. 9월 3일에는 탈핵을 위한 춘천-양수리 도보기행에 동참하기도 했다.

기본이 되는 불교 교육과 포교

사회운동, 종교간 대화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스님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다. 불자들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알아야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어서다. 즉,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열린선원의 정식 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4개월 과정의 명상문화아카데미에서 불교사상·의례의 기초 등을 배워야 한다. 2010년 사찰 자체의 '한글법요집'을 발간해 의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모두 대중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하려는 시도였다.

이번 백중 법회도 이런 스님의 철학이 반영됐다. 일반적인 사찰에서 백중은 조상의 은덕을 기리기 위한 천도재를 지낸다. 하지만 스님은 칠석부터 백중까지를 특별정진기간으로 삼았다. '만남의 칠석에서 보냄의 백중까지 생사참구팔정도 정진'을 주제로 열린 특별정진은 매일을 팔정도의 가르침에 맞춰 정진하는 날로 삼아 수행토록 참가대중을 독려했다.

"일반적으로 백중을 재를 지내고 은덕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저는 정진을 기반한 기도와 의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함경에서 팔정도의 내용이 실린 경문을 찾아 모아 필요한 부분을 의식 속에 넣어서 9일 동안 정진시간에 독송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추선공양의 식도 법회의 마지막에 올렸습니다."

최근 스님은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관심이 많다.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해서 스님의 짧은 글과 단상을 구독하는 사람만 수만 명에 달한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SNS를 포교에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불교 한글 의식집을 만드는 것도 스님의 목표다. 대부분의 불교 의식들이 스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는 대중들이 주체가 되는 의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종교에서 의식은 그 가르침을 의례화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님들이 진행하는 의식에서 대중들이 주체로 하는 수행 차원의 의식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 같은 취지의 한글 의식집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불교는 더욱더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심우도의 마지막 장면은 '입전수수(立廛垂手)'로, 한 스님이 큰 걸망을 지고 저잣거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깨달음을 얻고 거리로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는 경지가 부처에 이르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다.

지금도 대중에게 불법을 알리기 위해 시장통을 분주히 오가는 법현 스님의 모습에서 심우도의 마지막 장면이 겹쳐진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는 해묵은 명제도 스님의 열린 공간 안에서 상존하고 있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2012년 은평구청장과 함께하는 이야기 콘서트에서 법현 스님이 갈현 2동 대표로 발언하고 있다.

전법일기

친구의 과오를 함께 나눈 108배

영어담마캠프(2)

이번 영어담마캠프는 시작부터 느낌이 좋다. 특히, 외국인 교사들의 밝고 적극적인 반응과 참여가 전체분위기를 설레게 한다. 교사 연수가 있는 날 그들은 누구보다 일찍 도착했다. 서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캠프송을 배우자 흥겨워 지기 시작한다.

노래지도는 내가 지도법사로 있는 전문성악인들로 구성된 불교계유일의 혼성4부 중창단인 LMB 싱어즈의 단원이 해주었다. 서로 다른 인연으로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위해 모인 18명의 교사들과 12명의 봉사자들의 마음은 노래로 하나가 된다. 특히, 캠프의 주제인 마음모으기와 관련된 'Breathing in, Breathing out' 노래를 배울 때 우리의 세포 하나 하나는 전율한다.

Breathing in, breathing out.(숨을 들이쉬고, 내쉬고)/Breathing in, breathing out.(숨을 들이쉬고, 내쉬고)/I am blooming as a flower.(나는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고)/ I am fresh as the dew.(나는 이슬처럼 신선합니다.)/ I am solid as a mountain.(나는 산처럼 단단하고)/ I am firm as the Earth.(나는 지구처럼 단단합니다.)/ I am free.(나는 자유롭습니다)

아이들이 이 노래를 통하여 마음속 꽃을 피울 생각을 하니 벅찬 희열감이 밀려온다. 이번에 교사로 참가하는 캐더린은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캠프에 자원했단다. 안나 마리아는 헝가리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한국문화을 좋아하며 한국어에 능통하며 5개 국어를 하며 특히 불교를 좋아한다. 라노는 카자스탄에서 서울대학교에 온 교환학생이다. 연등축제에서 외국인 서포터즈로 활약하면서 사찰생활에 호감을 갖게 되어 지원했다고 한다.



그림 · 박구원

영어담마캠프를 매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사가 원어민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어만 잘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불교에 대한 호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입재식과 사찰안내를 시작으로 친구사귀기 시간을 통하여 친해진 아이들은 어느새 형, 아우가 된다. 핸드폰이 금지된 상황에서 아이들은 서로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다. 관심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것으로 표현하다 보니 쉽게 다툼으로 번진다. 분쟁을 말리고 돌아서기가 바쁘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아이들이 점점 참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어 걱정이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 끝에 벌칙을 정했다. 앞으로 친구를 놀리거나 욕하거나 싸우면 108배를 해야 한다고 하니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진다. 드디어 4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놀렸다. 또한 한쪽에서는 남자아이들이 작은 물건으로 다퉜다. 오후 일정이 끝나고 극락보전에 모여 108배의 벌칙을 받으러 오라고 했다. 안나가 자기도 108배를 함께 하겠다고 자원을 한다. 그럼 아이들이 해야 하는 절을 줄여주겠다고 했더니 캐더린도 동참하겠단다.

"안나와 캐더린 선생님이 더운 날씨에 108배를 하는 것이 안쓰러워 함께 해주신대요. 선생님이 하시는 만큼 벌 받을 친구들 절을 줄여주겠어요. 혹시 친구를 위해 108배를 함께 나누어 할 사람 있나요?"

그러자 3명의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든다. "스님 저요." 기특하다. 친구를 대신해 함께 108배를 하겠다니…. "그래 이름을 적어보자!" 하니 아이들이 너도나도 같이 하겠다고 손을 든다. 감동적이다. 순간 한사람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본다. 안나가 참으로 고맙다.

법당에 6명의 악동들과 친구를 돕겠다는 10명의 꼬마들 그리고 외국인교사 2명이 모였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절을 해야 할지를 머리를 맞대고 계산을 했다. 1인당 35배만 하면 된다. 우리는 큰 소리로 '지심귀명례 석가모니불'을 외치며 참회의 절을 했다. 온 도량을 울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부처님은 불단 위에서 그저 빙그레 미소만 지으신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남성용 여성용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 삼재 조심

2013년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 다라니 福 지갑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 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 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불교, 국민의 삶 윤택하게 돕는다"

푸틴 대통령, 부리야트 불교 사원 방문서 언급

"러시아는 유럽에서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유일한 나라다."

러시아연방 순방에 나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첫 순방지인 부리야트 공화국에서 이같이 말해 주목된다.

〈시베리안 타임즈(Siberian Times)〉 지에 따르면, 부리야트 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데(Ulan-Udae)의 외곽에 있는 이볼긴스키 사원(Ivolginsky Datsan)을 찾은 푸틴 대통령은 "연방정부는 시베리아에서 불교의 역사성과 그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연방정부는 불교가 더욱 성장해 부리야트 공화국, 나아가 러시아연방의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베리안 타임즈〉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볼긴스키 사원의 스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판디토 캄보(Pandito Khambo) 스님과 깊은 친분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푸틴은 "표트르 대제의 딸, 엘리자베스 황후에 의해 공인된 불교는 러시아 황실의 대관식을 집전한 정도로 발전해 나갔지만,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쇠퇴했다고 들었다"며 "그 와중에서도 '자비와 연민'의 도리로 러시아의 고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삶에 공헌한 점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다.


부리야트 공화국 수도 울란우데(Ulan-Udae)의 이볼긴스키 사원(Ivolginsky Datsan)을 배경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 매 앞줄 중앙)이 사원의 스님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볼긴스키 사원(Ivolginsky Datsan)은 1945년에 지어진 이후 러시아의 공산정권을 견뎌낸 유일한 불교사원으로 널리 알려졌다. 부리야트 공화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방을 대표하는 사원으로, 법당과 도서관은 물론 러시아연방의 유일한 '불교대학' 등이 있다. 이 대학에서는 철학과 티베트 전통의술 등이 연구·전승되고 있다.

한편 이볼긴스키의 담바 야유쉐에프(Damba Ayusheyev) 스님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불교계는 불교대학의 신설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불교대학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교대학 재학 중 군대 징집을 연기해 줄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베리안 타임즈〉 지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연방의 대학 재학 기간 동안 군대 징집을 연기해주는 반면, 불교대학의 재학생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불교는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돕는다'는 고귀한 사명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다"면서 "시베리아 불교계의 요구를 충분히 들었고, 러시아 연방정부는 민족과 종교의 벽을 넘어 화합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볼긴스키 사원 측의 요청을 수용했다.

〈시베리안 타임즈〉에 의하면, 러시아 불교계의 주류는 티베트불교로 볼 수 있으며, 최근 들어 상좌부와 대승부 불교도 성장하고 있다. 특히 아무르(Amur) 주, 하바롭스크(Khabarovsk) 지방, 투바(Tuva) 공화국, 칼미크(Kalmyk) 공화국, 부리야트(Buryatia) 공화국, 치타(Chita) 주에 집중되어 있던 러시아 불교계가 모스크바(Moskva),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burg) 등지에서도 눈에 띄는 포교를 전개하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명상하면 맥주가 나오는 네덜란드의 자판기. 명상과 맥주로 피로를 잊어보라는 마케팅 아이디어가 재미있다.

명상하면 맥주 무료로 드립니다

독특한 마케팅으로 고객 사로잡는 네덜란드 맥주회사

명상이 마케팅 수단에 활용돼 톡톡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의 한 맥주회사가 맥주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을 택한 것. 암스테르담에 공짜 맥주 자판기를 설치하고 3분간 명상을 하는 사람에게 맥주를 주는 것이다.

이벤트는 현대인들이 일상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혼자 있는 평화로운 시간을 통해 풀어보라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광고회사 측은 "잠시도 가만있지 못 하는 요즘 사람들을 보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쉴새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게임에 몰두해 있는 이들을 위해 잠깐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조용히 3분간 명상을 한 후 맥주를 마시며 일상을 다시 음미해 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맥주를 마시려면 버튼을 누른 후 3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명상에 잠겨 있으면 된다. 도중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탈락이다.

실제 이벤트에 참여한 이들을 찍은 영상이 유튜브에 등록돼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동영상에는 이채로운 명상에 참여하려는 이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배현진 기자

중국불교협회 60주년 맞아

베이징서 지난달 26일 기념식


위정성(Yu Zhengsheng, 중국 중앙정치국, 사진 왼쪽 맨 앞) 위원장과 류옌둥(Liu Yandong, 중화인민공화국, 사진 왼쪽 두번째) 국무위원이 중국불교협회 회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60주년 기념식장'에 등단하고 있다.

중국불교협회(Buddhist Association of China)가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신민보(xinmin.cn)〉 지는 지난달 27일 "중국불교협회가 7월 26일 베이징에서 중앙정부 최고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60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고 보도했다

위정성(Yu Zhengsheng,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장은 "불교는 중국의 개방·개혁의 염원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교계의 그러한 노력은 중국의 경제 개발은 물론 사회 안전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 위원장은 "중앙정부는 불교의 가르침이 널리 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국인들이 보다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내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옌둥(Liu Yandong,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은 "중국불교협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이에 힘입어 사회적 선(善)과 경제적 힘(力)이 신장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경사스러운 구름


中 푸젠성 관세음보살상의 버섯군

중국 푸젠성(Fujian, 복건성) 난징(Nanjing)의 한 사찰에 봉안된 관세음보살상(높이 2.68미터)에 버섯 군이 자라나 화제다. 〈글로벌타임즈(globaltimes.cn)〉 지는 지난달 28일 "푸젠성 난징군에 있는 체토안사(chetouan temple)에 버섯 군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찰 측은 "올해는 사찰 주변의 습도가 매우 높아, 보살상의 손과 가슴 부위에서 버섯이 자생하게 된 것 같다"며 "사중의 스님들은 버섯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를 달리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즈〉 지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은 이 버섯 군을 '경사스러운 구름(auspicious clouds)'으로 부르고, 관세음보살상을 친견하기 위해 사찰을 찾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매사추세츠, 불교공원묘지 생긴다

티안 앤 사원, 47.5에이커에 화장터 추모관 등 설치

美 매사추세츠 주 동남부의 도시, 애틀버로(Attleboro)에 첫 '불교 공원 묘지'가 들어선다.

〈더썬크로니클(The Sun Chronicle)〉 지는 7월 26일 "애틀버로 시의회가 티안 앤 사원(Tian Ann Temple)의 토지 개발 계획을 승인, 조닝(Zoning)지역에 불교 공원 묘지가 들어서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티안 앤 사원은 지난 6월 부동산개발사인 아더 케이트로부터 조닝의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경계선에 위치한 터버(Thurber)에 47.5에이커의 부지를 매입하고, 애틀버로 시의회에 '불교 공원 묘지 개발안'을 제출했다.

티안 앤 사원의 주지 에드워드 로 스님은 "시의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매입부지 중 17에이커에만 화장터와 추모관을 건축하고, 나머지 부지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세계 경매시장, 불교미술품 '강세'

낙찰가가 3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15C 금동불상〈사진〉이 9월 16일 뉴욕 본햄 경매에 출품된다.



불상은 1403~1424년 사이에 중국에서 제작된 관세음보살상으로 명나라 영락제 시대에 주조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경매 시장에서 불교미술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10일에는 영국 헨리 알드리지앤선(Henry Aldridge & Sons) 경매에서 티베트 불교미술품이 우리 돈으로 2억 4천만원인 21만 달러에 낙찰됐는가 하면, 프랭크 마샬(Frank Marshall) 경매에서 관음상이 비슷한 금액인 2억 6천만원에 팔렸다.

배현진 기자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회의진행법 등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기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의 : 종합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 개인지도,출장강의 - 직접 상담 후 결정
◆ 장소 : 본 연구원 강의실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교육 : 우불 김철회 박사 < 직접지도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2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50년근 산삼을 하루 한뿌리씩!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분이 진하게! '셀원' 출시
7일이면 몸이 달라지고 한달이면 다시 태어납니다!

전설 속의 명약 '산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초가 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첫손에 꼽는 것이 있다. 바로 산삼이다. 산삼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거나 먹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산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나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산삼을 먹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산삼은 전설 속에 존재하는 약초인양 멀게만 느껴져 왔다. 동양의학 최고의 신약(神藥)으로 칭송 받는 산삼은 몸을 보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막힌 곳을 트여줄 뿐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만들어 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시중에서 산삼을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수십년 묵은 산삼을 찾았다 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산삼은 그야말로 존재는 하지만 볼 수 없는 전설 곳의 명약인 셈이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산삼의 놀라운 효과

심마니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조차 산삼을 발견하면 '심봤다!' 라고 외칠 만큼 산삼은 발견하기 힘들다. 산세가 좋고 풍수가 뛰어난 심산유곡에서 일조량, 토양, 고도, 지형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고귀한 존재인 산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식물이며 그 효과 또한 무궁무진하다.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등에 따르면 산삼은 원기를 북돋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 폐, 간, 신장 등 오장육부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한다. 그리고 항암작용, 노화예방, 정력증진, 동맥경화, 갱년기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한다. 진세노사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포닌 또한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 이상 함유되어있다.

50년근 산삼의 신비

산삼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 가장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삼' 과 '장뇌삼' 이다. 하지만 이는 유전적인 차이로 인해 산삼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없다. 그리고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산삼 배양근'이 있다. 하지만 유전적, 후생유전적 변이 발생으로 인해 최종 산물 변이 발생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산삼의 잔뿌리만 배양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신기술이 나왔다. 산삼의 '줄기세포' 만을 순수하게 분리 · 배양하는 기술(특허 제 10-1064518호 / 저장근을 가지는 초본식물의 형성층 유래 식물줄기세포주 및 이의 분리 방법)이 개발된 것이다. 이 신기술을 통하여 '한국산삼감정협회' 에서 인증한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를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강원도에서 채취한 50년근 산삼의 효능 · 효과를 유전적 변이 없이 100% 완벽하게 복제한 것으로 실제 산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산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50년근 산삼 24뿌리 '셀원'

강원도산 50년근 산삼 24뿌리가 담겨있는 '셀원' 은 그 동안 극소수만이 누려왔던 산삼의 효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특허 받은 기술을 통해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 24뿌리분을 추출하여 한 병 한 병에 진하게 담아냈다. 섭취와 흡수에 좋은 액상형태인 '셀원' 은 하루 1병씩 손쉽게 섭취가 가능하니 진정 '하루에 산삼을 한 뿌리씩'먹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옛날 임금님조차 이루지 못했던 불로장생의 꿈을 현대에 와서 이룬 쾌거라 할 수 있다. 이제 '셀원'을 통해 하루 산삼 한 뿌리를 먹는 특별함을 느껴보도록 하자.

에이지아이생명과학
상담문의 080-830-0303



주련(柱聯) 성찰이라는 시간의 흔적을 적다

주련, 불자라면 누구나 익숙해 있어 쉽게 휙 지나가버리는 단어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기둥이나 벽에 세로로 써 붙이는 글씨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적한 산길을 걷다 보면 오래된 절집을 만날 수 있다.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는 마루나 기둥을 보다보면 그곳에 붙어 있는 글에 눈길을 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인생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는 '주련(柱聯)' 이다.

삼보불교카렌다 김두형 사장은 삶이 녹아있는 주련의 세계가 널리 알려지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항상 볼 수 있도록 달력으로 제작 보급 하고 있다.

"산사에 있는 오래된 절의 주련은 부처님 말씀이나 대선사님들의 게송으로 주옥처럼 빛나는 감동적인 내용이지만, 대부분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 접근과 이해가 어려워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저희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현대인들이 주련을 알기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또한 당대 서예가들의 명필 글씨를 그대로 옮겨 주련의 의미와 감동을 더욱 더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사장은 우연히 산사에 있는 사찰에서 스님께 주련에 대한 글귀 설명을 듣게 되었다. 주련에 있는 그대로 부처님 말씀과 역대 조사님들의 게송을 항상 집안에서 새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 달력으로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후 직접 5년여 동안 주련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풍경과 어우러진 사진을 마련하고자 밤새워 작업한 적이 셀수도 없었다. 한컷 한컷 정성스럽게 모은 사진들이 지금 삼보불교카렌다의 "사찰과 주련" 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주련에 대한 해설은 보덕굴 강월 스님께 부탁하여 게송 내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번역하여 마음에 손쉽게 새기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현재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사장은 최고급의 종이로 최고의 작품(달력)을 보급하는데 더 수 없는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절집의 아름다운 풍경과 큰 신심으로 담아낸 사진을 함께 실어 끝없이 방황하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열고 있다.

삼보불교카렌다 031)732-9905



근심이 들러붙을 데가 없는 마음 만들기
8주 마음챙김 프로그램이면 충분하다!

영국 국립임상보건원 권장 프로그램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수많은 마음병들 가운데 가장 흔한 질환은 우울증이다. 이러한 우울증 재발률을 절반으로 뚝 떨어뜨린 획기적인 방법이 개발되었다.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옥스퍼드 대학의 마크 윌리엄스 교수가 공동 개발한 '마음챙김에 근거한 인지치료' 프로그램이다. 그 효과를 인정받아 영국 국립임상보건원에서 우울증 치료의 최우선 처방으로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식 걱정, 일 걱정, 남편 걱정에 둘러싸여 한시도 근심을 내려놓지 못한다. 일상의 다양한 근심들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활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음챙김에 근거한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쉽게 풀어 쓴 책이 바로 『8주, 나를 비우는 시간』이다.

행복을 위해 포기했지만 돌아온 건 불행뿐

경쟁이 심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직장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는 나머지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하기 위해 취미 활동도 줄이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줄이며, 잠도 줄이고, 심지어 밥 먹는 시간도 잘라낸다.

그런데 이렇게 일에 올인한다고 일을 잘할까? 재충전이 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은 점점 지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한 시간이면 충분히 처리하던 일을 곱절의 시간을 들이고도 완수하지 못해 스스로 무능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이렇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

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왜 이러한 악순환이 생겨날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삶의 '선택 사항' 으로 보이는 활동을 우선 포기한다. 그런데 사실 그 활동들은 우리에게 양분을 주는 활동이어서, 그 활동이 하나 줄어들 때마다 우리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하나씩 뽑히는 꼴이 된다. 그렇게 기둥이 하나둘 뽑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건 탈진과 불행뿐이다.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라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합리적인 사고를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마음의 움직임을 마음의 '행위 양식' 이라 한다. 행위 양식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도시에서 길을 찾고, 바쁜 업무 스케줄을 소화한다. 그런데 불행이라는 문제에 행위 양식으로 대응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현재의 불행과 상상 속 행복을 비교하며 '더 행복해야 해.' 라고 자기를 사정없이 다그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기분이 한층 더 가라앉아 침울해지곤 한다.

마음은 이와 다른 작동 방식, 즉 '존재 양식' 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존재 양식이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지나치게 분석하며 판단하는 마음의 자연스런 성향에서 한 걸음 비켜나 세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이 단지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임을 알 수 있다. 더 이상 과거나 미래에 얽매여 전전긍긍하지 않고 늘 깨어 있는 의식으로 현재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 행복이 오든 불행이 오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게 된다.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

행복을 부르는 생각 습관 기르기

과거에 불행을 경험했던 조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동으로 불행했던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고는 다시 불행에 빠져들기 쉽다. 그런데 저자들에 따르면, 8주 동안 하루 30분씩만 꾸준히 연습하면 불행을 부르는 생각 습관을 행복을 부르는 생각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8주, 나를 비우는 시간』에는 각 주마다 해야 하는 핵심 정규 명상법 하나에다, 일상생활 속에서 잠깐씩 연습할 수 있는 간편한 수련법이 아홉 개가 실려 있다. 이 수련법들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연습해서 마음챙김의 혜택을 차곡차곡 쌓아가도록 하자. 단 행복해지려고 너무 애쓰지는 않는다. 그저 편안하게 나를 비우면 마음의 자가 치유력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나고, 집중력과 용기, 창의성과 회복탄력성 같은 힘들이 조용히 찾아든다.

저자들은 어려운 이론을 소개하는 대신 치유 사례들과 일상의 다양한 풍경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내 누구나 깊이 공감하고 쉽게 이해하여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부록 CD를 이용해 명상센터에서 직접 지도를 받으며 명상하는 느낌으로 집에서 수련한다면, 마음챙김 명상의 혜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8주 후 당신은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신국판 328쪽, CD 수록 값 16,000원
문의 02)420-3200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3×6사군자 (7.4∮×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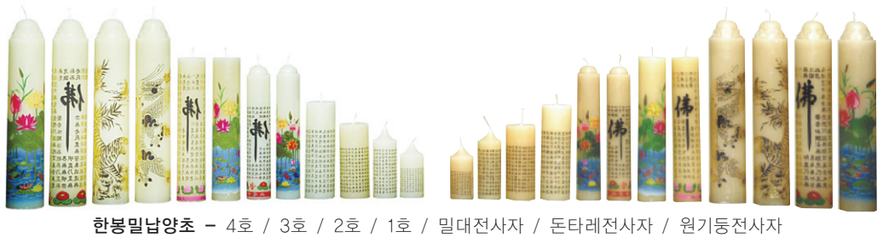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29㎝)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예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영기단靈氣壇은 여래의 '영기화생 드라마'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수미단, 불탁, 불단→영기단(靈氣壇) ㊦



지난 34회에서는 경흥사(慶興寺) 영기단(靈氣壇)을 다루었는데 완전한 형태는 아니었으나 측면의 영기문이 고구려 사신총 벽화의 영기문(본지 948호 참조)과 그 원리전개가 정확히 같아서 특별히 다룬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영기단은 은해사(銀海寺) 백흥암(百興庵)에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모든 영기단의 조형미술은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영기화생의 원리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물론, 그 모든 불단의 조형에 변화가 많아서 그 다양성에 놀란다. 도대체 그토록 핍박을 받아온 조선시대의 스님들은 어떻게 괘불(掛佛)이나 영기단처럼 위대한 작품들을 수 없이 만들었을까?

다양한 조형언어의 통일성

문자언어로 쓰면 유생들이 모두 읽을 수 있어서 더욱 핍박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조형언어로 작품을 만들면 유생들은 읽을 수 없어서 탄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껏 폭발적으로 조형미술에서 불교의 정신을 나타냈던 것이다. 그런 불교미술의 요소는 조선시대 궁궐건축에서도 꽃피우고 있으나, 왕과 유생들은 그 조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니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불교미술이라 해도 그 불교미술이 선도미술(仙道美術)의 바탕 위에 성립한 것이어서 불교미술에 우리민족의 근원적인 사상과 그것을 표현한 조형미술이 고스란히 이어져 왔다.

그런 수 천 년 동안 역사적으로 이어온 우리나라 조형들을 집약시킨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기단이다.(그림 ①) 크고 작은 구획진 불단 가운데 세 영기문만을 선정하여 채색분석해 보았다. 선묘(線描)를 직접하고 채색분석해보면서 영기단의 용어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여실하여 기쁘기 그지없다. 올바른 용어를 만들려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용의 입에서 나온 영기꽃(모란 모양)과 같은 영기꽃이 피어나는 영기문이 불단 가운데 있다.(그림 ②) 모란이 아니라는 것은 차차 증명할 것이다. 중앙에 영기꽃과 줄기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영기문이 기세 좋게 구상적으로 발산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보는 잎같이 보이나 잎이 아니고 영기싹을 구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런 가운데 양쪽에서 두 영수가 화생하고 있다. 무엇이라고 부르기 어렵지만 용의 속성을 지닌 영수다. 꼬리에는 태극모양이나 기세가 강한 영기문이 연이어져 있는데 이 역시 꼬리로부터 영수가 화생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화생한 만물(영수가 대표)에서 영기문이 발산하는데 이런 과정이 영기화생론의 골자다.(영기에서 만물이 화생하고 화생한 만물에서 영기가 발산한다) 그래서 영수의 발이나 몸에서 각각 빨간 색의 영기문이 발산하고 있지 않은가!

또 다른 예로 앞 회에서 다룬 영기문의 조형과 똑같이 전개하는 도상이 있다.(그림 ③) 즉 고구려 사신총 벽화의 영기문의 전개와 똑같은 원리로 전개하되 영기 줄기에서 갖가지 제3영기싹들이 돋아나고 있으니 매우 강력한 영기문이다. 그리고 전개과정에서 거대한 보주(노란 색으로 칠한 것: 원래 색은 금색이다)를 감싼 큰 영기꽃이 활짝 피어 있다. 그런 영기문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그 사이에서 두 물고기가 화생하고 있다. 이 백흥암 영기단에는 용의 영기화생 도상도 있는데 물고기의 영기화생과 같은 상징을 띤다.

장식 장엄이란 말로도 부족한 표현

거대한 직육면체의 단 안의 공간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며 영기가 가득 차 있음은 이미 언급했다. 즉 그 단 안은 우주의 광활한 공간이요, 허공이다. 그 맨 아래 부분에는 영기창들이 뚫려 있고, 영기창 마다에서 용의 정면 얼굴이 나오려 하며 그 입에서 영기꽃이 양쪽으로 뻗쳐나가고 있다.(그림 ④) 흔히 모란이라 말하나 모란이 아니고 만물을 화생시키는 영기꽃이다. 그 까닭은 영기단 모든 도상에는 다양한 영기문이 바탕에 깔려 있거나 입체적으로 조각했는데 그 영기문에서 만물이 화생하고 있다. 갖가지 영조(靈鳥), 영수(靈獸), 용과 마찬가지로 물을 상징하는 물고기, 사람들 등이 화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게는 백 개가 넘는 구획을 짓고 있어서 영기단은 갖가지 생명생성의 다양한 모습을 망라하고 있어서 영기단이야 말로 영기화생의 장엄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장식이 아니며 장식을 높여서 말하는 장엄도 역시 아니다.

그러니까 영기단 맨 밑 부분의 용들의 입에서 발산하는 갖가지 영기문들이 영기단 전체에서 갖가지 만물을 탄생시키고 있는 셈이다! 즉 영기단 안의 허공에 가득 찬 영적(靈的)인 물(靈水)이 넘쳐흘러 밖으로 나오는 형상을 맨 밑의 영기창들의 용의 정면 얼굴로 나타낸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감회가 깊다. 마침내 단순한 불단이 아니라 여래의 영기화생을 괘불에서와 같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아미타 삼존불이 영기화생하는 대 드라마가 안전(眼前)에서 벌어지고 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에 한 분의 여래를 봉안하는 소규모의 영기좌는 다음 연재에서 다루기로 한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① 백흥사 극락전. 아미타삼존상



그림② 두 영수가 영기문에서 화생하는 도상



그림④맨밑의 영기창에서 용이 나오며 용의 입에서 양쪽으로 영기꽃이 발산하고 있다.



그림③경흥사 불단의 영기문과 맥을 같이 한다. 그 영기문에서 물을 상징하는 물고기가 화생하고 있다.

藥이 되는 사찰음식

물김치에 표고조림으로 여름 미각 돋우자



청경채 표고조림

△재료(4인 기준)

○ 청경채 5포기

○ 생표고버섯 15개, 녹말가루 1/2컵, 식용유

○ 소스 : 맛국물 1컵, 간장 1큰 술, 국간장 1큰술, 산야초 효소 3큰술, 소금 약간, 참기름 1작은술

△만드는 법

① 표고버섯은 흐르는 물에 씻은 후 크기에 따라 2~3등분 한 후 녹말가루를 입혀 식용유에 노릇노릇하게 튀겨낸다.

② 청경채는 2~4등분 한 후 끓는 물에 소금과 식용유를 넣고 데쳐낸다.

③ 팬에 분량의 소스 재료를 넣고 바글바글 끓으면 튀겨낸 표고버섯을 넣어 살짝 버무려낸다.

④ 접시에 청경채를 돌려 담고, 표고 조린 것을 담아낸다.

오이 깻잎 황기 물김치

△재료(4인 기준)

○ 오이 2개, 소금 2큰술

○ 소 : 깻잎 12장, 무 100g(소금 1/2작은술), 풋고추 4개, 홍고추 3개

○ 국물 : 물 3컵, 황기 15g, 다시마 1장, 소금 1큰술, 매실액 2큰술

△만드는 법

① 오이는 길이대로 깊숙이 칼집을 넣어



소금물에 절여 씻어 준비한다.

② 소에 들어가는 무는 채를 썰어 소금에 살짝 절인 후 물기를 빼고 채를 썬 청홍고추와 함께 깻잎에 돌돌 말아 절인 오이에 채워 넣는다.

③ 찬물에 황기와 다시마를 넣고 1시간 정도 담근 뒤 살짝 끓인 후 소금, 매실청으로 간을 맞춘다.

④ 소를 채운 오이에 국물을 부어 익힌다.

허한 기 보충하는 '황기 물김치'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땀을 많이 흘려 기가 허해지면서 입맛이 없을 때는 식은 보리밥에 잘 익은 시원한 물김치 한 그릇으로도 입맛이 되살아나기도 한다. 황기는 단너삼이라고도 부르는데 양기를 보하고 땀을 많이 흘리지 않게 하고 소화촉진 시키는 효능이 있어 여름철 땀을 많이 흘려 몸이 지치거나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좋은 약재로서 여름철 물김치 국물을 만들 때 황기 삶은 물을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주재료로 이뇨작용에 좋고 위와 장 트러블에 좋은 오이를 사용함으로써 수분을 보충하고 땀을 그치게 하여 기력회복에 좋은 물김치가 된다.

황기와 다시마를 우려낸 국물에 매실액을 넣으면 새콤달콤한 맛을 추가함은 물론 빠른 발효를 돕게 되어 담근 후 빠른 시일 내 먹을 수 있게 된다. 단, 오이를 절여 소를 채운 다음 2~3시간 정도 지난 후 국물을 부어야 오이의 간이 골고루 배여 맛이 있다.

청경채 표고조림의 청경채를 데칠 때는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과 식용유를 넣고 삶아야 윤기가 나며 계절에 따라 시금치를 이용해도 좋다. 표고버섯은 노릇노릇하게 튀긴 후 맛국물에 넣어 센불에서 단시간에 볶아내어야 질감을 살릴 수 있으며 표고버섯을 튀길 때의 녹말로 인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가 된다. 생표고를 사용하게 되면 부드러운 질감이 좋으며 건표고를 사용할 경우는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어 좋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2014년 삼보불교 달력 주문 접수중!
《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카렌다 지역판매 가맹점 모집
문의전화. 031) 732-9905 Fax. 031) 732-8972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부처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담은 질높은 카렌다들을 제작하여 보급 해 왔으며, 2014 갑오년에도 의미있고 주제가 있는 새로운 카렌다들을 추가로 제작 하였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카렌다, 고급스럽고 수준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들을 만나보세요.
관세음보살도(한지카렌다)
지혜동자
연꽃향기
구도자의 길
법음이 깃든 산사
산사와 주련
반야심경
운봉스님의 달마도
심우도
산사에 피는 야생화
민족의 산하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인도 8대 성지순례)
산사의 미(발원)
보현스님의 동승이야기
(2월)
(3월)
(4월)
(5월)
(7월)
(8월)
인생의 도
생활한방차
불보살님의 미소
풍경소리
한국의 보탑
천진동자 1월
(10월)
(11월)
(12월)

‘실참’ 으로 간화선 참뜻 전하는 〈무문관〉 강론



무문관 강론
우학 스님 지음
명행 스님 영어번역
좋은 인연 펴냄
2만5천원

중국 남송 임제종의 무문 혜개(無門 慧開 · 1183~1260) 선사는 1228년 여름, 동가에 있는 용상사에서 대중들의 수좌로 있을 때, 법을 물어오는 납자들의 청에 따라 옛사람의 공안을 ‘문을 두드리는 기왓조각’으로 삼아 각자 근기에 따라 공부하는 이들을 인도했다. 그것들을 간추려 기록하다보니 책 한 권이 되었다. 순서 없이 모은 것이 48칙이 되었다. 그리고 〈무문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지금까지 간화선의 지침서, 또는 간화선의 교과서라 불린다.

책은 우학 스님의 〈무문관〉 ‘강론’ 이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불교신문에 연재되었던 ‘우학 스님의 무문관’ 을 모아 엮은 책으로, 폭 넓고 깊이 있는 해석을 통해 간화선의 참의미를 전하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 미국 뉴욕의 ‘미주현대불교(월간)’ 에도 연재되어 미주 불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영어권 현지 사람들에게 〈무문관〉의 전파를 위해 영문 번역을 실었다. 이런 점은 다른 책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국내에 발간된 불교 서적을 통틀어 찾아보기 힘들만큼 이례적이다. 미국인 명행 스님이 영어 번역을 맡아 단어 선정, 용어풀이 등 번역의 정확성을 높였다.

“선종의 문이 없는 관문이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마음을 으뜸으로 삼고 문 없는 문을 법문으로 삼는다. 그러니 이에 문이 없다면, 어떻게 뚫고 나가겠는가?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집안의 보배가 될 수 없고 인연을 따라 얻은 것은 시작과 끝이 있어, 이루어지면 무너진다.’ 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바람 없이 파도를 일으키는 격이며, 멀쩡한 살을 찔러서 상처를 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 어찌 언어나 문자에 매달려 알음알이로 구하리요, 이는 막대기를 휘둘러 달을 치며, 신발을 신고 가려운 데를 긁는 것과 같은 꼴이니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는가?”

최고의 수행법이라 할지라도 근본 원리에만 매달려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때문에 실천적 수행의 대표 지침서로 꼽히는 〈무문관〉은 간화선의 참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이다. 그저 말뿐인 말이 아니, 머리로만 이해하는 논리가 아닌, 몸으로 실참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알려주고 있다. 지천에 깔려 있는 화두, 바로 우리의 생활 하나 하나가 모두 화두가 되고 깨달음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간화선의 참의미와 실천법 소개
“생활 하나 하나가 모두 화두”
무문관 선방 〈무문관〉에서 비롯
미주불자 겨냥 영문 번역 실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감포도량 무일선원 무문관.

〈무문관〉은 선가(禪家)에서 간화선의 기본 텍스트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벽암록〉, 〈종용록〉 등의 선서가 이미 편찬되어 있었지만, 간화선의 종지를 결론적으로 더욱 굳건히 제시한 공안집은 무문 혜개 스님의 이 〈무문관〉이다. 〈무문관〉에서 제시한 48칙의 공안마다 화두참구하는 방법과 정법의 안목을 열어 주는 자비방편이 가득하다.

무문 혜개 스님은 출가 후 월림 사관 선사의 문하에 들어가 조주 큰스님의 무자(無字) 화두와 씨름하였다. 6년이 지나 어느 날 점심공양을 알리는 북소리를 듣고 불법의 대의를 깨달았다. 스님은 월림 사관 선사로부터 법을 계승한 후 세상에 나와 중생 제도에 진력했다. 보인사를 비롯 여러 사찰의 주지직을 역임하였으니 이(理)와 사(事)를 넘나든 선지식의 행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어록에 의하면 스님은 자기가 들어갈 탑을 만들고 곧바로 열반에 들었다. 현재 ‘무문관’ 이란 특수선방도 〈무문관〉으로부터 그 이름이 비롯되었다.

〈무문관 강론〉의 핵심이자 특별함은 ‘실참’ 이다. 저자인 우학 스님은 현재 경주시 감포읍 ‘무일선원 무문관’ 청정결사 중이다. 무문관 수행은 일체 문 밖 출입을 하지 않으며, 바깥세상과는 완전히 담을 쌓는 폐관 수행을 말한다. 우학 스님은 3년간의 치열한 수행을 통해 무문관의 가르침을 ‘실참’ 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물질적 삶이 풍요로워진 만큼 정신적 삶이 함께 풍요로워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현대인들의 정신적 건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무문관〉의 가르침은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있음’ 과 ‘없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편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우학 스님은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출가하여 성파 대화상을 은사로 득도했다. 대학에서 선학을 전공했으며 선방, 토굴, 강원 무문관에서 참선 등 정통 수행을 체계적으로 닦아왔다. 성우 대율사로부터 비니(毘尼) 정맥을 이었다. 오래 전부터 간화선을 한 단계 발전시킨 선관 쌍수로써 후학들을 지도하고 있다. 현재 모든 공식 직함을 놓고 무문관 3년 수행 정진 중이다.

일상의 선 수행 방편들 보다 폭 넓게 응용

선학입문

김대현 지음 | 성재헌 옮김 | 동국대학교 출판부 | 1만4천원



월창 거사 김대현(?~1870)이 〈석선바라밀차제법문〉(이하 〈선바라밀〉)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여 상 · 하 두 권으로 필사한 것을 1918년에 신문관(新文館)에서 간행한 책 〈선학입문〉의 교감 · 역주본이다.

중국 수나라 때 천태 지의대사가 설한 것을 제자 법신이 기록하고 관정이 정리한 〈선바라밀〉은 10권 3백장 분량이나 되는데도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그 처음과 끝을 알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그 교의(教義) 또한 너무나 광범위 하고 번쇄하여 일반 사람들은 그 뜻을 더욱 알 수 없었다. 이에 김대현이 이 책에 담긴 선 수행의 덕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순서를 매겨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으로 펴낸 것이 〈선학입문〉이다.

〈선학입문〉의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범례’ 에 의거하면 월창 거사가 편찬한 구성 의도와 내용 배열에 관하여 알 수가 있다. 곧 지의 대사가 설한 10권의 〈선바라밀〉 가운데서 3분의 2를 추려내고 나머지 3분의1 요점만 취해 〈선학입문〉이란 제목을 붙였다.

〈선바라밀〉에서는 먼저 방편을 설하고 나중에 수증(修證)을 설했지만 〈선학입문〉에서는 수증을 앞에 두고 방편을 뒤에 두었다. 수증이 바로 근본이고 방편은 곧 지말이기 때문이다. 입식문, 식문, 색문, 방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대로 접어드는 전환기에 천태선의 교의를 정리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려 했던 〈선학입문〉의 집필 의도는 이 시기가 동학, 서학 등 다양한 종교가 활발하게 일어난 시대임을 고려하면, 외부 종교에 대한 불교의 대응 양상을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저자가 말하는 선학(禪學)은 선 수행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명칭은 ‘선학입문’ 이지만 내용은 입문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선 수행의 종류와 실천법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수록된 내용 역시 그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초보자의 경우에 그 전체를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몸과 마음의 준비, 실제 수행의 차제 · 갈래 · 방편 · 증과 · 증험 등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수행 방법과 점검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선문에서는 임제 종지를 강조하면서 돈오법문을 바탕으로 하여 교외별전 불립문자의 종지에 지나치게 충실했던 탓에 간화선 일변도의 화두참구로 치우쳐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선학입문〉의 내용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선 수행의 덕목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방편의 가르침을 보다 폭 넓게 접하고 응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1 ~ 8/27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이 길의 끝에서 자유에 이르기를	원택	조계종출판사
5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6	이것이 간화선이다	무비	민족사
7	우리 모두는 부처다	종사로 잠양 켄체	팡세
8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	윤지원	너울북
9	인간불교,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성운대사	운주사
10	채식이 맛있어지는 우리집 사찰음식	정재덕	레시피팩토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인간불교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길

인간불교,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성운대사 지음 | 조은자 옮김 | 운주사 펴냄 | 1만2천원



“사람들은 곧잘 ‘인간불교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게 던지곤 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항상 ‘부처님께서 인간세계에서 태어나고, 수행하며, 깨달음을 이루고,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셨으므로 사실 불교 자체가 인간세계의 불교입니다. 인간불교란 부처님께서 본래 품은 뜻이지, 특정한 누구 한 사람이 만들거나 제창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라는 답을 합니다.”

대만의 대표적 사찰인 불광산사를 개창하여 60여 년 동안 부처님이 본래 품으신 뜻인 인간불교를 선양해 온 성운대사가 인간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론적, 실천적으로 알기 쉽게 풀었다.

인간불교란 무엇인가. 저자 성운대사는 말한다. “부처님께서 인간세계에서 태어나고, 수행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셨으므로 사실 불교 자체가 인간 세계의 불교관입니다. 인간불교란 부처님께서 본래 품은 뜻이지, 특정한 누구 한 사람이 만들거나 제창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저자는 인간불교를 강조하는가? 기존 불교는 산속에 은둔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사례가 많았기에 불교는 ‘소극적이며 세상을 외면한다’ 는 인상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이 현대화되고 시대가 발전함으로 해서 시대에 발맞추어 불교 또한 산중 사찰에서 사회 속으로, 다시 가정으로, 출가자의 불교에서 대중의 불교로 점차 변화되어야 한다. 인간불교는 바로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불법과 생활은 둘이 아닌 하나이다.’ 라는 것이 인간불교의 핵심 이념이다. 실제로 저자인 성운대사는 이러한 인간불교의 이념으로 불교가 사회에 폭 넓게 뿌리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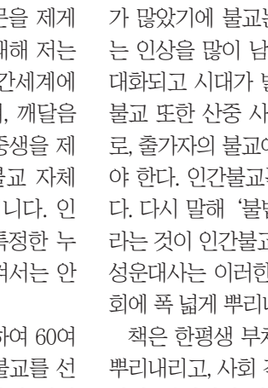
책은 한평생 부처님의 법이 인간세계에 탄탄하게 뿌리내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불교를 알게 되며,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긍정하며 실현하도록 애씀으로써 인간불교를 널리 선양해온 저자가 인간불교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 자문하고, 그에 대해 자신의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친절하게 설명한 인간불교의 개론서라 할 수 있다.

총 네 단원으로 구성된 책은 첫 번째 장에서 인간불교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인간불교는 어느 한 지역이나 한 개인의 불교가 아니라, 그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인간의 자유와 구원을 위해 설법하신 인간불교임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삼귀오계의 인간불교적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세 번째 장에서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민주, 자유, 평등을 인간불교의 주창자인 부처님의 가르침과 상호 비교하여 그 참뜻에 대해 새롭게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장에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은 고집멸도의 사성제와 대승불교 보살도의 핵심서원인 ‘사홍서원’ 에 대해 인간불교적 의미를 부여하여 심도있게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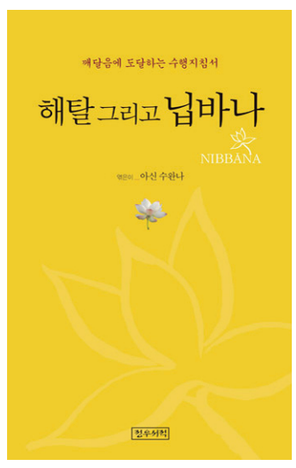
그 동안 우리에게 불교는 세상을 떠나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여 해탈을 얻는 것을 중요시하는 종교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책은 불교의 본래 목적이 세상과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불교는 이와 같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책은 바로 이러한 인간불교를 위해 평생을 노력해온 성운대사의 가르침이다.

박재완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수 강 료 : 무료
■ 문 의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각종 상담활동을 비롯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75-35

이뭐꼬? What is it? 일러라! Tell me at once!
하나 둘 셋, 이와 같아 넷이니라!
There four 1, 2, 3…


Swallow all beings Eject emptiness
존재를 삼켜 허공을 뱉아라
금강경 묘해妙解
묘봉운륵 송주(頌注)
신국판 | 흑백 | 768쪽 | 28,000원
조사선으로 푼 漢 · 英 · 韓 금강경 수행지침서
덕숭총림 수덕사 초대방장 혜암(惠菴) 선사의 법을 이은 묘봉 스님(대전 죽림정사 주석)이 금강경에 대한 주석(註釋)을 달고, 선(禪)의 안목을 담아 독자적인 견해를 게송 형식으로 드러낸 금강경 수행지침서. 금강경의 한문 원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독창적으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풀이하여 중요한 부분을 다시 영역한 漢 · 英 · 韓 금강경 해설서이기도 하다. 저자는 금강경에 대한 선적(禪的)인 송주(頌注)를 “화장 끝내고 다시 분칠한 격”이라 자평했다.
비움과소통 www.facebook.com/BiumSotong (02)2632-8739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해탈 그리고 닙바나 화제의 신간!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붓다의 머리카락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 될 것이요. 범부중생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 전 해인사 주지,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태종사 조실 도성영공. 추천사 중에서–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입명의 숨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 퇴현 전재성박사 추천사 중에서–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8000원
[출판사 서평]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 한 구, 한 쪽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닙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입문의 : 정우서적 (02)765-2920

좋은 향은 인간 신체를 水昇火降시켜

수 승 화 강



문향, 향기속으로

능혜 스님 지음
차와문화 펴냄
1만9천원

"향기로운 곳에서는 함부로 열지 말고, 냄새 속에서는 억지로 막지 말라/향천의 부처도 되지 않겠거늘 하물며 송장 썩는 나라가 되겠느냐/솥에는 푸른 차를 달이고, 향로에는 안식을 사른다/돌! 돌! 돌! 어디가서 선지식을 찾을까.

향을 애향했던 혜감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불가에서 내려오는 전통향방을 전수받아 한국전통향가 취운향당을 이끄는 능혜 스님이 한 권의 책을 펴냈다. 제목은 〈문향, 향기속으로〉이다. 책속에는 향의 문화사를 비롯해 한국향 · 일본향의 역사, 침향의 모든 것, 다양한 향 종류와 사용법, 향 도구 등 그가 20여년간 연구한 향 이야기가 차곡차곡 적혀져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 향의 시원을 일제강점기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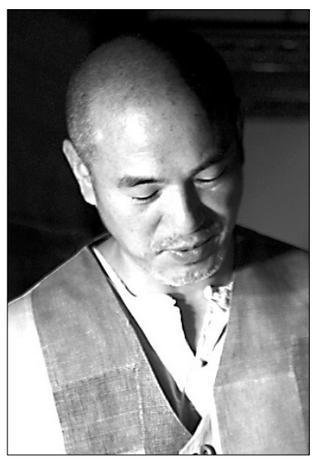
"1920년대 일제 강점기 때 중국 다롄 향료공장서 만든 인공향료가 들어왔지만 서구문물이 확산되며 향 피우는 걸 터부시하면서 우리 전통의 천연향은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전통향의 수준은 최고였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바로 부여 절터서 발견된 백제대향로(국보 287호)가 그 증거라고 밝힌다. 그래서 그 맥이 그동안 끊긴 걸 복원해 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책을 냈다는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향수를 비롯해 다양한 향을 즐기고 있지만, 대부분은 인위적이고 조악한 화학향"이라며 "천연향이 인체를 수승화강시켜 건강을 지켜준다면 화학향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자는 이 책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향에 대한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다양한 폐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향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정확한 이해를 도울뿐 아니라 올바른 향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책을 펴냈다"고 덧붙였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향 문화 시초는 '삼국유사'에 실린 묵호자 편이란다. 19대 눌지왕 때 중국 양나라서 의복과 함께 향을 보내왔으며, 묵호자는 향을 이용해 공주의 병을 치유했다고 한다. 신라 진평왕 때 김유신이 백제 · 고구려 등 이웃 국가 침범을 막기 위해 향불을 피워 하늘에 기도하자 광채가 드리웠다는 '삼국사기' 기록도 있다.

이 책에는 각 시대별로 향에 대한 사용 기록들도 언급돼 있다. 신라 헌덕왕(819년)때는 정부 관료가 귀한 수입품인 침향을 앞다퉈 사치품으로 사용하자 진골 계급을 포함해 침향 사용을 금한다는 왕명이 떨어진다.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향문화가 퍼지면서 방향물질을 혼합한 향수로 목욕 하거나 침향을 약용으로 썼다. 조선시대에도 남녀 구분없이 향낭을 패용했고 회춘을 목적으로 인기가 높았다. 침향은 특히 값비싸게 거래돼 왕이 직접 챙겼으며 관료에게 상으로 하사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



향의 역사와 종류, 사용법 등 설명
"화학향은 각종 질병 유발할 수 있어"
9~10월 전국 향 관련 순회 전시

향목을 태우고 그 향기를 감상하는 '문향(聞香)'은 한중일 3국이 공유했지만 현재 일본만 그 전통이 남아있다. '일본서기'에는 599년 침향이 아와지섬에 표착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헤이안의 귀족은 각자 취향에 따라 비밀스러운 조제법을 갖고 있었다. 향기를 경연하는 '훈물 합'은 귀족의 취미였다.

향은 만들어진 재료와 모양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이 붙는다. 향목(香木)은 침향류, 백단 등의 원재료를 작게 잘라서 향로에 넣어 태운다. 환향(丸香)은 각종 향료나 후박나무 껍질, 가물테나무 껍질을 분말로 반죽한 다음 꿀이나 매실육, 재를 섞어서 환으로 만든 향. 가장 많이 접하는 선향(線香)은 느릅나무나 후박나무의 껍질을 가루로 내 침향, 계피, 정자, 용연향, 용뇌 등을 조합한 향료를 원료로 국수발 뽑듯 만든다.

능혜 스님은 "좋은 향은 머리를 맑게 하고 인간의 신체를 수승화강 시켜준다"며 "톨루엔, 벤젠, 자일렌 등 화학냄새나 나쁜 향에 대해선 일반의 관심이 적은데 향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코로도 먹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능혜 스님은 △대구 봉산문화회관(9/4~7) △부산 문화회관(9/27~29) △서울 불일 갤러리(10/1~6)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10/9~12) △제주 세심재 갤러리(10/16~20) 등의 일정으로 전국 순회 전시를 연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禪의 요체인 〈선가귀감〉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조선불교의 탄생, 선가귀감

김풍기 지음 | 그린비 펴냄 | 1만 7천원



리라이팅 선가귀감 1부에서는 서산휴정의 삶과 조선 전기의 척불정책을 다룬 뒤에 2부에서 〈불씨잡변〉의 불교 비판 논리를 자세하게 논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정도전 이전에도 이후에도 수많은 유학자들이 불교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불씨잡변〉에서 논하는 19가지 조항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이 책이 당대 유학자들의 불교 비판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도전은 새로운 국가의 이념적 토대를 마련하리라는 야심으로 심혈을 기울여 〈불씨잡변〉을 쓴 것이었다. 하지만 불교를 비판하는 정도전의 논지 전개가 모두 썩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불씨잡변〉에서 그는 불교의 주요 논리를 단순히 표면적인 차원에서 가져다가 해석하여 이용하는 탓에, 불교 논리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승려들의 부정부패 등 불교의 오래된 폐단에 대한 단편적인 지적들은 이전부터 있어 왔고 이는 분명히 불교계에서 깊이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문제들이었지만, 유교의 폐쇄적인 정합성으로 불교 교리를 비판하는 논리들은 근거가 없거나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에서는 유교의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유학자들의 불교 비판이 강도를 더해 갈수록 불교계에서도 마땅히 새로운 논의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했지만, 수많은 사찰들은 폐치되고 승려들의 지위는 천민으로 떨어지는 동안 탄압의 압력에 굴복하여 속세로 돌아가는 승려들도 많았고, 불교의 암흑기를 타개할 만한 유능한 인재들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수행에 몰두하며 자신의 길과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뜨겁게 모색했던 서산휴정은 자신의 색깔을 지닌 불교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선가귀감〉은 선의 요체, 불교 수행의 핵심, 깨달음의 정수 등으로 불린다. 이는 서산휴정이 독단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깨달음이나 하나뿐인 수행 방법을 설파한 것이 아니라, 방대한 불교 경전들의 핵심을 모아서 한 권에 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어느 한 가지 수행 방법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모든 수행 방법을

시대 극복하기 위한 깨달음의 전략
휴정 "선과 교의 본질은 같다"

아우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선가귀감〉은 오늘날까지도 불교 수행 입문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일 테다.

뿐만 아니라 서산휴정은 이 책에서 참선 수행의 중요성과 교학 공부의 중요성, 염불 수행의 필요성 등을 모두 아울러 짚어 주며 여러 근기(根機)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일상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친절하게 일러 주고 있다.

리라이팅 선가귀감 3부에서는 이처럼 서산휴정이 체계를 마련하며 새로운 조선 불교의 문을 열었던 '삼문수행'과 그 깨달음의 길에 대해 〈선가귀감〉의 구절들을 들어 다른 어떤 책들보다 알기 쉽게 풀어 준다.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禪是佛心, 敎是佛語)라는 구절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불교계에서는 돈오-점수 논쟁과 더불어 선과 교의 우선순위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 계속되어 왔으나, 휴정이 보기에 이 둘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서로 다른 방법일 뿐, 결국에 본질은 같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휴정이 선(禪)으로 가는 길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을 꼽자면, 화두를 들어 참구하는 '간화선'(看話禪) 수행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똑같은 화두를 들어도 사구(死句)가 아니라 펄펄 뛰며 살아 있는 활구(活句)를 들어 철저히 의심하는 것이라고 휴정은 강조한다. 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화두를 참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캄캄한 칠통이 산산조각이 되도록 깨치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근심 붙을 수 없는 8주간 명상
마음 근육 단련 효과적 처방전

8주 나를 비우는 시간

마크 윌리엄스, 대니 펜맨 지음
안희영, 이재석 옮김 | 불광 펴냄 | 1만 6천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보다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 무언가를 포기하곤 한다. 그런데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줄까? 이 책 속에 효과적인 해법이 있다. 일중독인 직장 상사 영향으로 어느덧 마리사의 삶은 '일' 중심으로 가고 있었다. 직장서 성공해야 행복이 온다고 생각한 마리사는 일을 할 시간을 벌기 위해 매주 나가던 성가대 활동도 포기했다. 그다음엔 매달 다니던 북클럽 활동을 그만두었다. 그래도 주어진 일을 다 해내지 못하자 마리사는 아홉 살배기 딸을 방과 후 학교에 맡기고 하루 두 시간을 더 일했다. 그런데 이 선택들로 일 할 시간은 늘었지만 재충전 시간의 부족으로 낮아진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 자연히 실적도 제자리를 맴돌았다. 여기에 딸아이를 방치한다는 죄책감이 마리사를 억누르기 시작했다.

직장 상사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바로 노트북 컴퓨터와 스마트폰이었다. 이 두 기계의 도움으로 집에서도 언제든 일 할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아이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사라져 대화도 끊겼고, 밤늦게까지 일 하느라 수면 시간도 짧아졌다. 언뜻 보기에 마리사의 선택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합리적인 선택이 불행한 결과를 낳았을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마리사처럼 삶의 '선택사항'으로 보이는 활동을 우선 포기한다. 그런데 사실 그런 활동은 대개 우리에게 양분을 주는 활동이어서, 그런 활동이 하나 줄 때마다 우리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하나씩 사라지는 꼴이 된다. 그렇게 기둥이 하나둘 사라지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면 결국 돌아오는 건 탈진과 불행뿐이다.

마음은 '행위 양식'과 '존재 양식'이라는 두 가지 양식으로 움직인다. 행위 양식이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마음의 움직임을 일컫는다.

행위 양식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도시서 길을 찾고, 바쁜 업무 스케줄을 소화한다. 그런데 불행이라는 문제에 행위 양식으로 대응할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현재의 불행과 상상 속 행복을 비교하며 그 간격에 집중해 '더 행복해야 해'라고 자기를 사정없이 다그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기분이 한층 더 가라앉아 침울해지곤 한다.

문제를 곱씹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며,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불러일

불행의 고리 끊는데 큰 목적
'마음존재양식' 불행 '끝' 비결

으킨다는 건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불행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지나간 시점의 감정이나 생각에서 빠져나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즉 마음의 '존재 양식'에 따라야 한다.

과거에 불행을 경험했던 조건과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자동으로 불행했던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고 다시 불행에 빠져들기 쉽다. 이 책의 목적은 불행을 부르는 자동 메커니즘에 개입하여 불행을 떠올리는 고리를 끊는 힘을 독자가 기르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마음 작동 방식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후, 존재 양식의 힘을 길러주는 8주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김주일 기자

1주 : 마음의 자동 조종 모드에서 자유로워지기
2주 : 바디스캔 명상을 통해 몸과 다시 연결되기
3주 : 동작을 알아차려 내면에 '조기 경보 시스템' 만들기
4주 : 생각을 지나가는 '소리' 처럼 여기기
5주 :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친구 되기
6주 : 자기를 너그럽게 대하기
7주 : 현명한 선택으로 영혼 살찌우기
8주 : 일상생활 속에 마음챙김 씨앗 뿌리기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호법 봉사단원 모집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종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정진과 불법포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종단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 법 봉 사 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홍익범패단 신입생 모집
기초과정 3개월
염불소리(천수경, 반야심경) 동음, 독경, 지도, 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사찰운영법, 신도관리법, 각종예절법, 불교의 개론, 초발심 자경문
중급과정 3개월
종송, 도량석, 조석예불, 사시불광, 목탁불공, 신중불공, 시다림, 방생, 산신불공, 향수해례, 사성례, 거불, 상용영반(기제사), 봉송, 봉안게
상급과정 6개월
대령, 관욕, 신중청,39위, 상단, 지장청, 관음청, 삼보통청, 시련, 옹호게, 다게, 헌좌게, 행보게, 천도재, 사십구재, 각종의식 고혼소
특수과정 1년
불상점안, 생전예수재, 괘불이운, 수륙재, 설주이운, 다비식, 매장, 화장, 각종축문, 이장
작법과정 1년
천수바라, 요잡,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나비춤), 도량게, 다게
모집인원 각과정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13년 12월 중
개강일시 2013년 9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개강후에도 수시접수하여 12월까지 마감
제출서류 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2장
교육기간 ① 기초과정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4시 (2시간)
② 중급과정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 6시 (2시간)
③ 상급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2시간)
④ 특수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 6시 (2시간)
한국불교 홍익범패단에서는 승려후보, 예비스님을 위하여 원하시는 종단 알선과 대덕큰스님을 은사로 소개하고 사찰, 창건의 지도와 수계 득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접 강주이신 민지효 스님께 전화 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010-4466-3575)
장소 : 김해불교문화원 3층법당 / 주소 : 경남 김해시 흥동 7-5번지
한국불교홍익범패단
전화 055)345-0211 / 불교문화원 055)322-0088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민족불교 성지 선학원을 되짚다

연재를 마치며

친일·애국 이분법적 근대사 극복 '과제'

역사는 생물(生物)이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dward Hallett Carr, 1892~1982)는 역사를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했다.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단절된 것이라고 해서 사멸(死滅)한 것이 역사였다면 인류는 무지(無知)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펄떡거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진행형이다. 핵심은 역사가 연속성을 지니고 있고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한국 근대불교사는 지금 우리 불교계를 규정짓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그 잔재가 지금 우리 불교계에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미래의 한국불교를 진단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지나온 근대불교사를 냉정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연초부터 선학원의 역사를 더듬었다. 1921년 설립부터 1941년 유교법회(遺教法會)까지 그 숨결을 찾고자 했다. 내 시선이 아니고 그 시절의 시선으로 보고자 했다. 이 시기동안 선학원 역사는 한마디로 잃어버리고 빼앗긴 내 것을 찾아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선학원의 역사는 신채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아(我)와 비아(非我)의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다.

1921년 흘대받고 있는 수좌(首座)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단순한 설립목적은 일본의 조선불교지배와 사찰령 시행, 주지전횡제도, 대처식육(帶妻食肉)의 풍조와 같은 일제강점기 우리 불교계가 안고 있었던 굵직한 일련의 사건들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1922년 선우공제회 창립과 법인화 시도의 노력 역시 민족불교 수호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선량(禪糧)의 마련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고 자발적인 것이었다. 스님들 개인의 법답(法畓)과 희사금, 그리고 신도들의 보시금이 수좌스님들의 처소에 부는 비바람을 막아주었고, 약값이 되어주었다. 한동안 침체를 겪기도 했지만, 한국불교의 명맥을 걱정하는 선각자들의 노심초사로 다시 일어서기도 하였다. 수좌대회를 통해 설립당시의 의지를 결집시키기도 하였고, 조직 확대와 발전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1931년부터 시작된 재건의 노력은 1934년 재단법인인가와 '조선불교 선종'이라는 창종의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기까지 맞바람도 만만치 않았다.

1923년 법인인가 신청원을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제출했지만, 번번히 반려되기 일쑤였고, 당시 불교계의 대표기관에 청정비구가 수행할 수 있는 수행도량을 할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지없이 묵살되었다. 이 요구는 해방 이후까지도 지속되었다. 또한 1941년 유교법회 역시 방해공작으로 집회허가를 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선학원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불교의 정통성과 민족불교의 수호라는 명분과 자생력이었다. 이 자생력은 유교법회에서 오히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의 설립근간을 만들기도 하였고 정화운동의 명분도 되었으니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1945년 광복 전후 해방공간 안에서의 선학원은 정화운동 이외에는 연구된 바가 없고 자료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학원의 성장이 이렇다 보니 여전히 맞바람이 거세다. 몇 차례에 걸친 조계종과의 갈등과 대립은 현재는 '법인법'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대치하고 있다. 싸울 수 있고 서로 으르렁 거릴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싸움에서 과거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라든가, 왜 싸워야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찾아 볼 수 없다. 찔러보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적어도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거릴만한 명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나이는 1700년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이다. 윽박질러서 입에 든 사탕을 뺏을 태세다. 속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줘버리지 한다. 주고 싶어도 못줄 분명한 역사와 명분이 있다. 아는가. 잊혀진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것을....

해방 전후 선학원 연구 부족

미래 한국불교 조명 위해선

근대불교사 냉정히 살펴야



현재 선학원 전경. 근대불교가 가진 질곡의 역사를 친일과 애국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된다.

다른 이야기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가 근대불교를 바라보는 태도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한 근대불교에 대해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와 같은 흑백논리에 아직 취해 있다. 이른바 '항일'과 '친일'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다. 주어진 역사와 만들어간 역사였는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다. 우선 '항일'과 '민족불교'는 해석할 필요조차 없다. 주어진 역사 속에서 이 두 화두는 이념이 끼어들 공간은 없다. 해석의 여지도 없다. 침략과 약탈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자 했던 본능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그 시절의 불교를 무지(無知) 혹은 친일(親日)일변도로 보는 성향이다. 불교학계의 일각에서도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규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예컨대 스님들의 도성출입금지 조치가 풀리자 "불일(佛日)이 다시 빛날 수 있게 되었구나."라든가 해금(解禁)의 공을 세운 일본인에게 감사장을 준 사실에 대해 '불행한 역사의 시작'이라고들 한다. 또한 한용운이나 권상로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불교개혁론을 두고 민족불교와는 그 입장차가 분명하다고들 한다. 정법(正法)과는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서있는 자리에서 어설프게 입을 놀릴 사안은 아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왜 스님들이 도성출입을 그토록 반겼는가하는 문제다. 도성을 드나들 수 있는 것은 누명과 그로 인한 억압이라는 족쇄가 풀린 것을 의미한다. 그 시절 절 안마당에 무엇이 있었는가. 지위는 천민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노동력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는 잉여 자본에 불과하지 않았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길 시간이 어디 있었는가. 부처의 골수를 훔치기 위해 선방에 조용히 앉아 본성을 바라볼 여가가 우리에게는 없지 않았는가. 본분(本分)임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러운 여가(餘暇)말이다. 조선시대의 불교가 이전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아울러 그 시절 스님들과 몇몇 불교계의 지성들이 고심하고 있었던 것은 불법(佛法)을 이 땅에 다시 세우는 일이었고, 한국불교의 명맥을 다시 이어 나가는 것이었다. 내 주머니에 장사밑천이라고는 없었고, 연명하자면 남에게 빚이라도 져야할 것 아닌가. 혹자는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한다. 그 시절을 바라보는 지금 학자들의 시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시절의 사실은 철저한 삶의 문제다. 종이위의 글로써 판단할 일도, 세치 혀로 시비(是非)를 논하기 이전의 문제다. 냉정이 아닌 냉혹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도 남아있는 그 시절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고 묻는다. 그것은 우리들 몫이다. 그들은 적어도 터전을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만 생각하면 되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고 싶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일불제자(一佛弟子)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는가. 이 말이 강의나 세미나와 같은 고상한 자리에서만 쓸 수 있는 고귀한 단어는 아니지 않은가.

두서없이 마감의 글을 썼다. 지면을 내준 현대불교신문사와 선학원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



필자의 사정에 의해 해방 전까지 연재합니다. 그간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경후(한국불교선리연구원 선임연구원)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모집중

명상은 행복으로 가는 고속도로… '이고득락'의 길

연중기획 마음산업

2013 불교평론 가을 학술세미나

'명상 붐 어떻게 볼 것인가' ㊦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 이 스트레스의 극복방법으로 명상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불교평론은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주최하는 '만해축전'의 일환으로 세미나 '명상 붐 어떻게 볼 것인가'를 9월 6일 오후 1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7명의 발표자가 나와 명상열풍을 다각도로 고찰한다. 마음산업과 명상을 연중기획으로 다루고 있는 본지는 이번 세미나의 내용을 상하로 나누어 게재한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마음 수행이 뇌 바꾼다"

기조발제 '왜 현대인들은 명상에 열광하는가?'



장현갑 영남대 명예교수

미국에서는 초기 불교에서 비롯된 '마음 챙김(Mindfulness)' 명상 수행법이 심신치료분야에 널리 확산되어 심리치료의 '제 3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심리치료가의 40%이상이 이 명상법을 활용하게 되었고, 매년 명상 관련 논문이 천여편 이상 발표되고 있으며 700여곳 이상에서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감소(MBSR)'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다.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방황하는 마음을 어느 한 곳에 멈추어 서게 하며 마음의 동요를 막는 마음의 훈련, 즉 명상수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마음의 동요를 그대로 두면 가상의 생각이 신경망을 작동시켜 점점 더 괴로운 마음의 향연을 계속해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번뇌의 불길이 퍼져나가 괴로움을 증폭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괴로움, 즉 스트레스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면 다양한 신체기능이 교란되어 끝내는 온갖 종류의 질병을 야기하게 된다.

불교에서 마음수행의 목적은 "삶의 괴로움을 넘어 안락한 세계로 가는데"[離苦得樂]있다. 명상은 집중명상과 통찰명상으로 나눈다. 전자를 사마타 수행(samatha)이라 부르는데, 어떤 특정한 대상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만트라 명상이나 참선이 이에 속한다. 후자는 위빠사나(vipassana) 수행이라 부른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각 느낌 또는 생각 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판단하지 않은 채, 고요히 살펴보는 것으로 마음 챙김(mindfulness) 명상이라고도 부른다.

사마타 수행은 마음을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것으로 마음과 몸의 안정에 이르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사마타 형의 명상인 이완반응(일종의 진언수행) 명상을 하면 뇌파가 알파파와 세타파를 보인다.

결과에 의하면 명상을 한 집단은 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좌측 전전두피질의 우세성이 높아졌고 긍정적 정서도 높아졌으며 업무에도 보다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었다. 또 명상집단은 비명상집단에 비해 면역기능이 보다 상승되어 감기에 덜 걸렸으며 비록 감기에 걸린 경우라 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였다.

결국 마음을 수행하면 뇌가 바뀐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천년간 이어져온 명상수련이 고뇌에 찌든 우리의 삶을 보다 맑게, 보다 건강하게 치유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뇌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삶을 맑고 건강하게 치유
면역기능강화 · 긍정성 높여
의료 · 교육 분야 활용 넓혀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명상을 통해 자기 자신의 관점에만 집착하는 이기적 관점에서부터 보다 큰 자연과 서로 연결되어있는 존재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면 치유가 일어날 것이란 것이다.

또한 주의집중능력이 커지면 치유능력 또한 커지며 자신의 반응에 대한 탐지력의 증가가 치유의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비판적 태도의 함양과 수용성의 증가를 통해 치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렇다면 명상은 어떤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을까? 첫째로는 의료분야로 만성통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스트레스 관련 질병의 치료는 물론 암환자의 치료까지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무절제한 폭력, 심지어는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청소년들의 치유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노인들과 후천적 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명상을 통한 즐거운 마음가짐은 행복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한국미래 좌우할 문화 트렌드"

명상 붐의 국내외적 현황과 추이



오원칠
한산사 간화선 수행학교장

병자를 치유하고 사회를 '힐링'하기 위한 명상은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명상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는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한 과제이다.

서구의 명상산업은 개인의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수행 방편을 넘어 심신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과학과 의학 등의 전문적인 학문 영역에 까지 확장되어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서구유럽의 명상산업은 공동체의식과 환경문제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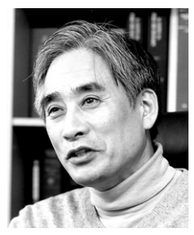
하지만 현재 선 불교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불교는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다. 또한 새로 유입되고 있는 명상법들은 서구에서 겪은 혼란과 같이 법에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이나 수행 방법에만 의지하고 있어 일부 부작용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불교와 전통적 명상 수행법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나 남북문제 등의 사회적 갈등을 바르게 풀어낼 수 있는 안목과 관점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명상이 개인의 행복 추구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쪽으로 가려면 모두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천 쪽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더해 국내외적인 명상 붐을 잘 이용하여 이를 보다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첫째, 종교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생활에 가장 가깝고 일상에서 활용가능한 명상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대안들과 사회통합에 기여 할 수 있는 공동선적인 방법론들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회전체의 소통과 통합을 추구하고 자비로 대변되는 사회적 공감 능력을 통해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으로 명상을 활용하여 현재 한반도가 겪고 있는 첨예한 남북대립, 빈부 격차 등의 모순을 극복하고 다양한 집단을 하나로 통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명상을 그저 힐링이나, 트렌드, 사업화시킴으로써 본래 명상의 목적과 의미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사성제와 팔정도', '연기법', '보리심', '육바라밀', '공성' 등 부처님이 가르치신 법을 바르게 지키고 수행해나가지 않는다면,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듯, 이러한 명상 붐도 붓다의 올바른 가르침과 상관없는 일시적인 사회 현상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즉, 현대의 상황과 사회에 맞는 다양한 명상법과 가르침의 계발의 바탕에는 법에 대한 철저한 통찰과 본래 부처님이 가르친 명상의 의미와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몸 · 마음의 속성, 인과 깨달아야"

명상으로 무엇을 치유하는가



전현수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우리는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속성 알기 △생각 줄이기 △ 집중력 상승 △실제를 보게 됨 △인과의 법칙 깨달아 △세상의 이치터득 △관찰적 자아가 강해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명상은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상의 대상이 몸과 마음인 경우 관찰을 통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 수 있다. 명상을 통해 생각이 줄어든다. 생각은 현재가 아닌 과거와 미래로 마음이 간 것이다. 명상을 통해 마음이 현재 여기에 있으면 과거, 미래로 갈 수 없다. 생각이 났을 때 알아차리고 명상의 대상으로 자꾸 가다보면 명상의 대상으로 가는 새 길이 나게 된다.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는 사람의 특성은 △(부정적)생각이 많음 △실제를 못 봄 △세상의 이치나 인간관계에 밝지 못함 △만족 못함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대로 돌아간다. 정신적인 문제나 고통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충돌을 일으킨 것이다. 충돌의 정도만큼 문제가 발생하고 고통이 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그에 맞게 마음을 쓰면 마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마음을 쓰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이 정신장애다. 불안이 커지면 불안장애가 되고 우울한 것이 커지면 우울장애가 되고 세상을 보는 것이 왜곡되어 실제와 완전히 다르게 보면 정신병이다. 명상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알면 순리대로 살게 되고 문제가 없게 된다.

특히,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면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몸이 힘들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지 않게 된다. 몸이 어떤 상태에 있든 마음이 항상 안정되어 있다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명상훈련을 통해 한 대상에 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 나아가서 어떠한 생각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 괴로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현실에 맞게 할 때 의도하는 대로 되어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 정신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치료는 환자가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실제를 그대로 보려면 자신이 하는 생각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대 문명의 종말까지 명상하라"

명상은 십악을 극복하게 하는가?



허우성
경희대철학과 교수
(불교평론편집위원장)

십악은 초기불교 경전에 나오는 용어로서 살생, 도절, 음란, 기망,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질투, 사견 등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도 십악은 넘쳐난다. 언론은 날마다 폭행, 강간, 살인, 자살 관련 뉴스를 쏟아낸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성폭력 · 가정폭력 · 학교폭력 · 불량식품의 4대 악은 모두 십악의 일부가 아닌가? 풍광이 좋은 전국의 명산에 사찰과 불교문화 유적지가 산재해 있고, 1천만 불교도는 그것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십악을 줄이는 데 기여한 바가 있을까?

일부의 사람들이 명상한다고 해서 살인, 음란, 거짓말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정치와 사법 당국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십악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싶다면 오계를 명상하는 편이 낫다. 오계를 지키지 않는 명상은 십악을 범해도 '마음 편히' 살게 해줄 수도 있다. 자신의 죽음을 명상하면 악의 극복은 더 쉬워진다.

명상의 일차적인 목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증오나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고대 인도에서 나온 마음 챙김이나 사마타(집중)는 침팬지 등 인간 이외의 존재와 구별되는 인간 고유의 행위로 보인다. 그림을 그리는 침팬지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명상하는 침팬지를 들어본 적은 없다.

21세기의 명상은 더욱 진화했다. 이제 명상의 대상은 지구의 고통이다. 명상은 긴장의 이완, 부정적 감정의 제거, 자비심의 배양을 통해서 개인을 개조해야 하고, 전쟁과 테러, 환경파괴로부터 인류를 지킬 수 있도록 세계를 개조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시대의 선어록(禪語錄)과 화두를 포기해야 할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 세계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이다. 고통은 현실 안에 있지 어록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의 고통을 알면 알수록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는 법이다. 불교는 시대의 고통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바로 이런 진리를 틱낫한과 달라이라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현대문명의 종말도 명상하라. 죽음에 대한 명상이 우리를 한없이 겸허하게 하고 필요한 것만 추려내게 하듯이, 문명의 종말에 대한 명상은 일상의 자유, 생활습관, 정치경제 제도, 문화 등에 대해 반성하게 하고 집단적인 각성도 줄 수 있다.

지구 윤리를 제시하지 못하는 명상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냉담한 것이다. 한국의 승단은 현대문명의 종말까지를 명상하고 행동할 때, 존경을 받을 것이다.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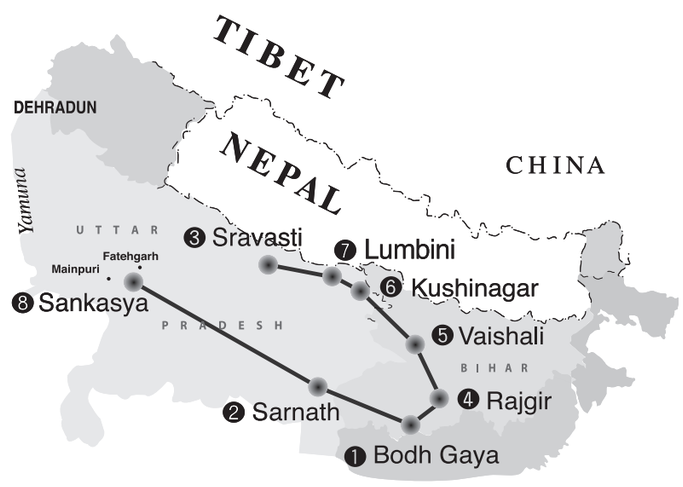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숭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죽음으로 음욕을 끊어 계를 지키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36)

도를 얻지 못한 사미의 계율 수호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아는 한 비구가 있었다. 이때 안타국에는 삼보를 공경하고 믿는 한 우바새가 있었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비구의 공양을 대기로 하고 날마다 공양을 보내고 있었다.

마침 그 나라에 또 어느 한 장자는 사내아이를 낳아서 출가를 시키려고 좋은 스승을 구하다가 그 비구에게로 가서 말했다.

"나는 이 아들을 출가시키려 합니다. 대덕께서 제도해 주십시오."

그때 비구가 도안(道眼)으로 잘 살펴보니, 이 아이는 출가하면 깨끗한 계율을 잘 지니겠으므로 사미로 삼았다. 이때 우바새에게 사이좋은 한 거사가 있었는데, 다음날 손님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게 되어 다들 모이게 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에 우바새가 말했다.

"이제 모임에 나가야겠는데, 누가 남아서 집을 지키겠느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부모님께서는 여러 종들을 데리고 가셔서 청에 응하십시오, 제가 남아서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온 집안이 다 잔치에 갔다. 딸은 문을 닫고 혼자 집 안에 있었는데, 그날 우바새는 바빠서 그만 잊어버리고 비구의 밥을 보내지 않았다.

그때 존자는 생각했다.

'밥 때가 지났구나. 속인이라 일이 많은 게로구나.'

비구는 사미를 보내어 가서 음식을 가져오게 했다. 사미가 우바새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자, 그 딸이 물었다.

"누구십니까?"

"저는 사미인데, 스님을 위하여 밥을 가지로 왔습니다."

그러자 우바새의 딸이 이내 문을 열어주었다. 이 여인은 단정하고 용모가 빼어났으며, 나이는 열여섯이었다. 여인은 사미가 마음에 들어 음욕이 일기 시작했다. 여인은 사미 앞에서 갖가지 요염을 부리면서 음욕의 모습을 심하게 나타내었다. 사미는 그것을 보고 생각했다.

'이 여인이 음욕에 끄달려서 나의 깨끗한 행을 깨뜨리려 하는 것은 아닐까?'

사미가 굳게 점잖은 언행을 지니면서 안색조차 변하지 않자, 여인은 이내 온몸을 땅에 던지고 사미에게 말했다.

"제가 항상 원하던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의 이 집안의 값진 보물 창고는 마치 비사문 천궁의 보배 광 같으나 주인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만 생각을 바꾸어서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사미는 생각했다.

'내가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계율을 깨뜨리지 않겠다. 옛날 어느 비구는 음녀의 집에 가게 되자, 차라리 불구덩이에 몸을 던졌을지언정 음행은 범하지 않았다. 또 여러 비구들이 도둑에게 도둑질을 당하고 풀 가지에 매여 있으면서 바람이 차고 햇볕이 따갑고 온갖 벌레들이 깨물어도, 계율을 수호하려는 생각으로 풀을 끊고 떠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저 바다에서 배가 파괴되자 하좌 비구는 계율을 수호하려고 판자를 상좌에게 주고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계율을 능히 지켜낸 분들이다. 나도 부처님의 제자인데 왜 지키지 못한단 말인가? 세존께서는 그들만의 스승이요, 나의 스승이 아니란 말인가?'

사미는 여인에게 말했다.

"그만 문을 닫으시오. 나는 방에 들어가 내 할 일을 해야겠소. 그리고나서 그대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내 문을 닫았다. 사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칼을 하나 찾아 놓았다. 몸에 입었던 옷을 다 벗어서 횃대 위에 걸어두고 합장하고 무릎을 꿇고 구시나성의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곳을 향해 서원을 세웠다.



삽화 · 강병호

'제가 이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버리지 않고 계율도 버리지 않으면서 바르게 계율을 지니기 위하여 이 생명을 버립니다. 원하건대 태어날 적마다 출가하고 깨끗한 행으로 번뇌가 다하여 도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목을 베어 죽었다. 이때 여인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지게문에 나아가 살펴보았다. 그가 이미 죽어서 본래의 모습을 잃었음을 보자, 음욕심은 바로 없어지고 부끄러움과 괴로움으로 슬피 부르짖으며 기절했다.

그의 아버지가 모임에서 돌아와 딸의 모습을 보고 어찌 된 영문인지 물었다. 딸이 자세하게 사실대로 대답하므로 아버지는 이내 방으로 들어가 보았다. 사미의 몸이 온통 피로 더럽혀져서 붉기가 마치 전단향과 같았기에 우바새는 예배하고 찬탄했다.

"부처님 계율을 수호하고 지키려고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때 그 나라 법에는 만약 어떤 사문이 속인의 집에서 죽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했으므로, 우바새는 금전 천 냥을 싣고 왕궁으로 가서 말했다.

"대왕이시여, 저에게 벌을 받을 일이 있으니 이것을 왕에게 드려야 합니다."

왕은 말했다.

"당신은 삼보를 공경하며 언행에 어김이 없는 사람이오. 당신에게 대체 무슨 허물이 있기에 벌금을 낸다는 것이오?"

우바새가 위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의 딸의 잘못을 책하고 사미를 찬탄하자, 왕은 듣고 말했다.

"사미가 계율을 지키면서 스스로가 생명을 버린 것이요, 당신에게는 허물이 없으니, 다시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나는 지금 당신의 집에 가서 사미에게 공양하고 싶습니다."

왕은 우바새의 집으로 가서 사미를 보고 나아가 예배하고, 갖가지 보배로써 높은 수레를 꾸리고는 죽은 사미를 싣고 평탄한 땅으로 가서 많은 향나무를 쌓아 다비하고 공양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잘 꾸며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놓고 그때 모인 대중들에게 말했다.

"이 여인이 아주 잘 생기고 이렇게 아름답다. 아직 욕심을 여의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인들 음심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 사미는 아직 도를 얻지 못했는지라 생사를 오가는 몸으로써 이와 같이 계율을 받들며 목숨을 버렸으니 매우 기특하고 희유하다."

왕은 이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스승을 청하여 널리 대중들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설하게 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듣고서 출가하려 하는 이도 있었고, 위없는 보리의 마음을 내는 이도 있었다. (〈현우경〉 제7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㊱



부처님 품 속에서 느끼는 행복

원력과 신심으로

내가 다니고 있는 절에서는 매년 백중 백일 전부터 백중까지 백일동안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는 기도를 올린다. 그리고 회향 후 영가들의 위폐를 모시고 방생을 떠난다. 올 해는 여수 향일암과 흥국사로 가기로 했다. 도중에 바닷가에서 용왕제를 올리고 위폐는 태우고 극락왕생을 축원했다. 무더위가 한 풀 꺾일 만도 한데 여전히 폭염이 이어진다. 그래도 오늘은 비가 좀 올 기세다. 부산은 비 구경한지가 너무 오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가는 도중 비가 내렸다. 우린 박수로 비를 맞이했다. 기도 덕택 인 것 같았다. 버스 네 대로 나눠 탔다. 세 대는 우리 스님들이 각각 나누어 타고 나머지 한 대는 내가 맡아 가게 되었다. 우리 신도들 중엔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아 오늘도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되길 기원하며 길을 떠났다. 여수라면 얼마 전 세계 박람회를 개최했던 곳으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었다. 특히 이순신 다리를 건널 때는 우리 토목 기술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드디어 향일암에 도착했다. 아랫마을에서 내려가파른 길을 따라 올라야 했는데 어르신들이 걱정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분도 뒤처지지 않고 빠짐없이 모두 법당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정성으로

지극한 신심…모든 장애 극복
뿌리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깊은 신심을 읽을 수 있었다.

공양 후 다시 내려올 때도 부처님을 뵙고 오는 길이라서 그런지 어르신들의 모습에는 힘든 기색이 없었다.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지극한 신심은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향일암을 떠나 다시 흥국사로 향했다. 흥국사는 보물이 9개나 있는 유서 깊은 절이다. 고려때 지은 원통전은 1624년(인조 2년) 계특 대사가 다시 지은 당우로 석가삼존불을 모시고 있는 절의 중심법당이다. 법당에 모신 부처님은 당시 지역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개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목불로서 조각수법도 매우 뛰어나다. 몸채의 균형과 변화에서 17세기 전반에는 이와 같은 크기의 보살상을 동반한 삼존불이 드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지 스님이 절의 유래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후불탱화는 1693년 숙종 19년에 왕의 만수무강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여 화가였던 의천과 천신두 스님이 그렸다고 한다. 보물로는 대웅전, 후불탱화, 목조석가여래 삼존상, 홍교, 목조지장 삼존상(시왕상 일괄), 노사나불 괘불탱화, 수월관음도, 십육나한, 동종이며, 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로 원통전, 팔상전, 흥국사 삼장 보살도, 제석도 등이 있다. 많은 보물을 지니고 있어서인지 흥국사는 다른 절 보다 더욱 고풍스럽게 느껴졌다. 단청을 하지 않은 나무결이며, 높게 지은 법당이며,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니 선인들의 불심 앞에 고개가 숙여졌다. 소중한 이 보물들을 잘 지켜야 함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앞서 들렀던 향일암도 전국의 신도님들의 정성으로 아름답고도 화려한 금빛 절을 이루어 놓았지만 몇 년 전 타 종교인의 광신으로 도량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한 아픈 상처가 있는 곳이다. 향일암의 아픈 기억을 생각하면 도량의 소중함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말이지 싶었다. 새로이 짓는 것보다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유물들을 잘 지켜야 할 일이다.

이렇게 사찰을 다니다 보면 사찰에서 보고 느끼는 불심들이 있다. 그런 불심을 안고 돌아오는 길은 마음이 가볍고 뿌듯하다. 돌아오는 차중에서 도반들과 부처님 말씀으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부처님의 품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기에 그 누구도 외롭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죽음 앞에서의 개종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48가구의 반장을 맡고 있다. 반장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앞집에 살던 젊은 부인이 반장을 했었는데, 이사를 가면서 장부를 내게 맡기고 간 뒤부터 얼떨결에 맡게 됐다.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그때만 해도 잠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하게 되었다.

오늘은 오래도록 친하게 지내오던 아랫집 아저씨가 위암을 앓아오다 운명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웃사람들과 병원 영안실로 문상을 갔었다. 그런데 영전에 향을 올리다 발견한 영가의 세례명(베드로)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원래는 불자였고 아내는 어느 사찰 다도회 사범으로 열심히 활동해오던 집안이었다. 이곳 성모병원으로 입원하면서 타종교인들로부터 헌신적인 간병을 받은 것 같다.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화되어 그들에게 교화된 듯했다. 그러다보니 장례식도 천주교식으로 하게 되었다고 했다. 불자인 나로서는 섭섭함을 감당할 수 없었다. 온 가족이 시간 맞춰 미사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이내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이럴 수가! 내가 운전하고 갈 때, 지금쯤 어느 스님께서 오셔서 목탁을 치고 염불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 했는데…. 오래도록 불자로 살아온 집이었기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나는 그래도 "49재는 어느 절에서 할 거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나의 기대를 저버렸다. 49재도 지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고인의 뜻대로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들을 나무라기 전에 우리 불교에서도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평생 부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말년에 죽음 앞에서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다.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탄생!**

신제품 경전학습기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엣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컨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대행 스님

이론으로만 끌내지 마시고 실천궁행을 하십시오

(지난 호에 이어서)

큰스님: 아까 끄트머리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질문자1(남): 산소를 잘못 건드렸을 때 자손에게 화가 미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큰스님: 네. 그거는요, 여기서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소승이다, 대승이다 하는 교리를 다 놓고 돌아가는 이 진리를 탐구하는데 무슨 그것이 잘못되고 잘되고가 있습니까? 일체 만법에 뭐,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영(靈), 의식은 수만 개가 들어와도 들어온 사이가 없고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고, 또 내가 가다가 '아, 여기가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 그냥 묻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지리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또는 의학이라든가 천체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돼서 돌아가는 공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서 알지마는 아, 그런데서 부적을 붙이고 온통 야단을 하면서 그렇게 걸리다가는 못 하나 박아도 탈이 나.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고 뭐고 다 버리니까 탈도 안 나고 오히려 더 잘되더라는 얘깁니다. 지금 사람이 먹고 살고 이렇게 살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런 걱정 저런 걱정 하다가 세월 보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놓으세요. 아무 걱정, 걸리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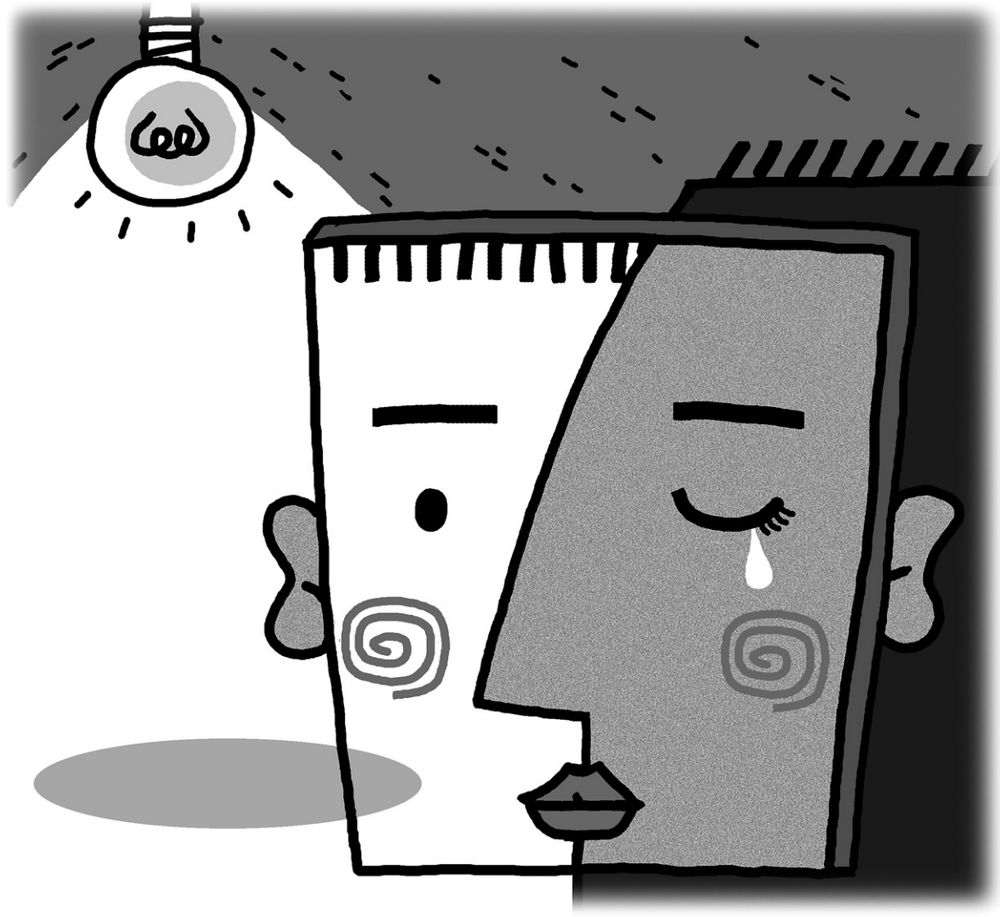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4(남): 저는 『한마음』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큰스님의 그 높으신 법문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 5월 14일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았을 때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난 뒤 애가 굉장히 놀라고 많이 심기가 불편해 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정도였습니다.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녀봤습니다. 병명이 뇌성마비입니다. 그런데 뇌성마비도 좋습니다. 제 인(因)으로 인해서 자식이 받은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의 마음이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큰스님: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금은 금대로 놓고, 또 쇠는 쇠대로 놓고, 은은 은대로 놓는다고요.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이렇게 끼리끼리들 모두 모아놓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인(因)으로 인해서 현재의 과(果)로 엮어진 겁니다. 보는 사람도 그런 죄, 또는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하고 그 당하는 사람하고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부딪치는 거는 깡통이기 때문에 부딪칩니다, 둘이 아니게. 끼리끼리 그렇게 은연중에 인과로 인해서 모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인과응보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

일체의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놔라. 이 우주천하에 직결돼 있는 근본이 모두 사람의 마음에 직결돼 있는 것을 알고 그 직결돼 있는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겨놔라. 이 병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인과응보로 나온 거니까, 인과응보로 나온 데다가 다시 놓아라. 바로 네게서 그렇게 나온 거니까,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가 고쳐라 하고 믿고 거기에 놔라 이겁니다. 너만이 고칠 수가 있다. 주인공에서 나온 거니까 주인공에서 고쳐라 이거죠.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오다가 엎어졌으면 자기가 일어나서 오겠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주고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네들이 지어놓은 거니까 당신네들이 풀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 되놓는다면 바로 화(化)합니다. 네? 물도 가스가 되듯이 화해버려. 그러면은 그 마음, 인과응보를 졌던 그 업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버려.

그래 다시 보살로서 재생이 되니까 그때야, 억울하고 누명 쓰고 또 업보가 많고 자기가 저지른 많은 일들의 인과응보가 다 스러지게 되고, 그러면 이 몸뚱이 속의, 대뇌 속의, 이런 모든 생명들이 그때서야 활개를 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잘 공급을 해주고 잘 회전을 하기 때문에 병 증세가 낫는다 이런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실천궁행(實踐躬行)하는 데 우리가 참, 노력을 해서 체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믿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아, 이런 거로구나.' 그럼 일체 만법, 작든지 크든지 용도에 따라서 내가 다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로구나. 내가 있기 때문에 태초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태초야.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화두예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화두지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는 뭐 체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거 소승불교 아니야? 이런단 말입니다. 대승불교면 어떻고 소승불교면 어떠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스님네들을 욕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깨치지 못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주먹질을 하고 잘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형제를 다 버렸고 처자를 가지지 않고 홀로이 가는 길에 회색옷을 입었습니다. 남이 머리 기르고 모양을 내는데 머릴 깎아버렸다. 이렇게 마음을 써서 내가 입산한 것만으로도 90%는 됐습니다. 그런데 만날 스님네들 흉만 보고 말입니다, 잘하네 못하네.

아무리 스님네들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 안 깎고 깨친 부설거사(浮雪居士) 같은 분들, 유마힐거사(維摩詰居士) 같은 분들은 한마디라도 못한다 잘한다 하지 않고 만나면 그저 깨치게끔 일러만 줬지, 흉을 본 예가 없어. 욕한 예가 없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아, 머리 안 깎은 부설거사 봐라, 뭐 유마힐거사 봐라. 뭐, 스님네들 하나도 쓸모가 없다 이러고 욕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모순된 마음은 다 버리고 이 의복만 봐도 그저,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숭배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벌써 처자식 안 가진 것만 해도, 그것만 봐도 머리가 숙여지지 않느냐 이거야. 응?

왜 불쌍한 줄을 몰라? 자기네들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굶으면 먹어라, 입어라. 추우면 또 뜨뜻하게 잠자라 하고 물도 떠다주고 그렇게 모두 도와주는데 이건 혈혈단신이야. 누구 하나 먹어라 써라 하는 것도 없어. 음. 그런 걸 보더라도 왜, 자기 불쌍한 생각을 한다면, 자기가 인생살이 하는데 그렇게 고초가 많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스님네들은 어쩔까? 하는 그 불쌍한 마음이 안 드느냐 이거야. 그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면, 위대하게 보기 이전에 불쌍한 생각을 갖는다면 위대하게도 보인다 이겁니다. 아무리 스님네들이 깨치지 못하고, 아무리 스님네들이 말세가 돼서 허우적거린다 하더라도, 싸움을 하고 죽이고 살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준다면 바로 그것이 내 마음, 내 형제가

☞ 30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이런저런 걱정 주인공에 다 놓으시고 걸림없이 사세요

☞ 29면에서 계속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내 형제가 머릴 깎고 저렇게 입산을 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니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감사하지 않으냐. 이렇게 내 마음, 내 몸, 내 아픔 바로 그걸로 생각을 하신다면 절대 욕 못합니다. 그러니 욕하지 마시고 뼈저리게 생각하신다면은 그 스님네들도 내 아들, 내 딸, 바로 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내 형제도 될 수 있고, 내 누이도 될 수 있고, 내 오빠도 될 수 있고, 내 동생도 될 수 있고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 회색옷만 봐도 좋습디다. 못났느니 잘났느니, 잘하느니 못하느니 해도 이 옷만 봐도 고마워. 이게 검고 희고 그런 게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 국기에도 그렇게 하늘과 땅을 그려놨죠. 둘이 아님을 알라고 둥그렇게 그려가지고는 그 안에다가만 그렇게 하늘과 땅을 그려놨죠? 가장자리에다가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삼(三)·사(四)·오(五)·육(六)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지의 근본은 인간의 근본이요, 인간의 근본은 천지의 근본이다.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공부하는 데 어떠한 아쉬움이 있고 어떠한 못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 못났을 때, 나 못 배웠을 때, 나 가난했을 때, 나 병신이었을 때, 내가 미생물이었을 때 바로 내 모습으로 보시라 이겁니다. 그런다면은 그 병 증세가 다 없어지고도 남음이 있어. 모든 거를 주인공이, 모두 결집된 주인공만이 바로 내 자식을 고칠 수 있다.

저 뉴욕의 어딘가 그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산호세 갔을 때도 그렇고, 댁에처럼 뇌성마비로다가 그런 건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야단이 났었다고. 그런데 애가 뭐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너무나 정성이 지극하고, 외삼촌도 또 거기서 사는데 그렇게 정성이 지극했어요. 지난번에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지금은 아주 출중한 어린애가 돼버렸어. 그건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마음을 내주는 것도 스님이지마는 그 마음이 서로 계합이 됐기 때문이지.

그러니 우리 이 방통 안에서도 내 한마음이 밝으면 여러 사람들이 다 밝게 앉았어. 밝게 살 수 있어요. 우리 한 가정이, 한 사람만 이런 도리를 깨치고 나간다면은 그 가정을 다 이끌어가지고 갈 수 있어, 지혜가 있다면. 다 밝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불 하나만 켜면 항상 밝으니까 남도 밝게 살 수 있지 않아? 그래서 화목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잘 이끌어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론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천궁행해라 이겁니다.

질문할 분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거 마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50%가 결집돼서 그 현상세계에서 사는데 모든 게 악화되고 병고액난이나 가난이나 그것이 성하기도 없어지기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우주의 법계와 더불어 같이 이렇게 상응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옛날에 어느 두 남매가 연년생인데 아주 어렵게 탄생을 해서 세 살이 되고, 하나는 두 살이 되었는데 부모가 그만 다 죽어버렸어요. 일 년 내에 그냥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보니깐 두 어린애는 고아가 돼서 이리저리 떠돌게 돼서 어느 스님네가 데려다가 키우게 됐죠. 하나는 비구 처소로 가고 하나는 비구니 처소로 가게 됐죠. 옛날 얘깁니다. 그러나 옛날 얘기로만 듣지도 마시고 옛날 얘기로 안 듣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르다보니까 하나는 열일곱 열여덟이 돼오고 하나는 열아홉 스물이 됐답니다.

어느 날 밤에 자는데 난데없이 그냥 자기 모습하고 똑같은 사람이 탁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자세히 들어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십만 년 전에 우리 옥황국(玉皇國)이, 천지옥황국이 악한 무리들로 인해서 혼란이 오게 됐다. 그 혼란이 오게 되면은 벌써 세상이 풍지박산이 되고 큰 병폐가 생기고 멸망할 수 있는 이치가 있어 우리가 보연지불을 생산해서", 큰 별을 생산했다는 얘기죠. "생산을 해서 그 병폐를 다 막고 있었느니라. 그러나 그 보연지불은 지금, 그 큰 별은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백 년 후에 그것이 재림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오백 년 후에 올 수 있는 그런 재난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열심히 하다가 만약에 어떠한, 즉 말하자면 장마가 들어서 흙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또는 바람이 요동치듯 불고,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어서 밝은 해도 비치지 않고, 달도 비치지 않고 그럴 때, 백성이 임금을 잃게 되고 그냥 헤매고 있을 그때, 또는 임금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백성이 임금을 무시하고 또 임금은 임금대로 그렇게 무시하니까 해나갈 수 없고, 서로가 똑같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혼란이 오면은 사람의 마음이, 모두 사생(四生)들 마음이 흩어져서 온통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섬길 수 없고 병고액난들이 생기고 산란이 오게 될 테니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느니라.

그러니 그러한 문제가 오걸랑은 올라가 도를 닦아서 빨리 재림을 하게끔, 네 마음이 지금 그 별, 즉 말하자면 보연지불로 같이 계합이 된다면 큰 별이 다시 재림이 되느니라. 재림이 돼서 이 세상을 다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광명이 있느니라. 그렇게 아니 한다면 세상은 앞으로 전부 망가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테니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오백 년 후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오백 년 전이 되고 바로 저 세상은 오백 년 후가 된다면 한 찰나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한 찰나지마는 공부를 못 한 사람에게는 오백 년이 오백년이지 뭐.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온다면 바로 재림되게 해서 광명을 되찾아서 그 옥황국(玉皇國)을 살림으로써 이 세상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융성해질 수 있고, 재난이 점점 줄어들고, 경제가 융성해지고,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되느니라. 이러면서 그 아이는 또 한 가지를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은 "재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그 악인을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없애는 게 아니니라. 대마(大魔)는, 모습 없는 악의 모습을 태어나게 해서 부하로 삼아 우리 선국(善國)을 아주 짓밟고 그러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여기 옥황국의 천지에 혼란이 오면은 이 세상에 혼란이 오고, 거기가 편안하면은 여기도 편안하니라." 이거거든요.

또 말씀을 하시길 "그러한 무리들이 많이 생겨서 마음으로 새끼가 새끼를 치고, 새끼가 새끼를 치고 이래서 많아졌느니라. 그러나 그거를 밝은 빛으로써, 예를 들어서 광명으로써 안아준다면, 비춰준다면 그 무리는 다 스러지고 말아버리느니라.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스러지느니라." 실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림자다 이거야. 모습 없는 모습, 그림자. 그러니까 "그건 실존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 큰 별이 재림이 된다면, 그 광명으로써 광력으로써 모든 것을 비추어주면은 그것이 스러져서 녹아버리니 그것이 바로 자비니라. 그 악한 마음들을 다 선하게끔 해서 하나로 만드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것이 천 년이 되고 또 십억 년을 되돌아서 다시 또 되면은, 사람의 마음이 산란해지고 모두가 다시 악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다시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이러느니라. 그래서 세상은 패망을 할 수도 있고, 세상은 패망 후에 올라설 수도 있고, 또는 전체가 타 죽을 수도 있고, 전체가 물에 소멸될 수도 있고 그러느니라. 그러니 이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도리는 마음이니라." 마음의 그 모든 도리를 알아서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계합이 되고, 또 지혜를 얻어서 공부를 하면은 저 우주 옥황국에서 그 큰 별들하고도 같이 계합이 돼서 우주 천국을 전부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도 편안하고, 거기가 혼란스러우면 우리 지붕 위에서 막 혼란이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 아래서는 지금 거기 쳐다보고 모두 그냥 뭐, 바람이 불고 흙이 떨어지고 돌이 떨어지고 돌이 구르고 물이 치닫고 그냥 이렇게 되면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랬는데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혼란이 오면은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세상에 혼란이 오는 거죠. 이게 말세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우리 마음들이, 우리 여기에 다니는 분들이 소승이다 대승이다, 체계가 없느니 있느니 이러한 혼란에 빠져서 자꾸 놓지 못하고 그렇게 망상에 끄달리지 마시고 전부 이 마음 주인공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하신다면, 또 작업을 하시되 안되는 것도 한 찰나고 되는 것도 한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은 감사하게 맡겨놓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도 찰나인데 되게끔 하는 것도 거기 밖에 더 있나?' 하고, 병을 앓더라도 '거기서밖에는 병을 낫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가난이 와도 '거기서밖에는 부유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나갈 수만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유권을 가지고 여러분은 자유자재할 수 있으며, 우리는 부처 중생이 따로 없이 중생을, 자기 몸 안에 있는 중생들부터 다 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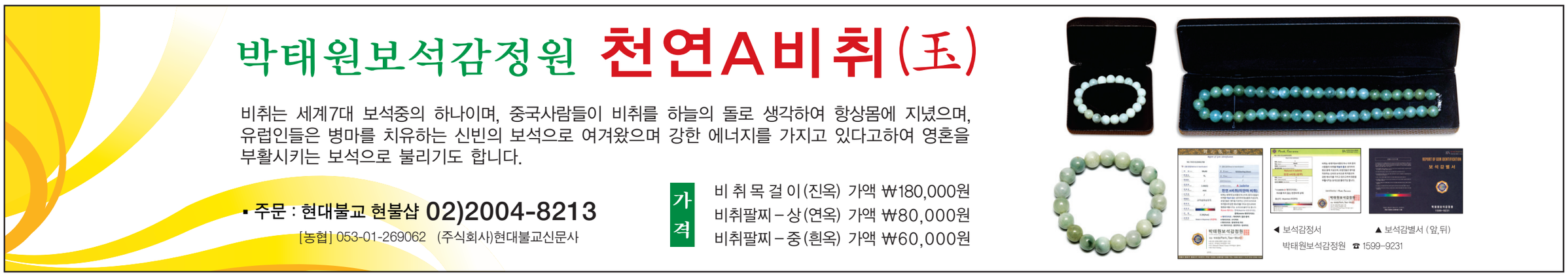
그러니 우리 한마음 도리 이것이, 물러터지고 아무 특별한 것도 없다 하지만 남이 이러든 저러든 내버려둡시다. 그저, 알고도 놓고 모르고도 놓고, 이렇게 사십시오. 한 찰나의 뜬구름처럼, 우리는 한 조각의 구름과 같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병이 깨지면은 그 응고된 물은 항상 흐르고 녹았다 흘렀다 하고 그렇게 여여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지수화풍에 고맙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는 고맙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 스승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질문할 분이 안 계신다면 요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알든 모르든 그걸 제껴놓고, 모든 것을 놓으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질문할 게 뭐 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알면 아는 것도 떡그릇인 줄 번연히 알면서 떡그릇에 엎드러진다.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봐가면서 간다. 남들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본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 함이 없이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전력이 오고 감이 없이 와서 불을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설된 줄이나 저런 거는 다 볼 수 있을지언정 전력이 오고 가는 거는 못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이 오고 가는 건 못 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서 지혜롭게 참, 마음의 자비를 그대로 중용하셔서 실천으로 궁행하시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이걸로써 끝마치겠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놔라.
이 우주 천하에 직결돼 있는 근본이
모두 사람의 마음에 직결돼 있는 것을 알고
그 직결돼 있는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겨놔라.

※위 법문은 1989년 9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대학생 포교, 동문 선배들이 잘해야



윤제철
前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회장

불교는 150명, 개신교는 1만여명

지난 6월 24일부터 4박 5일간 강원도 평창에서는 한국대학생선교회(KCCC, 개신교 계통)가 주관하는 전국대학생 여름수련회가 열렸다. '네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 수련회에는 국내 350개 대학에서 1만여 청년들이 운집했는데, 기독교 신자가 아닌 대학생 900여 명과 350여 외국 대학생들도 합류했다. 이들은 수련 기간 중 성경공부와 함께 LTC(지도자 훈련 과정)을 연수하고, 수련회가 끝난 후에는 팀별로 전도순례를 떠났다.

한편 올해로 창립 50주년이 되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는 지난 8월 17일 창립50주년 기념행사를 가진 뒤 동국대학교 일원에서 3박 4일간의 여름캠프(Young Buddhist Camp)를열었다. 'Let's Go! 빛나는 청춘'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대회에는 전국 대학 불교동아리에서 약 150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 학생들은 저명한 철학자와의 토크파티를 갖는 등 주인으로서의 삶, 붓다로서의 삶을 함께 깨쳐가는 심신수련의 기회를 가졌다.

대불련의 여름캠프와 KCCC의 여름수련회는 우리나라 양대 종교의 대표적인 대학생 수련활동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22.8%인 1070만 명의 신도수를 자랑하는 불교계의 수련 참가자가 860만명(18.3%)의 신도를 가진 개신교의 몇십 분의 일에 불과하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 기성세대는 그 동안 대학생 포교를 위해 무엇을 했나 하는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KCCC는 (세계)대학생선교회(CCC)의 한국 조직으로 1958년 김준곤 목사의 원력으로 설립됐다. 이들은 개신교 계통의 초종파적 조직을 구축해 국내 각 대학의 기독교 동아리를 지원함으로써 이른바 '캠퍼스의 복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포교조직에는 개신교 각 종파와 교회와 각 대학 CCC 동문들과 각계각층의 유력한 신도들이 참여하여 포교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대학생 포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범불교적 대학생 전법기구 있어야 한다

대학생에 대한 불교 포교는 불교계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호국불교이기 때문이다. 신라의 화랑도는 미륵신앙을 바탕으로 심신을 단련해 삼국을 통일했고, 임진왜란 때 젊은 스님들은 의병 중에 가장 치열하게 왜적과 맞서 싸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1980년 대에는 대불련을 중심으로 한 젊은 불자들이 민중불교운동을 전개하여 민주화의 기틀을 다졌다.

개신교의 포교정신과 포교방법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젊은 대학생들에 대한 포교가 중요하고, 이 포교에 범불교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대학생들은 우리나라와 우리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사람들이며, 이들에게 불심을 심어주는 일이야 말로 가장 중대한 불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불사는 대불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 대불련은 50년 전에 창립되어 지난 반세기 대학생 포교의 중심에 서 왔기 때문이다. 대불련의 수련 참가자가 150명에 불과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그것은 학생들 역량이 부족한 탓이 아니다. 이렇다 할 지원기구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15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불법을 배우겠다고 발심한 것을 가상하게 여겨야 한다.

이에 필자는 제안한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KCCC와 같은 범불교적인기구를 설치해 대학생 포교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대불련은 지난 8월 17일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대학생전법센터 설치의 구상을 밝힌 바 있거니와 조계종은 종파를 초월한 대승적이고, 전폭적인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불사가 성과를 거두려면 국내 모든 종단과 신도와 신도 단체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발언대

청소년 자살 급증 해법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가 이슈가 된지 오래다. 통계에 따르면 연 평균 159명의 청소년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고, 서울시 청소년 중 26%는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개학을 앞둔 초등학생들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로 고민하다 자살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편집자 주〉

청소년 심성 개발 지원 시급



인경 스님
명상상담연구원 원장

청소년 자살의 첫 번째 원인은 학력, 성취 위주 사회에 있다. 청소년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적응하기 힘들게 만드는 학력구조가 사회에 뿌리깊이 박혀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성적을 유지해야한다는 강박과 불안감에 현실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로 자살을 생각한다.

불교계에서는 청소년 심성개발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자살, 폭력, 왕따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심성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불교명상을 가르쳐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도 분명 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도자도 부족하고 청소년들한테 특화된 심리 복지 시설도 많지 않다. 청소년들을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아직은 초보수준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해야 된다. 우선은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운영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감성이 예민하고 철학적인 청소년들은 앞으로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을 은연중에 가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문제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봤으면 한다는 것이다.

마음 다스리는 교사 모임 필요



이수경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교수

사회가 점차 경쟁이 심화되며 청소년기부터 경쟁에 내몰리는 것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학업경쟁을 비롯한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 교사·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에 몰입하는 것을 강조할 뿐이지 아이들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치우쳐 있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 마음의 평온함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화, 불안함, 고통을 덮지 않고 털어놓아야 한다. 주변 어른들이 어린 아이를 안듯이 아이들을 보듬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사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사교육과 연수 등에 명상과 심리상담 등을 함께 배우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은 수업 전 1~5분 가량 아이들의 호흡과 상태를 지켜볼 수 있는 명상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이 아픔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어른들이 가져야 한다. 먼저 교사와 학부모들이 명상과 심리상담에 관련된 커뮤니티를 구성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부모에게 불교 교육해야



우인보
조계종 교법사 단장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진로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교육체계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스스로 진로를 찾아 준비하고 공부하기 보다는, 부모의 과다욕심과 대리만족을 위해 등 떠밀려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불교에서는 각자에게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한다. 그것이 곧 불교적 교육법이다. 학부모들이 먼저 불교적 교육법, 불교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내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 보니 개인이기주의와 가족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기복적 불교만 믿게 된다.

그러다보니 부모들은 중심이 잡히지 않게 되고, 자녀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닌,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대리만족을 위해 아이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 모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학교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교육적 제도를 마련하고, 불교계에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위한 불교적 교육법'을 가르치는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社說

사회는 조계종 선거를 주목하고 있다

수좌 스님들이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조계종 총무원 청사 인근에 좌복을 놨다. 전국 선원수좌회가 결성한 대책위원회가 8월 29일부터 무기한 묵언 정진에 들어간 것이다. 이들 수좌 스님들은 매일 4차례를 묵언 수행하게 된다. 정진의 기한은 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의 연임을 저지할 때까지다. 불교시민사회단체들도 수좌 스님들의 정진을 지지하고 나선 상황이다.

제34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현재의 조계종은 매우 혼란스런 상황이다. 불교광장은 분열됐고, 舊 무량화와 무차회, 백상도량(보림회)가 3자 연대를 구성하고 前 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후보로 추대했다. 사실상 이번 선거는 두 종책 세력 간의 대결로 굳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대중들은 불편하다. 폭로와 비방으로 얼룩진 선거의 폐해를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전한 종책을 겨루는 선거가 아닌 인물·문중 위주의 정치 공학적 선거가 될 경우 그 폐해는 불 보듯 뻔하다.

적지 않는 종도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그 결과를 떠나 흠결없는 후보가 여법하고 공정하게 선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누굴 뽑느냐가 관건인 선거가 아니라 국민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여법한 과정을 통해 선택되는 선거가 돼야 현재의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 종단 행정 수반에 걸 맞는 자질과 수행력을 겸비한 인물이 선출돼야 한다.

이런 종도들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선원 수좌들이 나선 것으로 생각한다. 백척간두에 선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 조계종을 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폭로와 비방, 범계의 수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정한 선거가 급선무다. 이는 올 하반기의 조계종 사부대중의 화두다.

1년 맞은 조계종 노동위, 발전하려면

지난 8월 27일로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꼬박 1년을 맞았다. 노동위원회는 창립만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인프라가 전무했던 불교계에 큰 이슈가 됐다.

실제 노동위원회는 1년 간 쌍용차, 현대차, 한진중공업, 학습지 노동자 등 전국 노동현장을 다니며 그들의 아픔을 위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및 가족 초청 템플스테이는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고 올해 초 개원한 노동자 심리상담센터 '도반'은 상처받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고민을 듣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격주 이어진 동사섭 법회도 노동현장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노동위가 풀어야 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 현재 불교적 측면에서 현대사회의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개념을 정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종단과 불교계 안에서의 노동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논의된 바 없다. 실제 열악한 불교계 노동환경에 대해 노동위는 비정규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 노동위가 출범한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불교계 노동인식은 미약한 것도 문제다. 한 노동위원 스님에게 문중 어른 스님이 "너 '빨갱이' 냐"라고 물었다는 웃지도 못할 일화는 불교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노동자다. 자본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에 가장 취약한 사람을 보듬고 도와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할 역할 중 하나다. 또한 불교계 내부 노동자들에 대한 복리후생과 환경을 발전시키는 것도 한국불교가 사회를 선도해 나가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노동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안정과 내부적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 산 지 사	박 경 수	010-9819-8345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특허 제 10-1179171호 산삼줄기세포 간질환 예방 및 치료 용도 특허
특허 제 10-126315호 산삼줄기세포 노화방지 및 용도 특허
특허 제 10-1128953호 산삼줄기세포 암의 예방 및 치료용도 특허 외 다수

당신은 지금까지 '진짜 산삼'을 드셨습니까?

강원도 50년근 산삼 24뿌리분이 진하게! '셀원' 출시!
7일이면 몸이 달라지고 한달이면 다시 태어납니다!

◆ **전설 속의 명약 '산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초가 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첫손에 꼽는 것이 있다. 바로 산삼이다. 산삼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거나 먹어본 사람은 극히 드물다.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산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이야기나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산삼을 먹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산삼은 전설속에 존재하는 약초인양 멀게만 느껴져 왔다.

동양의학 최고의 신약(神藥)으로 칭송받는 산삼은 몸을 보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막힌 곳을 트여 줄 뿐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하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게 만들어 준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시중에서 산삼을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수십년 묵은 산삼을 찾았다 하면 뉴스에 나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산삼은 그야말로 존재는 하지만 볼 수 없는 전설 곳의 명약인 셈이다.

◆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심마니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조차 산삼을 발견하면 '심봤다!'라고 외칠 만큼 산삼은 발견하기 힘들다. 산세가 좋고 풍수가 뛰어난 심산유곡에서 일조량, 토양, 고도, 지형 등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생명의 씨앗을 틔우는 고귀한 존재인 산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 가장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식물이며 그 효과 또한 무궁무진하다.

허준의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등에 따르면 산삼은 원기를 북돋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 폐, 간, 신장 등 오장육부의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한다. 그리고 항암작용, 노화예방, 정력증진, 동맥경화, 갱년기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한다. 진



"식물줄기세포는 분열조직이라 불리는 특수 구조안에 존재하며, 매우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진다. 이들은 수백년동안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기관을 생성할 수 있게 한다."

nature 415, 751-754(2002)

▲ 국내에서 개발한 식물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은 2010년 11월 (네이처)지 표지논문으로 살렸습니다. 네이처지는 전 세계 최고 권위의 생명공학 분야 학술지입니다.

각종 특허와 언론보도를 통해 효과 입증
'한국산삼감정협회'에서 인증한 50년근 산삼
산삼 줄기세포 - 산삼의 효과 100%일치

세노사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포닌 또한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이상 함유되어 있다.

◆ **50년근 산삼의 신비!**

산삼이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 또한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삼' 과 '장뇌삼' 이다. 그리고 최근 많이 볼 수 있는 '산삼배양근' 이 있다. 하지만 산삼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한 신기술이 나왔다. 산삼의 '줄기세포' 만을 순수하게 분리·배양하는 기술(특허 제 10-1064518호)저장근을 가지는 초본식물의 형성층 유래식물 줄기세포주 및 이의 분리 방법) 이 개발된 것이다. 이 신기술을 통하여 '한국산삼감정협회' 에서 인증한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를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는 강원도에서 채 취한 50년근 산삼의 효능·효과를 유전적 변이없이 100% 완벽하게 복제한 것으로 실제 산삼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좋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산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50년근 산삼 24뿌리 '셀원'**

강원도산 50년근 산삼 24뿌리가 담겨 있는 '셀원' 은 그동안 극소수만이 누려왔던 산삼의 효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셀원'은 특허 받은 기술을 통해 50년근 산삼의 줄기세포 24뿌리분을 추출하여 한병 한병에 진하게 담아냈다. 섭취와 흡수에 좋은 액상형태인 '셀원' 은 하루 1병씩 손쉽게 섭취가 가능하니 진정 '하루에 산삼을 한뿌리씩' 먹는 꿈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는 옛날 임금님조차 이루지 못했던 불로장생의 꿈을 현대에 와서 이룬 쾌거라 할 수 있다. 이제 '셀원' 을 통해 하루 산삼 한뿌리를 먹는 감동을 느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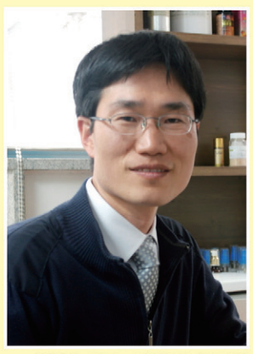
출시를 기념하여 선착순 300분에 한정하여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상담문의 : 080-810-8100

노화방지 기력회복 면역력강화 위·간보호 등에 탁월!

다 좋지만 '산삼' 만 하겠습니까?

장뇌삼, 산삼배양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 대한민국 사람 중 산삼 좋은 것 모르는 사람 있나?



▲ '셀원'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

"노화방지, 면역력강화, 정력증진, 위, 간 보호등에 탁월한 효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셀원'을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정호준 수석연구원은 식물 줄기세포 분리, 배양기술에 강한 확신을 보였다.

"산삼배양세포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섭취할수 있는 훌륭한 개발품이다. 산삼배양세포를 먹으면 진세노사이드를 비롯한 많은 유효 성분들이 피를 말끔하게 풀어주고, 상처난 곳의 회복을 도우며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몸을 지켜준다" 며 '셀원' 의 산삼배양세포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산삼배양세포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 이라며 "많은 분들이 산삼배양세포를 먹어 산삼의 영양을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특히, 출시를 기념하여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특별한 기회에 산삼줄기세포를 느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항상 지치고 피곤하신 분
- ☑ 기력이 떨어지고 힘에 부치는 분
- ☑ 병이나 수술 후 기력회복이 필요하신 분
- ☑ 손발이 차고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
- ☑ 평소 술과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
- ☑ 잔병치레가 많으신 분


201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1년 12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기술인정 2011년 2월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NET 인증) 2011년 12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2008년 8월



(ISO 9001 품질인증) 2007년 9월



한국산삼감정협회 50년근 삼삼인증서

세계가 놀란 '산삼 줄기세포'

산삼 줄기세포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 속속 들어나...

산삼은 피로회복, 면역력증진, 정력 증진, 위·간 보호 등에 뛰어나며 사포닌이 인삼의 10배, 홍삼의 4~5배 이상 포함되어 있다. 과거부터 신비의 명약으로 불리며 신성시된 약초로 시중에서도 찾아보기 매우 힘들 뿐더러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더욱 어렵다. 최근 식물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분리 배양한 특허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세계적으 로권위있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의 표지 논문으로도 게재된 바 있는 이 기술을 동양의 신비로 불리는 강원도산 50년근 산삼에 접목한 것이다. 그결과 산삼의 줄기세포인 '산삼 배양세포' 에서 우리몸을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신규물질이 다량 발견된 것이다.

국·내외 유수의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이 산삼배양 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 산삼배양세포의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 면역증강, 항노화, 간보호 등의 유효 활성기능이 확인되었으며 특허로 등록되었다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 관심 받아...



SBS KBS MBC YTN Discovery CHANNEL

SBS 8시 뉴스 | "세계 최초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한국이 해냈다."
KBS 9시 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세계 첫 성공"
MBC 9시 뉴스 | "나무도 복제·식물줄기세포로 항암제 생산"
YTN뉴스 | "식물줄기세포 분리·배양 첫 성공"
디스커버리채널 | 2011년 다큐멘터리 3편 제작, 세계 30여개국에 방영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표지 논문 게재 (2010년 11월호 표지논문)

300분 한정 특별할인행사

50년근 산삼의 신비 「셀원」 의 출시를 기념하여 특별행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만나보기 어려웠던 50년근 산삼의 신비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해 300분에 한정하오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산삼줄기세포 셀원으로 만나는 확실한 변화!

면역력 강화, 기력향상, 「셀원」 한박스에는 50년근 산삼 24뿌리의 산삼배양세포가 들어있어 떨어진 기력을 보충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지칠줄 모르는 강한 체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제품명 : 셀원 · 주요원료 : 산삼배양세포 추출물, 가피타히보추출물, 영지추출물, 참당귀추출물, 솔 잎 추출물, 복합황금추출물 외 · 제품구성 : 1박스 20ml×30병 · 제조원 : (주)에이지아이생명과학

상담문의 080-810-8100